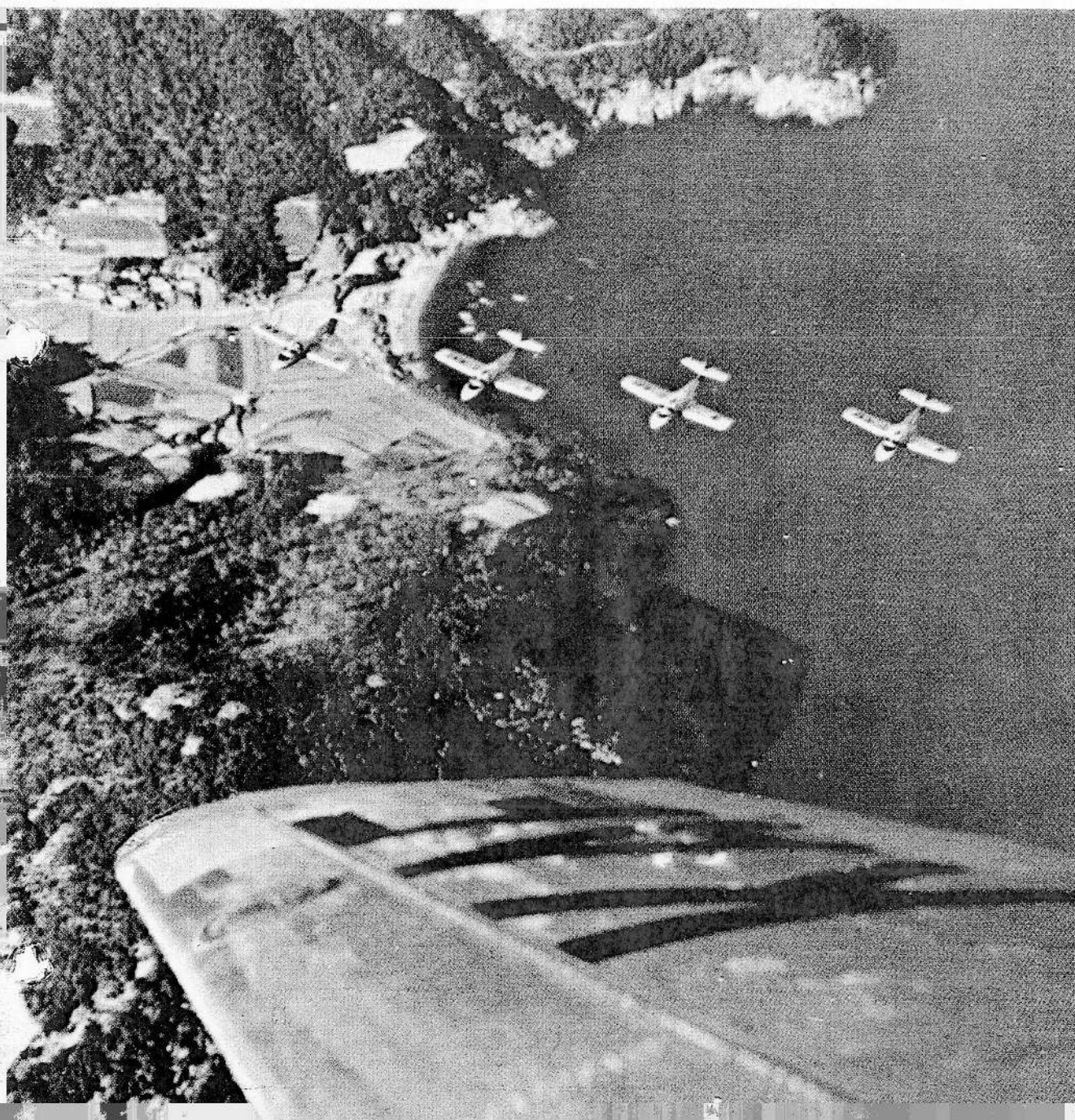


AIR FORCE

空軍

1984



어 록

앞으로 4년 후면 우리는 국민소득 1천억달러를 넘어 선진조국의 관문에 들어서게 되며, 올림픽을 고비로 하여 선진조국의 고속전진은 더욱 힘차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가시에 찢리지 않고서는 장미를 딸 수 없듯이 아무리 밝은 미래라 하더라도 우리의 피땀어린 노력이 기울여지지 않고서는 그러한 미래가 저절로 다가서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를 가로막는 온갖 장애를 각오해야 하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일차적인 대상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말살하는데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북한 공산집단의 책동이다.

며칠 전 6·25로 그들이 이 강산을 피로 물들인 한국전쟁 발발 서른네돌이 지났지만, 투철한 안보의지야 말로 이 땅을 평화와 복지의 보금자리로 가꾸는 요체가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하겠다.

〈全斗煥大統領, 88올림픽고속도로 준공식
致辭中에서〉

(慶)

第 17 代
參謀總長

金 仁 基 大將就任

(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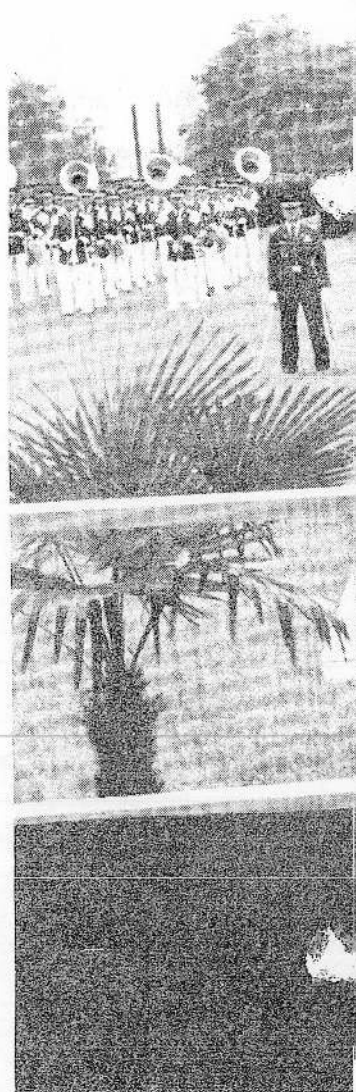


尹 誠敏 國防部長관으로부터 軍旗 및
지휘권을 받고 있는 金 仁基 參謀總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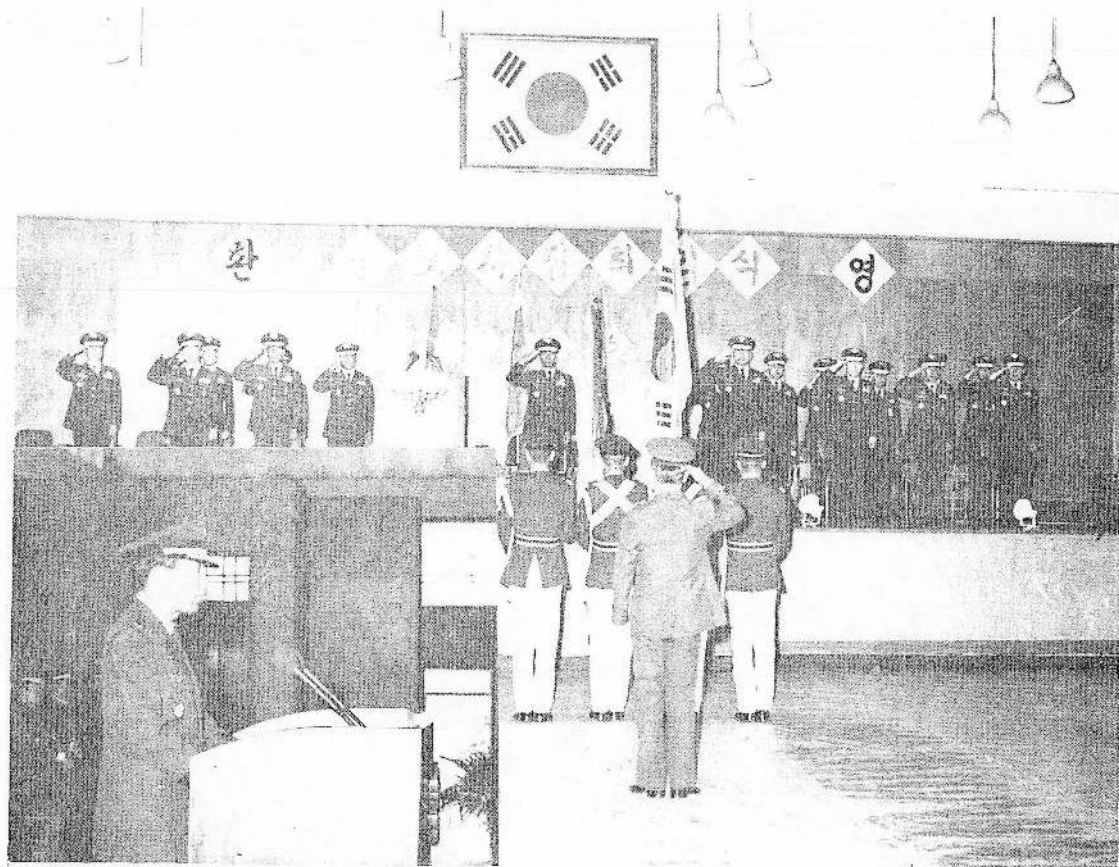
參謀總長 이·취임식이 지난 6月 5日尹 誠敏 國防部長관을 비롯하여
国会國防委員長, 合參議長, 韓·美聯合司令官, 육·해군 참모총장 등 고위
장성과 역대 참모총장 그리고 많은 내외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본부 광장
에서 거행되었다.



就任辞를 하고 있는 金 仁基 參謀總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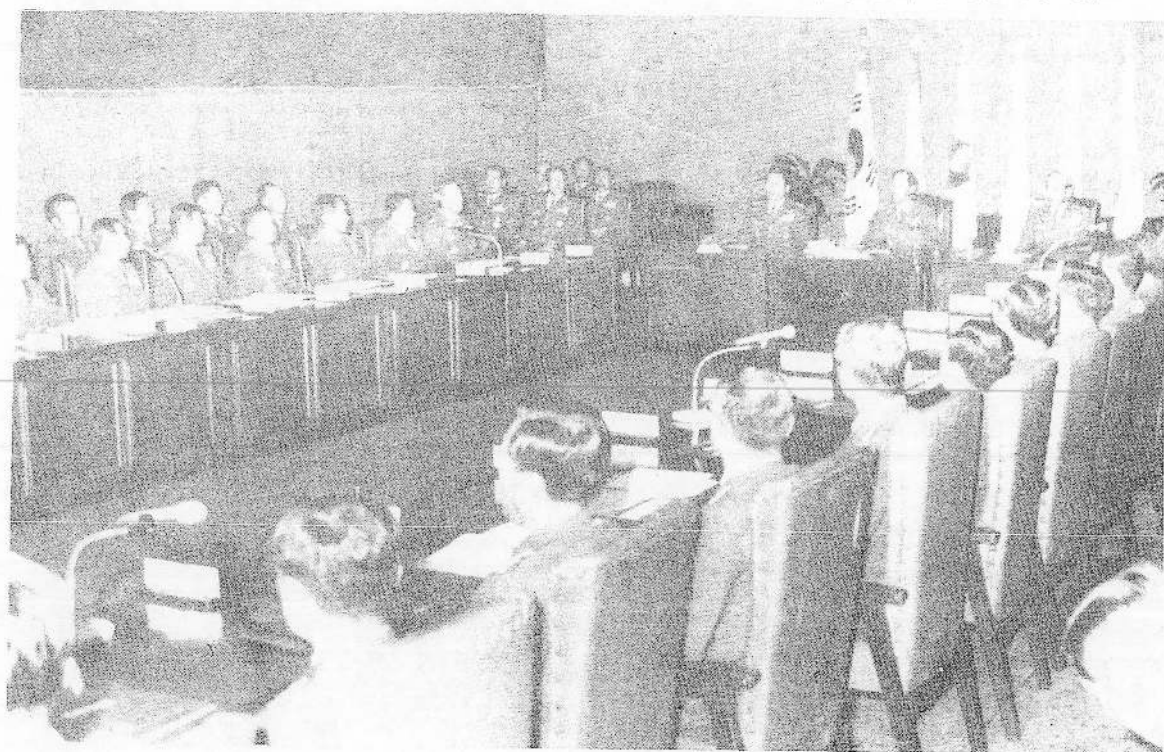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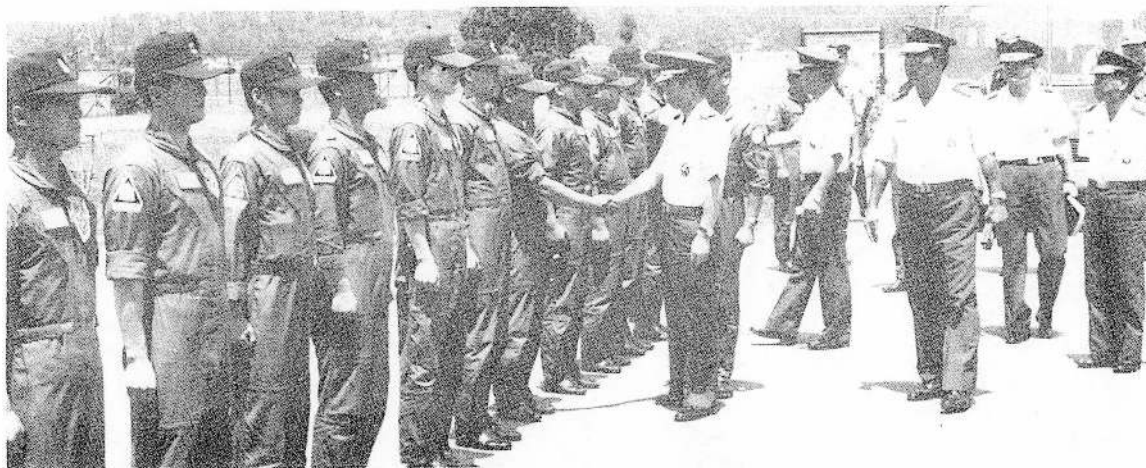
취임사를 하고 있는 서 동열 참모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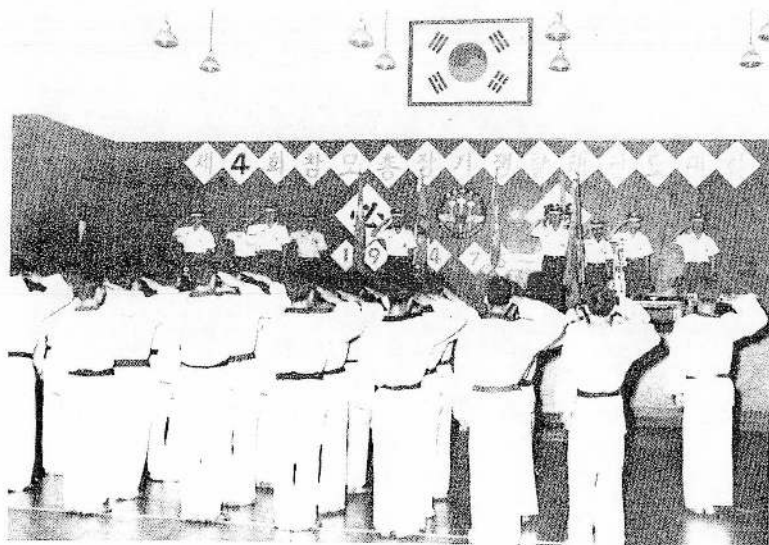
공군 주요 지휘관회의 개최 (본부회의실 7.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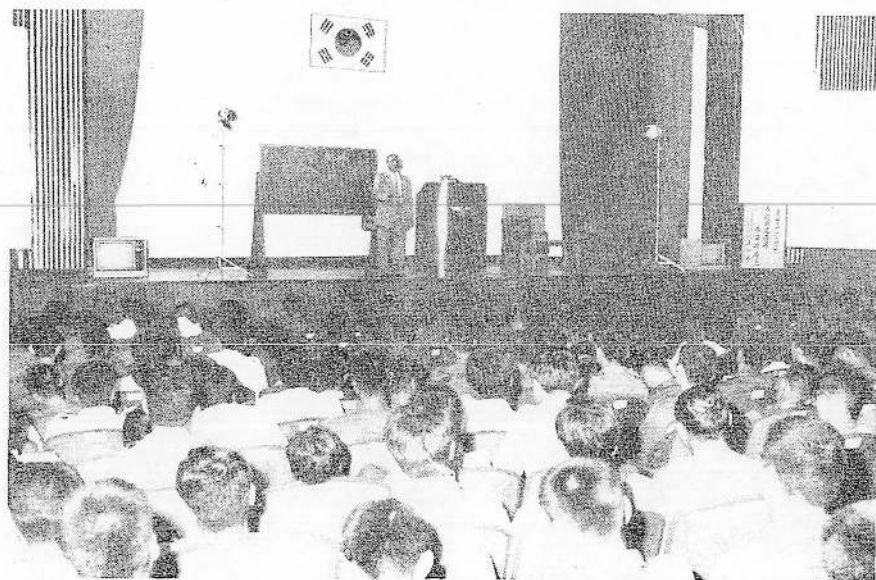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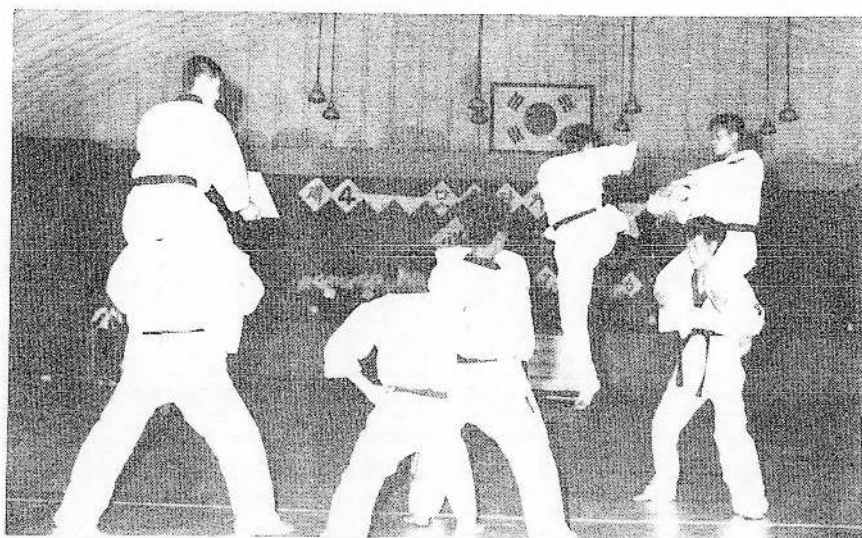
김 인 기 참모총장, 부대 초도순시





体力단련 전력증강

태권도대회 개최 (본부체육관 6·5)
제 4 회 참모총장기쟁탈 각 부대대항



특별 반공강연회 개최 (본부강당 6·25)

目 次

卷 頭 言	政訓監 張 正 孝 (1)
就 任 辭	參謀總長 金 仁 基 (3)

中共의 對韓半島 政策	全 正 煥 (6)
-------------	-------------

社会安定과 遵法精神	金 燦 植 (11)
우리 經濟와 에너지 節約	裴 秉 杰 (15)
護國은 民族主体 精神	徐 京 保 (21)
서기 2000년의 韓國의 人口問題를 걱정하며	金 성 이 (28)

極東아시아에서의 蘇聯威脅	朴 鍾 權 (32)
---------------	--------------

김 일성 父子 偶像化 策動과 그 實態	장 익 현 (40)
북한 「사상범 집단수용소」의 전모	(48)
종속이론의 형성배경과 문제점	(56)

6 · 25 반공웅변대회 입상작

힘을 길러라	박 상 웅 (65)
만 남	차 영 현 (66)
하늘이 주신 사명	오 기 현 (68)

太平洋空軍 現代化(上)	박 재 근 (71)
無人항공기의 現在와 장래(下)	尹 炯 基 (86)
化学戰과 그 방어책	강 신 일 (95)
소련의 우주 開發 計劃	尹 龍 鉉 (100)
슈퍼 팬텀	한 상 진 (108)
美 軍事 위성의 運用	崔 良 洙 (113)
歷史의 人物	• 충의의 용장 김 취려 장군 (121)
르 ㅂ	• 쏘들리고 폐쇄된 삶 (124)
독 후 감	• 조지 오웰의 1984년 (128)
스포츠 상식	• 경보 경기 (131)
	격구 이야기 (133)
隨 筆	38선을 지나며 (135)
	집념에 산 사나이 (138)
詩	無名용사의 墓碑銘 (141)
漫 画	• 보라매 日記 (143)
史 話	• 電車 소각 事件 (144)

空 軍

통권 제 190 호

1984년 제 3 호

參謀總長 統率方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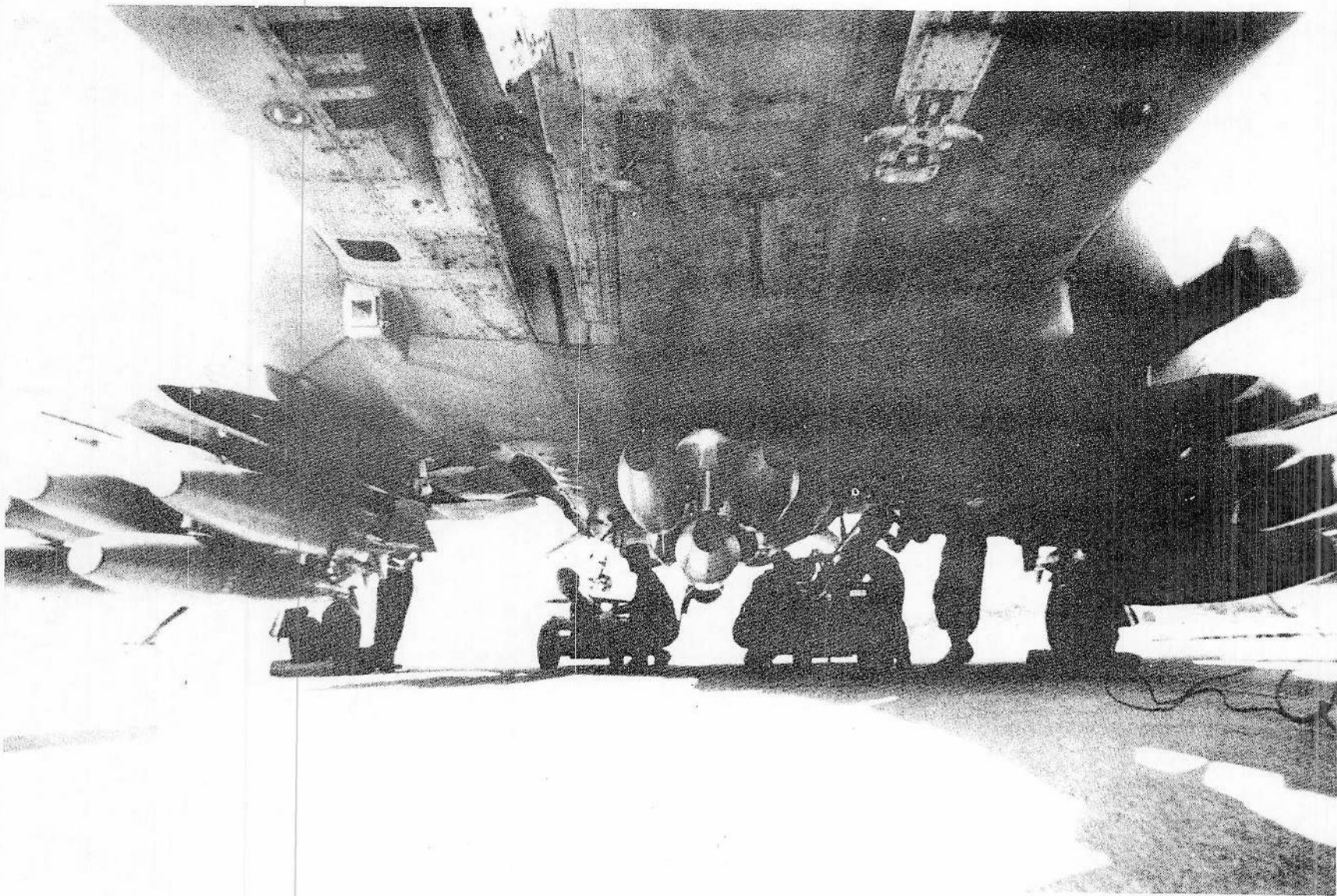
精兵強軍이 되자

必勝의 精神戰力

必勝의 技術, 技倆

必勝의 指揮, 管理

空軍本部





必勝의 精神戰力

政 訓 監
空軍大領

張 正 孝

동양의 병가 손자는 일찌기 “정신전력이란 적과 싸우지 않고 적의 의도를 분쇄하는 일”이라고 하였으며, 서양의 병가 「크라우제 비트츠」는 전략의 첫째로서 정신전력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동서고금의 많은 전략가들이 정신전력의 중요성을 역설해 왔고, 무기와 장비가 고도로 발달된 오늘날에 와서도 모든 전력의 핵심요소로 정신전력을 들고 있는 것은 전쟁의 주체가 장비 아닌 인간이며, 인간의 행동은 정신력에 의해서 지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괴와 사상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여건을 감안할 때, 장병 개개인이 우리 체제의 우월성을 확신하고 공산주의의 허구성을 정확히 이해한다는 것은 북괴와의 전쟁에서 확실한 승리를 보장하는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장병 개개인이 우리가 왜 싸워야 하는가를 명확히 인식하고 또한 싸우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을 때 왕성한 사기로 전투에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우기 요즈음 사회일각에서 공산주의 이론의 기만성과 허구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없이, 이념적 갈등을 느끼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이념무장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군은 지금까지 정신교육의 날 운영과 정신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장병들에게 확고한 국가관과 사상무장, 그리고 투철한 군인정신을 함양하는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왔으나, 이념교육에 있어서는 전문교관의 부족으로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단편적인 비판에만 의존해온 경향이 없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6·25를 체험하지 못한 전후세대 장병들에게 우리 체제의 우월성과 공산주의 체제의 모순성을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교관에 의한 체계적인 이념교육과 복귀와 대처한 우리의 절박한 현실을 피부로 느끼게 할 수 있는 실증교육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복귀와의 사상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 이론의 모순점을 이해하고 이를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이념무장교육이 강화되어야 하겠으며, 실증교육으로서는 분단의 현실과 6·25당시 국군의 용전분투상은 물론, 비참했던 양민학살 장면 등 복귀에 의해 저질러진 각종 만행을 장병이 직접 눈으로 보고 적개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각종 환경조성 활동을 통해 병영을 정신전력 도장화 함으로써 싸우면 반드시 이기겠다는 필승의 신념을 배양해야 하겠습니다.

이같은 확고한 이념무장을 기초로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곧 국민의 군대로서 우리 군의 사명이라는 점을 자각하여 전 장병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임무를 수행할 때, 참모총장님의 통솔방침인 필승의 정신전력이 굳게 다져질 수 있으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就 任 辞

參謀總長 金 仁 基
空軍大將

존경하는 국방부장관님, 국방위원장님, 합참의장님, 한·미연합사령관님, 육·해군총장님, 역대 참모총장님, 내외귀빈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장병 및 군무원 여러분!

본인은 오늘 명예 의하여 공군참모총장직에 취임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막중한 책임을 질감하면서 그동안 본인을 위해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상사, 선배, 동료, 그리고 귀빈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인은 내외의 각종 어려운 여건과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시고 선진 조국 창조를 위해 진력하시는 대통령각하의 탁월하신 통솔력과 민족적 발전을 위한 평화적 통일의지 및 자주국방에 대한 확고하신 신념을 받들어 본인에게 맡겨진 책임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기필코 달성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오늘 34년동안 강하고 멋진 공군 발전을 위해 모든 정열을 다 바치시고 정든 군문을 떠나시는 김 상태장군님께서 재임기간 중 방공체제의 재정비, 조기경보 체제 신장, 그리고 국산전투기 제공호의 실전배치로 수도권 영공의 철통같은 방위태세를 구축하는 한편, 주야간 어떠한 형태의 적 도발도 즉각응징하여 초전에 섬멸시킬 수 있는 전투기량의 향상과 “하면된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시는 등 공군사에 길이 빛날 많은 업적을 남기신데 대하여 그간의 노고와 공적에 뜨거운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앞날에 무한한 영광과 행복이 같이 하시기를 공군 전 장병과 더불어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장병 및 군무원 여러분!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괴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변화에 편승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력남침도발을 자행하려 광분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에서의 군사력 위협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보다 슬기롭고 완벽한 자주적 안보태세의 확립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북괴 공군에 비하여 비록 수적으로는 우세하지 못하지만, 각종 장비의 현대화를 비롯해서 군 발전을 위한 헌신적 노력과 창조력을 발휘하여 전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전투요원의 피나는 맹훈련을 통하여 적을 압도할 수 있는 고도의 전투기량과 필승의 자신감에 넘치는 사기를 견지함으로써 질적 우세를 통한 대적우위의 실질적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통령각하께서 금년도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유사에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전쟁의 주체는 장비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전쟁의 승패는 장병 각자의 강인한 전투의지와 기량이 결정하는 것”이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배전의 노력을 다해 필승의 호국의지로 무장하여 만일 적이 선 부르게 도발을 자행해 오면 즉각응징에 나서 저들의 전쟁수행 능력을 원천적으로 말살시킬 수 있는 정병강군 육성에 보다 진력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전승의 원천인 정신전력을 극대화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장병들은 6.25의 참상과 공산주의자들의 악랄한 만행을 체험하지 못한 전후세대로서 물질만능과 편의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장병들에 대한 충일한 국가관과 가치관, 그리고 사명감에 넘치는 투철한 군인정신의 함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공이념과 투철한 호국안보 의지로 무장된 장병들의 정신전력은 평시에 전비태세 확립은 물론, 일단 유사시 실전전력 발휘에 상승작용을 함으로써 최후의 승리를 보장하는 최선의 무형전력임을 명심하여 필승의 정신전력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에 항공기 및 고도의 정밀무기 체계를 직접 운영관리하는 당군은 자

신의 임무는 물론 유관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의 습득과 전문가적인 기술의 함양, 그리고 어떤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능히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숙달되고 정예화된 기량을 향상시켜 기술군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맡겨진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한 정신전력과 우수한 지식, 기술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군 목표달성에 직접 기여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조직화하지 못한다면 실전 전투력으로서의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급 지휘관들은 술선수범과 능률적인 지휘관리를 통하여 휘하 장병들이 스스로 임무완수에 충실하고 적정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경제적 군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케 함으로써 공군 목표달성을 위해 하나의 통합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휘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거듭 당부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역대 참모총장님과 선배님들께서 이룩해 놓으신 불굴의 투혼과 싸우면 꼭 이기고야 마는 필승공군의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여 조국영공 수호와 국가발전에 신명을 바칠 굳은 결의를 다짐하면서 장병 여러분들에게 배전의 노력과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공군의 육성발전을 위해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육·해·공 전우, 그리고 미공군의 계속적이고 우정에 넘친 협력을 부탁드리며, 떠나시는 김 상태장군님의 앞날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드리면서 취임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84. 6. 5.

中共의 對韓半島 政策

全 正 煥

國際政治學 博士
國防大學院 教授

1. 韓半島問題와 中共의 利害

한 나라의 대외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작용하는 요소나 동기 및 목표는 수 없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기반은 역시 무엇보다 그 나라의 國家利益이다. 즉, 모든 나라의 대외정책은 그 나라의 國家利益을 옹호·증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동기와 목표로 삼고 있다.

中共의 對韓半島政策 역시 「이데올로기」 문제, 南·北韓과의 역사적 관계, 名分 등 여러 요소에 의하여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역시 中共의 國家利益에 의하여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韓半島問題, 즉 韓半島에서의 戰爭과 平和問題 그리고 韓半島의 再統一問題와 관련된 中共의 政策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와 利害關係를 정리하여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첫째, 鄧小平을 중심으로 하는 오늘날 中

共의 指導體制가 實用主義路線을 활발히 추구하면서 대내외적으로 근대화정책과 개방주의정책을 과감히 추진하고 있지만 中共이 현재도 엄연히 共產國家이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共產國家로 남아 있을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中共은 「이데올로기」면에서 北韓과 同質性을 띠고 있고 韓國과는 異質性을 띠고 있다.

둘째, 中共은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른바 “두 개의 中國”政策을 결코 용납하지 않고 自由中國을 하나의 國家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고 中共의 一部로 주장하는 統一政策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中共의 이러한 統一政策은 北韓에 대하여 영구적이든 잠정적이든 “두 개의 韓國”政策을 종용하든가 강요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셋째, 中共이 共產國家로 남아 있는 한 그리고 中共이 韓國을 하나의 獨立·主權國家나 合法的 政府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또한 對南赤化統一路線을 이른바 “民族解放鬭爭”이나 “人民解放鬭爭”이라고 왜곡하는 北韓의 주장에 中共이 묵시적이든 공식적이

든 동조하는 한 中共은 北韓의 赤化統一路線을 반대하지 못하고 지지·지원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네째, 北韓은 中共에게 있어서 단 하나 밖에 없는 同盟國일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위치로 보아도 北韓地域이 中共과 對峙 내지 敵對하고 있는 강대국의 영향력하에 들어가는 경우 中共은 그들의 安全과 利益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다섯째, 中共은 南·北韓간의 긴장과 군비 경쟁, 더우기 韓半島에서의 새로운 전쟁이 그들의 國家利益에 유익하지 못하고 해롭고 위협적인 것으로 볼 것이다. 왜냐하면, 南·北韓간의 이러한 긴장과 군비경쟁은 北韓을 놓고 蘇聯과 격심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中共의 입장에서는 北韓에 대한 큰 지원 부담을 느껴야 하고, 美·日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하나의 장애요소가 되고 있으며, 특히 韓半島에서의 새로운 전쟁은 中共의 안전과 이익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中共은 北韓地域 뿐만 아니라 나아가 韓半島全體가 共產化되어 그들의 영향권 내지 세력권이 되는 것이 韓半島에서 그들의 최대의 이익이 되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韓半島에서의 南·北韓의 존재, 美·日·蘇 등의 對韓半島政策 등으로 그러한 목표를 현실적으로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中共은 韓半島가 美·日·蘇 가운데 어느 한 나라의 세력권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그들의 이익에 최대한으로 부합되는 것으로 볼 것이다. 中共은 韓半島

가 美國이나 日本의 세력권이 되는 것도 위협적인 것으로 보겠지만 특히 蘇聯의 세력권이 되는 것을 최대의 위협으로 볼 것이다.

대략 이상과 같은 것들이 韓半島에 대한 中共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요소들 및 利害들이라 볼 수 있는데 韓半島에서의 中共의 利害는 경제적인 성격의 것들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인 것들 그리고 특히 정치·군사적인 것들이다.

2. 中共의 對韓半島政策

中共의 國家利益을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 하여 中共이 韓半島에 대하여 추구하는 정책은 대략 다음과 같다고 본다.

첫째, 中共은 北韓이 中共의 영향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蘇聯과 밀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韓半島에 대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北韓이 蘇聯과 밀착하고 더우기 北韓의 對中共敵對政策에 동조하는 경우 蘇聯의 對中共包圍政策은 東北아시아에서도 성공하는 셈이 되므로 「베트남」과 印支半島全體가 蘇聯의 세력권이 된 것 이상으로 中共의 安全과 國家利益은 치명적인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中共이 北韓에 대하여 경제·군사원조 등 각종 지원을 계속 내지 증대하고, 北韓의 赤化統一路線을 지지하고, “피의 유대”를 계속 강조하고, 韓國과의 본격적인 접근을 회피하고, 金正일에 대한 權力世襲을 묵인

내지 용인하는 것 등은 中共에 대한 北韓의 불신과 반발과 그에 따른 蘇·北韓간의 밀착을 두려워 하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中共은 韓半島에서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나아가 韓半島에서 안정 및 평화가 유지·강화되는 것을 희망하고 가능한 한 이를 실현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韓半島에서의 새로운 전쟁은 中共으로서는 기대할 만한 이익은 거의 없고 우려하고 두려워해야 할 위험과 손실은 아주 많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韓半島에서의 새로운 전쟁은 蘇聯에 대한 北韓의 의존도를 크게 증대시킴으로써 北韓을 놓고 中共이 蘇聯과 벌이는 경쟁에서 中共을 더욱 불리하고 열세한 위치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다.

韓國의 同盟國인 美國과의 관계, 北韓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특히 군사적 지원능력 등 거의 모든 면에서 中共은 蘇聯보다 약하고 불리한 입장에 있으므로 전쟁의 경우 北韓은 蘇聯에 더욱 의존하고 따라서 北韓에 대한 蘇聯의 영향력은 그만큼 증대할 것이다.

또한, 韓半島에서의 새로운 전쟁은 北韓에 대한 中共의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지원부담을 크게 가중시킬 것이고, 美·日 등 서방국가들과 中共간의 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많으며, 韓半島에서 美·中共이 다시 직접 충돌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中共의 對西方協力政策과 따라서 4개 근대화정책은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책이 될 것이다.

中共은 이러한 이해관계 때문에 韓半島에서 새로운 전쟁을 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쟁이 억제되기를 희망하며 南·北韓간의 關係改善을 통하여 韓半島에서 안정 및 평화가 유지되고 강화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본다.

南·北韓關係가 개선되는 경우 蘇聯에 대한 北韓의 의존도는 현저히 감소될 것이고, 北韓은 美·日 등 서방국가들과의 접근을 위하여 蘇聯보다는 中共을 더 필요로 할 것이다. 따라서, 北韓에 대한 中共의 영향력은 그만큼 증대될 것이다.

세째, 中共은 싫든 좋든 北韓의 赤化統一路線을 지지·지원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中共이 北韓의 赤化統一路線을 지지·지원하지 않고 더우기 반대하는 경우 中共은 세계의 공산세력들 및 左傾 第3世界國家들로부터 北韓의 “民族解放鬭爭” 혹은 “人民解放鬭爭”路線을 배신했다는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특히 北韓의 격렬한 반발을 유발하여 蘇·北韓간의 밀착을 가져올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中共은 北韓이 주장하는 주한미군철수, “聯邦制”에 의한 韓半島統一, “3者會談”, 美·日 등 서방국가들과 北韓간의 접근 등에 대한 강력한 지지·지원을 계속 확고히 천명하고 있고, 北韓의 안전에 대한 보장과 中共·北韓간의 “피의 유대” 관계 및 형제적 단결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네째, 中共 역시 韓半島에서의 긴장과 새로운 전쟁의 위험이 北韓의 赤化統一路線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을 모르고 있다든가 韓國의 平和統一政策이 韓半島에서 새로운 戰爭을 억제하고 安定과 平和를 정착시키고 韓半島統一問題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中共은 그들이 北韓의 赤化統一路線을 견제·반대하고, 北韓에 대하여 南·北韓간의 직접대화와 關係改善을 종용·강요하고, 南·北韓에 대한 강대국들의 교차승인이나 南·北韓의 「유엔」동시가입 등을 주장하는 경우 北韓의 가장 큰 반발을 유발하여 中共과 北韓간의 관계가 악화되고 蘇·北韓간의 밀착이 이루어질 것을 두려워하여 이러한 정책을 추구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실하다.

다섯째, 中共은 韓半島에서 새로운 전쟁을 방지하고 安定과 平和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다고 본다.

즉, 中共은 北韓의 강한 반발을 유발하지 않는 한계 내에서 韓國의 對中共 接近政策에 아주 조심스럽게 부분적으로 응하고 있으며, 그 대신 美·日 등 서방국가들과 北韓간의 접근을 위한 중개역할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3. 韓國의 對中共政策 方向

中共이 韓國의 同盟國인 美國이나 友邦인

日本 등 서방국가들과의 우호 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있고 또한 韓國의 對中共接近政策에도 극히 부분적이긴 하나 긍정적으로 응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北韓에 대한 각종 지지·지원정책을 강화하고 北韓의 호전적인 赤化統一路線에 대한 지지정책을 확고히 천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中共에 대한 北韓의 불신과 반발 그에 따른 中共·北韓關係의 악화와 蘇·北韓간의 밀착을 두려워해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中共의 韓國과의 접근 내지 修交를 거부하는 것은 兩國간의 「이데올로기」의 異質性이나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오랫동안의 적대관계 혹은 中共의 “두 개의 中國” 반대 정책이나 더우기 兩國의 國家利益의 相衡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中共은 「이데올로기」가 상이하고 韓國과 보다 더 격렬한 적대관계를 지속해 왔던 美·日 등 많은 서방국가들과 이미 修交하고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그리고, 韓半島에서의 새로운 전쟁의 억제와 安定 및 平和의 유지·강화는 韓國과 中共의 이익에 같이 부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韓·中共간의 修交 및 각종 교류·협력 역시 兩國의 共同의 利益이 될 것으로 본다.

특히 오늘날 韓國과 美·日 등 서방국가들과의 관계와 中共과 이들 서방국가들과의 관계로 볼 때 韓·中共간의 접근은 극히 자연스럽고 필요한 것으로 보일 것이다.

이러한 韓·中共간의 접근에 中共이 아직

까지 동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北韓이 韓·中共接近을 격렬히 반대하고 있고 中共이 北韓을 놓고 蘇聯과 격심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데 거의 전적으로 연유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韓·中共接近이 실현될 수 있다면 北韓이 이에 반대하지 않든가 中共과 蘇聯이 함께 韓國과의 접근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北韓이 韓·中共接近과 修交를 반대하지 않으려면 그들이 赤化統一路線, 특히 武力赤化統一路線을 중단 내지 포기해야 하는데 北韓의 이러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있을 가능성은 앞으로도 당분간 극히 희박하다.

그리고, 北韓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中共과 蘇聯이 함께 韓國과 접근하는 것은 中·蘇對立關係와 美·蘇敵對關係 그리고 韓·美同盟關係 등으로 보아 역시 상당한 기간동안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韓國은 中共과의 접근을 지나치게 성급히 추구함으로써 北韓의 반발과 中共의 불안을 증대시키는 역효과를 가

져오지 않도록 신중하면서도 꾸준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韓國은 美·日 등 서방국가들과 北韓간의 접근을 추구할 中共의 행동을 주시하면서 서방국가들이 성급히 北韓과 접근하는 것을 저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中共의 정책에 회의와 불안을 느끼는 北韓이 蘇聯과의 관계를 강화할 가능성 역시 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같이 軍事冒險主義와 現狀打破政策을 추구하는 蘇聯과 北韓이라는 두 세력의 결탁은 韓半島 뿐만 아니라 東北아시아에서의 安定과 平和에 결코 유익하지 않고 크게 위협적인 것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韓國이 방위태세를 꾸준히 완비하고, 韓·美同盟關係를 강화하고, 中共 및 蘇聯 등 공산국가들과의 접근정책을 인내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때 中共을 비롯한 공산국가들과 韓國과의 접근이 실현되고 北韓 역시 비현실적이고 위험한 赤化統一路線을 포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社会安定과 遵法精神

金 燦 植

(미래사회연구소장)

1. 사회안정은 왜 필요한가?

옛날 공자(孔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자공(子貢)이 공자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스승님 국가 운영의 요체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공자 답하기를

「족식 족병 민신지의(足食足兵民信之矣)다」라 일렀다고 한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먹을 것을 족하게 한다. 요즘 말로 하면 경제를 이룸이오 다음 족병은 병사를 족하게 한다는 말이니 요즘 말로 하면 국방이며 끝으로 민신은 나라가 하는 일을 백성이 믿고 따르며 백성과 백성간에 서로 믿고 삶을 이룸이니 요즘 말로 하면 신뢰풍토라 하겠다.

자공이 다시 물었다고 한다.

「그럼 이 세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나이까?」

그러자 공자는

「민신이다.」

이렇게 한 마디로 잘라 말했다는 것이다. 왜 그랬을까.

범상하게 생각하면 첫째가 먹는 것이오, 둘째가 막는 것이며 믿는 것이야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별로 대수로울게 없는 것으로 보기 십상인데 왜 공자는 믿는 것을 제일 중요한 것으로 지적했을까.

이것은 믿으려면, 즉 신뢰풍토가 조성되려면 사회 정의, 사회 기강이 확립돼야 하고 만약 사회 정의, 사회 기강이 확립되지 않으면 사회 안정이 깨어지고 사회 안정이 깨어지면 경제도 안보도 무너지고 말기 때 문임을 논거로 한 말이라 하겠다.

사회적 안정과 질서가 깨어진 상황에서의 경제나 안보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도 같아 바람만 불어도 넘어지고 만다는 것은 역사가 일러주고 있는 교훈임을 본다.

멀리는 로마제국의 멸망에서 그리고 가까운 월남의 패망에서 우리는 이것을 본다.

뿐만 아니라 발전의 기본도 안정이오 평안한 삶의 조건도 결국 안정이다.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사회 발전을 기대한다는 것은 풍랑 중인 바다 위에서 배를

요동없이 세워두려는 것과 같다 할 것이다.

또한 인생의 궁극적 행복은 불안하지 않은 마음의 평안일진대 사회적 안정없이 어찌 마음의 평화를 바랄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런 점들이 사회 안정의 중요성이라 하겠다.

2. 법의 의미와 중요성

희랍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모함에 걸려 사형을 선고받았을 때 억울한 죽음을 피하기 위해 탈출하라는 친구들과 제자들의 권고를 받았지만 감연히 이를 거부하고 독배를 마신 얘기는 법이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를 웅변으로 말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싶다.

「나라의 법에 의한 판결을 내 마음대로 어기면 나라가 쓰러질 수 밖에 없네. 우리가 부모에게 횡포를 부려서는 안 되는 것처럼 나라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려고 해도 안 되네.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또 교육을 받은 것도 나라의 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네. 그렇게 법의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온 내가 이제 와서 나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그 법을 함부로 어길 수는 있지 않겠는가? 내가 지금까지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 온 것은 조국과 법이 명령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조국의 법 앞에 스스로 약속한 것과 마찬가지로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법을 어기면 나는 적어도 세 가지의 죄를 저지르는 것이 되네. 첫째는 나를 태어나게 한 이 땅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되고 둘째는 나를 지금

까지 보호해준 법을 배반하는 것이 되며, 세째는 국법에 복종하기로 약속한 것을 어기는 것이 되네.」

(플라톤의 「크리톤」에서)

소크라테스는 비록 잘못된 법, 잘못으로 적용된 법의 선고라 하더라도 일단 그 법이 효력을 가지고 있는 한 민주시민은 이를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자신의 죽음으로서까지 교육해 보인 성인이라 하겠다.

법은 만인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킬 때만이 비로소 그 효력을 갖는 것이지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 될 것이다.

민주주의는 한 사람 또는 소수 집단에 의해 지배되는 정치제도가 아니라 법과 제도에 의해 통치되는 제도이고 보면 누구를 막론하고 법 앞에 평등한 자격으로 이를 지키고 또한 보호 받을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힘 있는 자라 하여 특권의식을 갖고 법을 어기거나 힘 없는 서민이라 하여 나 하나 정도쯤 어겨서 어떠랴 하는 예외의식으로 법을 어길 때 그 사회는 정도 아닌 사도로 갈 수 밖에 없다.

또한 오늘날과 같이 사회가 분화되고 복잡한 상황에서야말로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유지·운용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법을 확대 해석하면 원칙이오 질서며 도덕이오 윤리다.

인간이 원칙과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것은 우주 자체의 속성이 원칙과 질서이며 인간은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일부이기 때문에 결코 원칙과 질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다.

만약 우주의 운행에 있어서 변칙과 무질서 현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으로 윤리와 도덕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공통의 계약이요 가야만 할 길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윤리와 도덕의 실천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3. 우리의 준법적 현실 상황은 과연 어떠한가?

앞에서 우리는 법, 나아가서는 원칙과 질서, 윤리와 도덕이란 과연 어떤 것이고 그것이 왜 중요한가를 간략히 살펴 보았다.

그렇다면 이 점에서 우리의 현실 상황은 과연 어떠한가?

가림주구, 백성을 괴롭히던 일부 귀족과 벼슬아치들을 미워하다 보니까 국법까지도 미워할 수 밖에 없었던 이조 때 이후의 잔재, 더우기 수탈 악법으로 우리를 괴롭히던 일본 식민통치 때의 저항의식에서 비롯된 탈법 관념은 아직까지도 그 뿌리가 완전히 뽑히지 않은 것 같다.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의 혼란과 특히 6. 25 참변은 법과 질서원칙과 도덕을 일단 팽개쳐야만 살아 남을 수 있다는 변측 풍조를 만연시켰고 설상가상으로 60년대 이후의 급격한 근대화, 경제성장 제일주의 정책은 정당한 수단 방법 보다는 결과 제일주의적 인간군을 양산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법과 질서 원칙과 도덕을 지키는 사람은 뒤로 쳐지고 무법자 무뢰한이 앞을 치달는 불법과 비리가 횡행하게 되었다.

말로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자고 떠들어 대지만 실제로는 이와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법의 정신은 양심과 양식, 정직과 성실일진대 이 어찌 개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같은 우리의 오류, 불법과 무질서 현상을 단적으로 입증하는 통계가 하나 있다.

지난 1981년 UN이 조사한 자동차 1만대 당 인명 사고율에 관한 통계가 바로 그것이다.

자동차 1만대 당 인명 사고율

(1981년 UN 통계)

서 독 8.1 명	영 국 3.5 명
프랑스 7.1 명	미 국 3.3 명
이태리 6.1 명	일 본 2.3 명
	한국 101.5 명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일본보다 무려 50배에 가까운 사고율을 기록하는 살벌한 교통상황 속에 살고 있다.

그럼 이러한 상황은 누가 만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우리 모두' 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의로운 사회, 안정되고 평화로운 사회, 나아가서는 선진된 이상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시급하게 요청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준법정신 - 원칙주의, 질서주의 도덕주의 - 이라 하겠다.

4. 준법의 생활화

법과 질서의 생활화를 위해서는 먼저 지나친 자기중심적 이기주의를 버려야만 할 것이다.

사람의 유형을 대체로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자기 이익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고, 둘째는 정해진 바 테두리 안에서 조심스럽게 안주하는 사람이며, 세째는 나와 동시에 남을 생각하면서 매사에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 하겠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첫째 유형, 즉 자기 이익,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하루 속히 사라져야만 하겠다.

다음으로 매사를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정해진 바 테두리 안에서만 살려는 유형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은 현실 유지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가장 알맞는 유형이 되겠지만 보다 나은 방향으로의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보다 나은 사회,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수동적 준법이 아니라 능동적 준법, 즉 매사에 책임감을 가지고 나와 너, 나아가서는 사회와 국가와 인류를 위해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법은 물론 원칙과 질서, 규범과 도덕의 준수차원을 넘어서 객관적 정의의 수호자요

구현자적 인생을 사는 인간상을 우리의 이상으로 삼아야 하겠다.

다음으로 질서를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생을 느긋한 마음으로 여유있게 삶으로써 조급하게 굴지 않는 습관을 기르고 인내하며 양보하는 생활자세를 가져야 될 줄 안다.

그러려면 자기 이익, 자기 주장만 앞세우는 독선적 태도가 아니라 남의 이익, 남의 주장 쪽에서 생각하고 판단해 보는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이다.

또한 공중도덕을 잘 지키려면 먼저 예절과 교양을 갖춘 인격자가 되어야겠다.

위에서 든 몇 가지 점을 다시 한번 부연해서 강조하면 인생의 기본자세의 토대를 인명, 인권, 인격 중시주의에 두고 매사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사실 인명보다, 인권보다, 인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적어도 이러한 가치관 위에서 살 때만 인간사회는 정의롭고 이상적이 되겠기 때문이다. 법과 질서, 원칙과 도덕을 지키자는 것도 따지고 보면 모두가 마음놓고 평안하게 고루 잘 살아보자는 것이오 이것은 사회정의가 분명한 속에서 평화롭게 살자는 것 아닌가. 보다 좋은 우리의 미래 사회를 눈앞에 그리면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 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가운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그것은 다른 아닌 법과 질서, 원칙과 도덕을 기반으로 굳히는 작업, 바로 그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두고 싶다.

우리 經濟와 에너지 節約



불안한 석달 여유

한국경제가 크게 발전하여 세계적 자랑거리가 되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멀리 호루무즈 해협의 기상변화에 따라 숨통이 터졌다 막혔다 되풀이 하는 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무산유국이자 자원빈국이라는 부끄러운 처지에서 고도성장의 기적을 쌓아 올렸다. 우리의 경제개발은 국제 메이저의 독선에 시달리고 오일쇼크에 쫓기는 처량한 입장에서 어금니를 깨물고 일어선 땀의 결정이었다.

우리 경제가 석유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고도성장을 이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거의 숙명적이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란과 이라크전쟁의 추이에 우리가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숙명이다.

裴 秉 炣

〈毎日經濟新聞・論說委員〉

우리나라 유조선이 호루무즈 해협을 통과할 때 온 국민이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지켜봐야 하는 것이 오늘의 세계 석유시장 기상이다.

석유 소비국은 산유국으로부터 정당한 고객대접을 받지 못한다.

산유국은 기름을 팔아야 전비를 조달하고 소비국은 매일 수십만 배럴을 사와야 경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양쪽이 서로를 필요로 하는 협력자이다.

그러나 실상 산유국은 지배자이고 소비국은 피지배자의 관계에 가깝다. 산유국의 고자세 앞에 소비국은 저자세로 거래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기존질서로 인식된다.

우리는 지난 1973년도의 제 1차 오일쇼크로부터 산유국의 독선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무산유국이라는 약자의 입장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처럼 선택의 여지가 없을 법한 석유정

책에서 얻어낸 것이 있다면 우리도 최소한 3개월을 버틸 수 있다는 지구력의 확보이다.

가령 호루무즈 해협의 전운이 최악의 사태로 발전하는 경우에도 3개월간은 걱정없이 경제발전을 끌고 갈 수 있다는 여유가 생긴 것이다. 매우 불안한 여유이지만 그것은 대단한 지위향상의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비록 소비국의 지위가 불안할 망정 제 3의 오일쇼크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확신이 남아 있다. 산유국의 석유무기화 10년만에 소비국의 저항력도 웬만큼 불어났기 때문이다.

무법자 처럼 군림하던 메이저의 지배로부터도 거의 해방되었다.

절프오일을 비롯하여 유니온, 칼텍스 등 국제 석유자본가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보따리를 챙겨 우리나라를 떠났다. 그들이 독점시장으로 옮겨 먹었던 원유에서 수송 정제 유통에 이르는 모든 영업권이 우리손으로 넘어 왔다.

그래서 6조원이 넘는 정유산업이 국내자본에 의해 운영되는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았다.

그러나 아무리 국내 정유산업의 규모가 확대되어도 호루무즈 해협의 기상에 매일 운명은 변함이 없다. 석달간의 여유나 3차 오일쇼크가 생기지 않는다는 태평스런 확신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장은 여전히 곤궁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국제시장의 난기류

산유국이 오일파워를 행사하게 된 근본은 석유자원이 무한정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지극히 간단한 배경이 뒷받침 해 주었다.

초기 국제 석유자본에 개발을 내 맡겼던 산유국이 메이저와 티격태격하다가 오일쇼크라는 무서운 태풍을 일으켰다. 제 1차 오일쇼크는 산유국에게 일방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

세계시장의 석유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을 때 자원보유국이 이를 무기로 소비국을 억압하는 것은 너무나 손쉬운 일이었다.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은 석유에너지 위주로 공업화정책을 밀고 가는 도중에 오일쇼크를 만나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물량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같은 단순한 배경아래 우리경제는 산유국에게 속박 당하는 수모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1960년대 중반까지의 우리나라가 들여오는 원유값은 한 배럴에 2달러가 약간 넘었다. 그러다가 1970년에는 수송비를 포함하여 1.72달러에서 1.95달러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원유값이 1970년대 중반에는 10달러를 넘어섰고 1981년에는 무려 35.58달러까지 폭등했다.

세계각국이 고유가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서방 선진대국이 극도의 경기침체에 허덕인 것도 이때문이었다.

이때 대체 에너지 개발과 석유에너지의 소비절약으로 약간의 저항력이 생겼지만 산유국의 고가정책에 정면으로 대결할 수 있는 나라는 없었다.

다행히 대량 소비국의 절약에 힘입어 공급과잉 현상이 빚어지고 원유값이 약간 누그러져 지금은 30달러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나 현행 고유가 체제가 다시 무너질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이따금씩 재정형편이 안 좋은 일부 산유국이 덤핑도 하고 물량을 늘리기도 하지만 배럴당 30달러시대는 거의 굳어진 사실이다.

이 결과 우리나라의 원유도입액은 연간 60억달러에 이른다. 우리 돈으로 무려 5조원에 달하는 이 엄청난 재원이 산유국에게 갔다 바치는 돈으로 쓰여지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 1970년대 고도성장기 동안 우리경제는 기름값 충격만 없으면 무사태평하리라고 생각되었다. 석유값 인상에 따른 원가부담은 어떤 땀과 인내로서도 보상받기는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산업구조는 석유 다소 비업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유가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킬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도 국제시황은 부존자원의 한계설과 자원보유국의 내셔널리즘에 크게 영향을 받기에 이르렀다.

국제 에너지 전문기관의 예측에 따르면 석유류 수요는 서기 2천년까지 꾸준히 늘어나게 된다. 또 총 에너지 공급비중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아 계속 51%가 넘어서게 된다.

이에비해 석유매장량은 6천 7백억배럴로 가채연한 34년 안팎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전망이 산유국으로 하여금 자원이 갈 뒤를 걱정하게 자극했다.

석유가 매장된 지역은 중동 중남미와 공산권이 전체의 85%를 넘는다. 이들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석유시장은 석유국과 소비국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석유 외에 석탄, 천연가스, 우라늄 등도 생각할 수 있지만 모두가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우리와는 인연이 없다.

따라서 석유나 석탄을 가릴 것 없이 어느 자원이든 우리는 가난한 구매자의 신세를 면하기 어렵다.

당면한 호루무즈 해협의 전운이 가라 앉는 경우에도 형편이 크게 좋아진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그저 에너지 자원에 관한 한 북받치 못한 국민임을 숙명으로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무자원과 과소비

우리의 에너지 수급 사정이 석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위험분산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걱정스러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왜 석유의존형으로 산업을 발전시켰느냐고 따져봐야 지금에 와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1960년대 중반의 연간 원유 도입액은 고작 천만달러선이었다. 이것이 1970년에 1억달러를 넘어섰고 1974년 11억달러, 1980년 56억 5천만달러, 1982년 60억 7천 5백만달러까지 올라갔다.

지난해에 57억 6천만달러로 약간 줄어든 것이 그동안 산유국의 일방적인 횡포가 물량과잉을 가져와 제물에 풀이 꺾였기 때문이다.

이 외에 석탄마저 1970년대 중반부터 대량으로 수입하여 지금까지 8억 5천만 달러 상당의 외화를 사용했다.

원자력발전 연료로 수입한 우라늄도 이미 4천만달러를 넘어섰다.

이처럼 각종 에너지원의 수입규모가 무섭게 팽창하면서 우리경제는 불가피하게 해외 에너지시장에 운명을 내 맡기는 꼴이 되고 말았다.

지난 1982년도의 에너지수입 의존도는 74.5%를 기록했고 올해는 76%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1986년에는 79%까지 높아지고 서기 2천년대에는 무려 91.5%에 달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같은 에너지 수입공포를 진정시킬 수 있는 한 가지 자위가 있다면 에너지 수요가 늘어난 것만큼 산업활동이 번창하여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하지 않았느냐는 대답이다.

에너지는 산업의 기본 동력임에 틀림없다. 공장이 돌아가고 도로와 항만이 건설되는 것이 모두 에너지 소비량과 항상 비례하게

된다.

그러나 수입 에너지를 소모함으로써 얻어내는 생산과 그 뒤에 남는 외채부담을 비교해서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에너지 소비가 생산을 유발하고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고 수출을 늘린다는 점에서는 원유도입액이 폭증한 것도 자랑스럽지만 경기가 회복되었다는 감각적인 판단에 파소비로 날려버리는 에너지는 한 알이 무섭다.

원유를 수입해서 기름을 뽑아 쓰는 것은 남는 것이 별로 없다. 시커먼 원유를 끓여서 흰색 기름을 걸러내는 과정에 부가가치가 생길 기회가 없다.

기름으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비싼 원유를 더욱 비싼 에너지로 가공해서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전기요금 가운데 80%가 기름값이고 보면 전기불 아래에 쉬고 있는 것이 달러를 불태우고 있는 격이다.

1988년 올림픽 감격을 앞당겨 통금을 풀고 가로등을 켜고 네온사인을 허용함으로써 기름값은 한없이 날아가고 있다.

스포츠 붐이 야간 경기장을 대낮같이 밝힌 것이나 텔레비광고 홍수와 마이카붐이 모두 기름장사 돈벌어 주는 바람이다.

여관과 호텔 사우나와 헬스클럽과 같은 세칭 향락산업이 소비경제의 첨단역할을 맡고 있는 것도 에너지 수급사정에서 보면 치명적인 손실이다.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윤택해지면서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흥청거리며 날려버리는 소모

성 에너지를 수입으로 감당하기에는 아직도 우리경제의 그릇이 적다는 생각이 너무나 간절하다.

절약의 경제학

에너지 정책에서 우리가 좌우할 수 있는 변수는 단 한 순간의 낭비마저 봉쇄하는 절약이 최상이다.

절약이 생산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절약이란 곧 제2의 생산활동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아무리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도 이를 동력으로 생산한 공산품을 보다 비싼값으로 수출할 수 있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 보아 세계시장 경기로 보나 에너지값이 오른만큼 상품 수출가를 올려 받기란 쉬운 일이 못된다.

이에 비해 낭비를 없애고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여 최선의 절약을 이룩하면 연간 3~4억달러의 기름값을 줄일 수 있다는 실증이 나왔다.

지난해는 각종 에너지 절약시책으로 2.9억달러의 소비를 줄였고 올해는 절약목표 4%에 3억 8천만달러를 덜 쓰겠다는 시책을 밀어가고 있다.

에너지를 왜 절약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우리주변에 절약요인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다는 사실로 답변할 수 있다.

우선 GNP에 대한 에너지 투입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높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통계에 따르면 GNP에 대한 에너지 투입비중은 일본 0.32, 서독 0.38, 미국 0.56에 우리나라는 0.66으로 비교된다.

제조업이 사용하는 에너지 원단위도 일본이 0.36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0.58로 나타났다. 또 에너지를 많이 쓰는 제조업의 열손실률이 평균 21.8%라는 통계에서 우리는 절약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알 수 있다.

업종별로는 화공업이 손실률 30.5%로 가장 문제이고 제지 22.1%, 섬유 21.4%, 금속 16.5% 등도 너무나 높은 손실률을 보이고 있다.

산업용 에너지의 낭비가 많은 것은 기술이나 시설개선으로 막아야 한다. 그리고 되도록 에너지 투입량이 적은 제품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하고 제조공정을 개선하여 열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

산업용 외에 민수용 소비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은 소비억제를 위한 의식개혁의 차원에서 해답을 얻어내야 한다.

국민 한 사람당 민수용 에너지 소비량은 0.38로 아직은 선진국에 대해서는 낮은 편이다. 캐나다는 2.13에 이르고 미국 1.89, 일본 0.55이다.

그러나 문화생활의 욕구에 따라 민수용 수요가 급격히 선진국형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 두려운 현상이다. 에너지 소비 구조가 경제성장을 앞질러 선진국형으로 옮겨간다면 성장혜택을 배분받을 길이 없어진다.

그동안 정부가 에너지 절약 시책의 하나로 발전용 연료를 석탄과 우라늄으로 점차 바꾸고 대체에너지를 꾸준히 개발함으로써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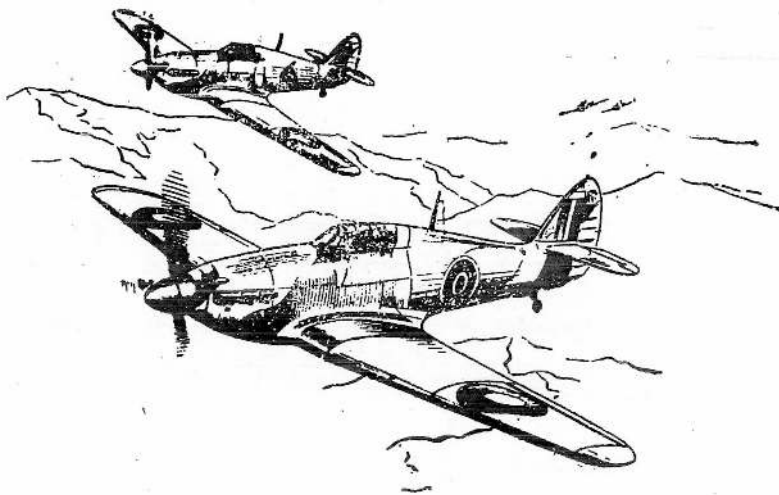
학교와 주택용 태양에너지 실용화와 풍력과 소수력발전의 개발도 조금씩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이 절대적인 석유의존도를 완전히 개선할 수는 없다.

총 에너지 중 석유류의 구성비가 1982년 58%에서 지난해는 56%로 낮추어졌고 올해는 이보다 2~3%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이정도로 구성비를 낮추고서도 매년 석유소비량의 절대규모는 계속 올라가서 내년에는 2억배럴을 돌파할 전망이다.

이같은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원천적인 절약기법의 실천과 민간 소비를 억제하는 의식의 행동화라고 믿어진다.



護国은 民族主体 精神

— 傳統的인 우리의 精神 —



徐 京 保
(文 博 · 世 界 禪 學 會 會 長)

우리 민족의 건국이념은 敬天, 弘益, 光明思想이었다.

다시 말하면 첫째로 하늘을 받들어 모시는 世界를 이루는 것이요, 둘째는 인간이 인간을 널리 사랑하고 서로를 이롭게 하면서 慈悲와 和睦의 세계를 이루는 것이요, 세째는 밝고 기쁨에 넘치는 光明思想의 세계를 이루는 것이 민족의 건국이념이었다.

바로 이것이 우리 民族이 理想하던 것이오 소망해왔던 세계다.

이러한 理想과 思想 속에서 民族精神이 나온다.

그것은 우리 民族史를 꿰뚫어 흘러 온 전통적인 흐름으로써 건국으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생생하게 살아있는 민족정신이다. 이는 곧 道義精神이며, 평화애호 정신이며, 창조정신이며, 봉사정신이다.

그리고 주체정신(독립정신·자주정신)이며, 저항정신(배격정신)이다.

물론 이러한 성격과 정신은 우리 민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역사적인 민족에서도 엿보이는 바이지만 특히 우리 민족에게는 고대부터 사회생활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들이었다.

이들에 대해 각기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

첫째는 平和愛護精神이다.

이것은 農耕民族 사회에서 공통되는 정신이다.

즉 농경민족들은 땅에 매어 정착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거의가 다 平和精神이 강하다.

우리 민족도 단군신화에 농경민족으로서
고유한 온건하고 柔和한 성격이 나타나 있
듯이 농경민족으로서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
이었다.

특히 上下倫理意識을 갖춘 민족이니 투쟁
이나 전쟁을 좋아할리 없다.

歴史를 보면 수많은 외침을 받으면서도
그 侵略에 대한 抗拒는 했지만 한 번도 먼
저 남의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없는데 이
는 바로 우리 민족이 얼마나 平和的인 민족
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 할 수
있다.

高麗 成宗 때 거란족이 북방을 침략했을
때 고려의 徐熙 將軍이 中軍使로 국서를 받
들고 단신 敵陣으로 들어가 적장 소손녕과
담판, 우리 民族은 결코 타국을 침략하지
않은 평화민족임을 알려서 그들을 퇴각시켰
던 사실만 보더라도 우리 民族은 武力으로
대항하지 않고 정정당당히 이치로써 적을
설득시키기까지 하는 평화의 민족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너무 평화를 사랑해서 현실을 즐
기는 가운데 낙천적이고 향락적인 면도 강
해서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서면 못
노나니……」 하는 민요조의 노래도 있다.

원기왕성한 젊은 시절에 부지런히 일하고
늙어서 놀아야 하는데 젊은 시절에 놀자는
그 낙천적인 모습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
의 다른면을 볼 수 있게 한다.

둘째로 道義精神이다.

敬天·弘益思想에서 道義精神이 나온다.

우리 민족은 縱으로 위아래 사람에 대한
윤리의식이 뛰어났고, 橫으로는 이웃과社
회에 대한 예절도 훌륭했다. 그래서 예로부
터 東夷族인 이 나라를 東方禮儀之國이라
고 불렀다.

漢書 지리지에 보면, 東夷族은 성품이 유
순하고 異於三方之外라 하여 西戎南蠻北狄
와는 다르다고 하였다.

또 중국의 가장 오랜 史書의 하나인 「산
해경」에도 우리나라는 의관을 쓰고, 칼을 차
고, 서로 양보하며, 싸우지 않는 민족이라
고 하였다.

또 中國서 가장 오래된 玉篇 설문에도 東
夷族은 동쪽에 있는 어진 민족이라고 했고,
孔子는 요순시대의 순임금은 東夷族이라고
했으며 孔子의 가르침은 요순임금의 가르침
을 체계화한 것이나 孟子에 적혀 있는 등
中國의 여러 서적에는 우리 민족이 도의민
족임을 증언하고 있다.

論語에 보면 孔子가 자기의 가르침을 중
원 천지에 퍼 보이려고 여러 나라를 순방
했으나 그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故鄉
에 돌아와서 다음과 같이 한탄하고 있다.

「道之不行 我知之 乘桴桴於海 欲居九夷」
즉 「내 도가 행해지지 않음을 알았다. 뗏
목을 타고 바다에 떠서 九夷(東夷와 같은
뜻) 땅에 살고 싶구나」

이 말을 들은 제자가 『왜 누추한 오랑캐
땅에 살고 싶다 하십니까?』

하고 반문하니, 孔子는 다시 『군자가 그곳
에 살고 있으니 어찌 누추함이 있겠느냐(君
子居之, 何陋之有)』 하고 대답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孔子가 우리 민족을 바로 君子の 民族으로 표현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외국 사람들까지도 우리 민족의 道義精神을 깊이 인정했던 것이다. 오늘날까지 우리나라를 일러 「해뜨는 아침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거니와 또 다른 표현의 「白衣民族」으로도 일컫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民族이 단적으로 도의민족임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세째는 創造精神이다.

우리 民族에게 광명한 세계를 이루기 위해 創造精神의 요구는 불가피했는지도 모른다.

創造性이란 모방과 함께 절실한 필요를 전제로 할 때 이루어진다.

그러나 모방을 잘하고 필요성을 느낀다 하더라도 創意力이 부족하면 거기에 위대한 創造는 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民族이 위대한 발명을 많이 이룩한 것이나 훌륭한 文化를 창조해 낸 것은 우리가 남의 모방도 잘하고 또 시대와 환경에 따라 필요를 절감했지만 우리 民族 자체의 독특한 創意性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創造精神이 밖으로 지향될 때는 開拓精神이 되는데 17세기의 日本의 飛鳥文化는 우리나라에서 건너 간 佛敎文化가 그 中心이었으며, 古代에 滿洲나 黃河流域 등을 우리 민족이 개척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우리 민족의 활발한 개척정신을 말해주고 있다.

創造精神이 내적으로 수렴될 때는 藝術精神으로 나타난다.

우리 民族의 傳統藝術은 독창적이고 훌륭한 평가를 받고 있다.

그것은 공예품, 寺刹, 石塔, 불상, 음악, 무용, 악기 등 수많은 예술품이 지금까지 전승되어 오면서 民族文化의 우수성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문헌상으로만 남아있는 皇龍寺의 구층탑, 丈六佛 또는 慶州의 석굴암은 가히 대표적인 걸작이다.

石窟庵은 印度, 서역 中國 등에도 많이 있지만 거의가 자연굴인데 비하여 慶州의 석굴암은 인조로 돌을 쌓아올려 돔(Dome)을 만들었으며, 또 아름답기가 세계적인 佛像을 조각하여 놓은 것은 天下一品으로 국내 외사람들이 극히 찬탄하고 있다.

高麗의 청자도 본시는 宋나라에서 배워온 것인데 당시 송나라 도공이 고려에 와서 고려청자는 송나라 것보다 훨씬 아름답다고 감탄한 적이 있다고 한다.

청자의 색깔이라든가 상감같은 것은 감히 어느 민족도 흉내내기 어려운 독특한 멋을 풍기고 있다.

또 고려 八萬大藏經 조판의 경위나 석가탑의 전설과 봉덕사의 에밀레종의 전설은 우리 민족이 예술품제작에 온갖 정성과 혼을 투입했던 독특한 예술정신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부처님의 공덕으로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에서 만들어진 팔만대장경,

작업 중에 여자를 만나면 精神이 흐트러져서 석가탑의 神聖性에 금이 갈까봐 면회 온 아내 아사녀를 돌려보내면서까지 지성으로 석가탑을 완성했던 石工 아사달의 信仰을 바탕으로 한 예술정신, 그리고 한 女子의 무남독녀인 딸아기를 희생물로 바치면서 제작한 에밀레鐘에 얹힌 전설 등은 예술에 대한 독특한 면을 보여준다 하겠다.

예술 뿐 아니라 科学방면에서도 우리 민족성은 그 독창성을 발휘했으니, 금속활자, 측우기, 한글 등이 대표적인 본보기라 할 수 있다.

측우기는 서양보다 2백년이나 앞서 있으며 한글은 우리 민족의 절실한 필요성에 의해 과학적으로 이루어진 결정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독창적인 창조정신은 우리 민족의 두뇌와 그 재능이 탁월하였고 거기에다 민족 정서와 지성이 합치된 것으로써 민족의 고유한 성격이 아닐 수 없다.

네째는 主体精神이다.

이는 「내가 主人이다」 하는 주인정신이고 주체의식이 확립된 독립정신이다.

우리 민족은 이같은 주체정신을 지녔기 때문에 수 많은 외침속에서도 의연히 민족의 생존권을 유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민족성은 지리적 조건과 관련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데 반도국가로서의 좁은 땅덩어리, 많은 山岳(70%) 등의 지형적 여건 속에서 삶의 터전을 스스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신이 절대적으로

로 요청되지 않으면 안되었는지도 모른다.

다섯째는 抵抗精神이다.

이러한 주체정신이 불의·부정에 대한 배격정신을 낳았으니 곧 또 하나의 民族的 특성을 이룬 저항정신이다.

주체정신이 강하다는 말은 곧 불의·부정에 대한 배격정신, 저항정신이 강하다는 말이 된다.

주체성이 침범당했을 때 용서치 않으며 강하게 저항이 되는 것이다.

즉 생활의 위협이나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 단연코 이를 배격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우리 민족은 외침을 당해 민족의 생존권의 위협과 평화가 파괴될 때마다 강력하게 저항해 나왔다.

옛날 고조선으로부터 삼국·고려·이씨조선·일제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은 불의의 침략자에 대하여 무저항으로 손든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원나라가 40년간 이 나라를 침범하고, 日本이 40여년간 이 강토를 짓밟고, 우리의 말과 글을 포함한 모든 민족문화를 말살하려 했지만 우리는 끝까지 저항해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지켜왔다.

이는 주체성과 함께 우리 민족정신이 외부로부터 침범당할 때에 그 침략자와 파괴자에 대해 절대로 굴복하지 않으려는 강렬한 저항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지방에서 30여개의 민족이 이합집산을 거듭하면서 모두 역사 속으로 그 자취

를 감추어 버렸지만 유독 우리민족만이 그 험난한 역사의 고삿길을 넘어 지금까지 찬란한 민족문화를 그대로 유지·보존시키면서 생존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민족의 주체성과 抵抗精神의 강도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주체성이 강하고 저항의식이 강하다는 말은 개성과 신념이 강하다는 뜻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개성과 신념이 강하다는 것은 때로는 어떤 점에서 비극적이고 여러 가지 고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씨가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우리 민족은 설사 그런 고난과 불행 속에서도 그것을 견디고 극복해 낼 수 있는 민족정신, 곧 주체정신과 저항정신, 그리고 창조정신이 남달리 강했던 것이다.

여섯째는 봉사정신이다.

독특한 민족정신의 또 하나는 봉사정신을 들 수 있다.

우리민족은 주체정신만 강했던 것이 아니고 그에 못지 않게 그와 반대적 의미를 지닌 봉사정신 곧 대상정신도 강했음을 알 수 있다.

봉사·곧 대상의식이란 주체(主人)를 따르고 섬기려는 의식을 말함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체는 불의한 주체가 아니라 절대자(부처), 그리고 국가와 웃어른, 부모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봉사정신이란 오늘날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충효사상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다.

나라(主体)에 봉사하면 忠이 되고 부모에 봉사하면 孝가 된다.

또 절대자·부처에 대하여 받들고 모시면 그것이 待奉이 된다.

그리고 남편에 봉사하면 烈이 되고 웃어른을 봉사하면 그것은 敬長이 된다.

이러한 봉사 곧 忠·孝·烈·敬長·敬天·시봉 등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為함」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원시시대에서부터 공동체 정신을 함양시켜 국가사회나 자기 일족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 이익이나 생명을 희생하는 봉사심을 대단한 미덕으로 삼아왔다.

곧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자신의 종족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는것을 大丈夫의 길로 받아들였으며 최선의 미덕으로 삼아왔었던 것이다.

신라시대의 화랑도정신이 그 대표적인 것으로 천금을 주어도 義가 아닌 것은 받지 않고 救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는 생명을 티끌과 같이 가벼이 버릴 수도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민족유산의 하나로 가장 걸작품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沈清伝이나 春香伝, 그리고 그외 수많은 전설과 설화는 이러한 봉사정신을 주제로 하여 민족의 일을 표현하고 있다.

일곱째는 風流精神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민족정신의 하나는 풍류의 정신이다.

우리 민족의 미의식과 미적 감각의 근저를 이루는 것은 멋이며, 풍류요, 율동이었다.

옛부터 풍류와 음악을 좋아했던 민족이라서 어디서나 민요의 멋있는 가락이 풍겨왔고 춤이나 율동이 생활 속에 깊숙이 내재해 왔다.

「멋」이란 우리나라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말로서 옛사람들은 멋대신 풍류라는 말을 썼다.

풍류의 기본은 吟風弄月로 되어 있다.

풍류를 안다는 옛 선비들의 글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귀절은 음풍농월이다.

「風月을 읊는다」는 말도 여기서 나왔다.

사전에서는 이를, 「맑은 바람과 맑은 달에 대하여 詩를 짓고 즐겁게 노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원래는 풍월이란 자연풍경의 대명사로 사용되었는데 俗氣를 벗어난다는 뜻으로도 사용되었다.

그러나 풍월을 논한다면 청렴결백을 비유하는 뜻으로도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白樂晴」은「中隱」에서 「벼슬을 하면서 은자가 되는 중은이 좋다. 너무 바쁘지도 않고 너무 한가하지도 않고 굶주리지도 않고 추위에 떨지도 않고, 술, 여자, 벗들이 멀어지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풍류란 중은의 생활방식이나 취미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萊根譚」에서 「洪自誠」은, 「은자의 풍류사란 모름지기 어느 것에도 구속되지 않고 마음이 내키는대로 즐기기 위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당초에는 이같은 중국의 은자들의 생활을 본받고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옛 선비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이상적인 탈속의 경지이기도 했다고 하겠으나 우리나라에서의 풍류는 자연에 묻혀 살며, 한송이 매화 꽃에서 삶의 맛을 찾는 의미로써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풍류정신에서 자연을 사랑하는 정신도 나왔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先人들은 특히「자연 그대로」를 사랑했으며, 자연을 바꾸거나 자연에 손을 댄다는 것을 조금도 반기지 않았다.

日本人이 자연을 사랑한 나머지 아예 자연을 집 안에까지 옮겨놓으려는 입장에서 정원을 가꾸었다면, 우리 선인들은 자연을 그대로 완상한다는 입장이었다.

이것이 한국인의 자연관이요, 미의식이었다.

즉 無作為와 무기교의 美意識이 자연 속에서 자연을 즐기는 풍류정신으로 이어지고 모든 문화 전반에 걸쳐 예술감각에 반영되었던 것이다.

즉 조금도 화려하지도 않은 색깔을. 흔히 잘 쓴다든지, 꾸밈을 등진 생활의식을 좋아한다든지 하는 것이 그것이다.

화랑도정신에 「遊娛山水無遠不至」 라는 생활 양식이 있는데, 이는 명산대첩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위대한 자연을 접하여 신비감과 외경심을 느끼고 심신을 단련하고 서로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운치를 살려가

는 등의 생활을 원한 것이었다.

자연을 즐기고 자연 속에 삶의 의미를 찾는 이러한 풍류정신이 조선조 중엽 이후에는 크게 달라져 이른바 풍류의 타락(한 때의 기녀와의 外遊)을 보게 되고 있지만 아물든 본래의 풍류정신을 우리 민족의 생활 속의 이상같은 것으로써 예술생활을 즐기는 가운데도 그 예술이 자연의 운치와 조화를 이루어서 둔탁하지 않고 언제나 가락과 울동을 이루어 그 선이 뚜렷하고 멋을 나타내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예술이 자연을 기초로 하여

중국의 빼기는 거만스런 것도 아니고 일본의 요사스런 듯한 세계도 아니고 겸손하고 무작위의 중간적 요소를 가진 「線」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도 풍류정신의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는 조화의 아름다움, 조화정신의 극치가 곧 자연인 것이며 그 자연을 제대로 완상하고 자연을 사랑할 수 있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예술은 독특한 고유의 예술로서 자리해 왔던 것이다.



서기 2000년의

韓國의 人口問題를 걱정하며

김 성 이

〈성심여대 교수〉

서기 2000년도 16년 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4,000만명을 넘은 지도 벌써 세 달이나 지났다. 이러한 속도로 간다면 2000년에 5,000만명에 도달할 날도 그리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이 폭발적인 인구증가는 우리들의 의식생활, 환경 등의 제반 분야에서 수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교통, 주택, 교육 및 각종 공해로 인한 문제 등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증가되는 인구문제를 경제 비활동 인구적 측면에서 빈곤의 문제와 경제활동, 인구적 측면에서의 취업의 문제 그리고 경제, 비경제 활동의 인구 문제를 떠나 우리 모든 국민이 생각해 볼 의식적인 면에서의 문제를 생각해 보기로 했다.

첫째로 빈곤 인구층의 증가이다. 빈곤 인구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가 일치하는 선인 전 국민의 15%로 볼 때 빈곤자는 75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할 수 있다.

이러한 빈곤자의 증가는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범죄의 증가와 사회적 혼란의 요소가 되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사회복지 정책이 요구된다. 정부는 1970년에 「사회개발 장기계획」을 공표하면서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및 사회복지부문에 예산을 증액시킬 계획을 세웠었다. 즉 1968년에 GNP의 0.7%였던 사회보장비를 1986년에 5.4%의 수준으로 올려 GNP의 6%인 국방비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야심적인 발표가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1%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1986년에 5.4% 도달이라는 것은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정부는 근래에 와서는 1986년까지는 복지기반을 다지고 1992년에 가서야 복지제도를 확립하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미루게 된 것은 인구증가와 국내의 경제적 여건 등이 어려워져 복지정책을 실천할 제반조건이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렇게 미루어 나간다면 과연 1992년에 복지제도가 확립되어 2000년에 예

상되는 750만명의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특히 현재 전체 인구의 3%대에 지나지 않는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가 2000년에 6%로 거의 두 배로 될 때 나타나는 300만명의 노령인구가 요구하는 각종 부양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염려가 앞선다.

종전까지는 노인의 부양문제는 가족 내에서 해결하였으나 핵가족의 증가로 노인들의 자녀의존도는 감소되게 되었다. 전형적인 핵가족의 형태인 2세대 가구는 1975년에서 1980년까지의 5년 기간 동안에 458만가구에서 19.1%가 증가한 546만가구로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2000년대 초에 이르면 핵가족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핵가족화의 경향은 결국 부모들의 자녀의존도를 약화시키게 될 것이므로 2000년대의 6%인 300만명의 노령인구에 대한 예비책이 필요하다. 더욱 2050년대의 16%에 이른 1,000만명의 노인인구층을 생각할 때 노인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 빠른 시일 내에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 여건하에서 빈곤자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이번 5차 5개년계획 내에서 나타나야 한다.

둘째로 취업요구 인구층의 증가이다.

취업을 요구하는 층은 경제활동 인구층에서 나타난다. 경제활동 인구층이란 15세에서 64세의 인구층을 일컫는 것으로 현재는 2천 5백만 정도이나 2000년에는 3천 5백만으로 천만명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

다. 이 증가된 경제인구는 실업자의 증가와 이직이나 전직 등의 사회적 불안을 가져 올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이 한정될 때 노동임금의 하락의 원인이 되어 고용인들이 노동의 가치를 소홀히 하는 기업가의 횡포를 가져 올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임을 억제하거나 고용인은 정년제를 무시하고 불분명한 해고를 할지도 모른다. 그 결과 노동력은 저질화되고 고등인력은 직장을 전전하고 인간성을 상실케 된다. 최근의 30대 활동층의 전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또 이들이 전직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봉급문제가 아니라 정년제가 제대로 실시되고, 인간다운 대접을 해주는 안정된 직장을 찾는 데 있음을 사회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특히 여성인구층에 있어서는 취업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할 수 있겠다. 1,000만명으로 증가된 경제활동 인구 중의 절반인 500만명이 여성인구라고 간단히 알 수 있다. 현 여건상 여성의 취업도 문제인데 16년 후에 닥쳐올 이 500만명의 고용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 큰 문제이다. 설상가상으로 2000년대에 들어서면 한 자녀 내지는 두 명 이하의 자녀만을 둔 후에 부인들이 단산하게 되는 경우 30세 이전에 모두가 단산을 하게 되고 최종아가 5세 이상이 되는 32~33세를 전후하여 대부분의 부인들이 남는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려는 경향이 짙어지게 될 것도 분명하다. 다시 말하면 2000년대에 접어들게 되면 생활주기

의 연장으로 “여분의 시간”을 부인들이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실제 한국사회가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심각한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즉 30세가 되기 이전에 모두 단산을 하게 되면 평균수명이 여자의 경우 2000년에 76세로 상승할 것이므로 사망시까지 무려 46년이란 장기간의 잉여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이들의 이러한 잉여시간을 노동시장에서 흡수하지 못할 때 각종 사회문제가 야기될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예를 들면 요즈음의 20세에서 24세의 여자 인구는 218만명인데 비해 그 결혼상대 연령층인 25세에서 29세의 남자인구는 184만명으로서 여자가 34만명이나 더 많다. 조금 폭을 넓혀서 20세에서 29세의 여자인구는 399만명인데 반해 그 결혼상대 연령층인 25세에서 34세에 이르는 남자인구는 326만명으로 여자인구가 73만명이나 더욱 많다. 이러한 젊은 연령층에서의 여성인구와 남성인구비의 불균형은 사회혼란의 중요한 소지가 된다. 즉 정부는 비공식적으로 추계한 전국의 유흥업소나 퇴폐업소에서 종사하는 여자의 수를 약 70만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70만명의 여성이 이런 업소에서 종사하게 된 데에는 우리사회의 젊은인구층의 구성비가 심각하게 작용했으리라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이 밖에 성과 범죄가 혼합된 제반 사회문제를 생각할 때 여성들의 에너지를 건전한 방향으로 발산하게끔 하는 취업보장 및 교육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2000년에 30대나 40

대로서 한창 사회참여의 의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의 20대의 여성들에 대해 사회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더욱 교육수준이 높지 못하여 취업에 있어서의 제한을 받는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20대 여성들에 대한 관민합동의 직업교육과 방송통신을 통한 대중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의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 뒷받침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같은 사회제도적 뒷받침은 일조일석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므로 노동력 흡수를 위한 노동직종의 개편과 여성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각종 사전 준비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인구 5천만이 우리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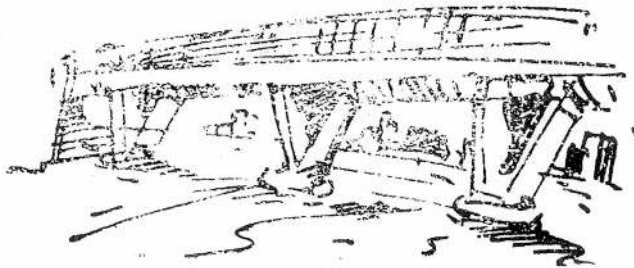
인간은 사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습성을 지니고 있다. 복잡한 사회 속에서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진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누적시켜 자신의 파멸을 가져올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려는 경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남들이 알아서 잘 하겠지」 하고 생각하며 사회 속에서 개인은 가능한한 쉽게 살려고 한다.

2000년대 증가된 인구로 인해 앞에서 제기한 복지문제와 고용의 문제 이외에 수많은 문제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대도시의 인구 집중화의 문제, 인구증가로 인한 교통 및 오염 등을 비롯한 각종 환경문제는 너무도 당연히 예상되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체제적인 면에서도 해결되어야

하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회체제를 움직이는 5천만 국민 하나하나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해결하겠다는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피임약도 남이 먹겠지, 단산수술도 남이 하겠지, 성문제도 사회가 해결하겠지, 공해문제도 정부가 책임지겠지 하는 식으로 개인 하나하나가 인구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타인이나 사회에 전

가한다면 우리 사회가 당면하는 문제들은 더욱 누적되어 사회의 파멸이 아닌 자기자신의 파멸을 가져 올 것임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사회, 우리국가의 문제를 우리가 참여해야 해결된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極東아시아에서의 蘇聯威脅

大領 朴 鍾 權

〈作 戰 司 令 部〉

- 目 次 -

I. 序 論

II. 本 論

1. 蘇聯의 對아시아 政策

가. 各國에 對한 視角

(1) 中 共

(2) 北 韓

(3) 日 本

(4) 東南아시아 諸國

(5) 西南아시아 諸國

(6) 페르시아만 隣接國

2. 蘇聯의 極東軍事力 增強과 威脅

가. 增強目的

나. 量的增加

다. 質的增加

라. 蘇聯의 威脅에 對한 認識

3. 美國의 對아시아 政策 方向

가. 美國의 対応策

(1) 太平洋地域의 美軍事力 增強

(2) 同盟國과의 相互防衛 努力

III. 結 論

I. 序 論

1970年代 이후 아시아地域에서의 蘇聯軍事力 增強은 美國軍事力이 繼續 減少내지 現狀維持를 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中國이나 日本에 相當한 威脅을 加重시키면서 進行되어 왔다. 이러한 增強現象은 蘇聯 外部

의 威脅이나 自体防禦때문이 아니라 國家目標을 達成하기 위한 軍事戰略手段으로 軍事力을 增強시켜 온 것이다. 특히 美·蘇간 軍事力增強이 露呈되고 있는 地域은 極東地域과 太平洋地域으로 1979年 9月 아프가니스

탄에 대한武力侵攻과 1983年 9月 1日 KAL 民航機 墜落事件을 目擊한 아시아諸國은 軍事力增強에 따른 蘇聯의 威脅을 直接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우방 여러 나라들은 美國이 아시아에 대한 軍事比重을 더욱 높여 보다 信賴性 있는 相互防禦努力을 기울이기를 원하고 있다.

美國은 越南戰이 終熄된 以後 아시아에서 軍事力 增強은 體制面에서 補完이 되었을지라도 現狀維持 戰力에 큰 變化가 없었으며, 그 結果 太平洋 國家로서의 役割이 서서히 減少되어 왔었다. 그러나 '80年代에 들어가면서 蘇聯의 急進的 軍事力 增強에 따라 美國은 自國의 防禦가 太平洋地域의 防禦에서부터 始作한다는 것을 再認識하기 始作했으며 同地域에 대한 勢力均衡에 努力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最近 한반도를 中心으로 強大國間 많은 外交活動이 展開되고 있다.

레이건 美大統領의 한반도 및 中共訪問과 조자양의 北傀訪問, 金日成 父子의 모스크바 訪問에는 한반도를 中心으로 한 政策方向과 國家實利追求, 주는 자와 얻는 자 간의 協商이 그 背後에 깔려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極東地域과 西南아시아에서의 蘇聯의 對아시아 政策을 中心으로 그 威脅을 分析해 본다.

II. 本 論

1. 蘇聯의 對아시아 政策

아시아에 대한 蘇聯政策은 아시아 地域에

서 美國과 中共의 影響力을 除去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國家政策을 達成하기 위한 努力은 다음과 같은 蘇聯의 世界戰術 目標에서도 엿볼 수 있는 것인 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現在 世界舞台에서 美國의 政治的, 軍事的 存在를 無力化시키고,

둘째, 蘇聯의 政治的 影響圈안에 全유럽을 包含시키며,

셋째, 아시아 및 第三世界에서 中共의 軍事, 政治, 理念的 影響力을 封鎖함에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言及한 바와 같은 戰術目標을 達成하기 위해 蘇聯은 지난 20年間 對아시아 外交政策으로 二律背反的인 兩面政策을 推進해 왔던 바 승인된 政府와 公式外交 및 經濟關係를 維持하면서 그 背後에서는 政府 顛覆 및 革命을 劃策하여 왔던 것이다.

二次世界大戰 以後 中國과 韓國에 共產政權을 세워 革命活動의 成果를 거둔後 蘇聯의 對아시아 基本政策을 “民族解放運動”이라는 허울좋은 슬로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1960年代 中盤에 이르러 中·蘇國境 紛爭과 베트남을 除外한 地域에서의 共產革命失敗로 蘇聯戰術은 變化를 겪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아시아 國家들과 合法的인 外交 및 經濟關係를 強化하고 그 地域에서의 軍事力 增強을 꾀하는 것이었다. 물론 그렇다고 蘇聯이 政權을 顛覆시키려는 背後工作을 拋棄한 것은 아니었으며, 아프가니스탄, 인도, 베트남에서 가장 成功을 거두었던 것이다. 武器販賣 및 軍事援助, 兵力駐屯은 蘇聯의

힘과 影響力을 表現하는 가장 重要한 道具이며 오직 北韓만이 中·蘇 紛爭을 利用하며 軍事·經濟的 도움을 獲得하는데 效果를 거두었다.

가. 各國에 對한 視角

(1) 中 共

아시아에서 蘇聯의 가장 主된 關心國家中의 하나가 中共이다. 現在 약 7,000마일에 이르는 國境을 따라 國境紛爭이 일어나고 있으며 國境地域의 軍事力 集中과 蘇聯의 對外政策으로 더욱 緊張이 高潮되고 있다. 最近들어 中·蘇 對話를 維持하기 위해 相互努力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關係改善에는 많은 問題點이 남아 있다. 그 중 가장 큰 問題點은 蘇聯이 아시아에서 影響力을 增大시켜 아프가니스탄, 베트남 등 中共의 周辺國들을 掌握한 後 中共의 影響力을 中化시키려 努力한다는 점이다.

(2) 北 韓

北韓은 東北 아시아에서 唯一한 蘇聯同盟國이었으나 現在는 韓半島에서의 中共 影響力을 妨害하기 爲한 程度의 關係만을 維持하고 있다. 그러므로 蘇聯 뿐만 아니라 中共까지도 韓半島에서의 勢力擴張을 爲한 鬭爭이나 現狀況이 바뀔 程度의 커다란 變化를 바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23일부터 4일간 金日成이 23年만에 소련을 訪問하여 그 동안의 中·蘇 等距離 外交路線을 그대로 維持하면서 蘇聯의 比重을 높이

려는 意圖를 表出시켰다. 蘇聯 또한 北傀에 대한 政治, 經濟, 軍事的 支援을 높여 戰略的 安保協力關係로 發展시켜 韓半島 影響力을 增大시키려 하고 있다.

(3) 日 本

日本은 軍事, 經濟적으로 蘇聯과 密切한 關係에 놓여 있다. 蘇聯은 日本의 北邦領土를 계속 占領하여 太平洋으로 進出할 수 있는 오호츠크海의 蘇聯 海軍駐屯을 確實시하면서 日本의 防衛予算 增加를 妨害하여 再武裝을 막고 蘇聯에 대항하는 美·日·中 同盟의 形成을 막기 위해 努力하는 한편 시베리아 天然資源 開發 등 極東地域 經濟開發에 日本의 積極的인 參與를 誘導하는 兩面政策의 視角을 가지고 있다.

(4) 東南아시아 諸國

東南아시아에 대한 蘇聯政策의 主眼點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와의 유대를 強化시키고 蘇聯의 駐屯을 正常化시키는데 있다. 특히 베트남과의 同盟을 通하여 中共의 남쪽 國境에 蘇聯의 第二橋頭堡를 設置하여 中共의 防禦計劃을 混亂시키려 하고 있다. 라오스,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아직도 社會主義 政權을 強化하는 程度에 그치고 있다.

(5) 西南아시아 諸國

西南아시아는 戰略적으로 페르시아만과 中共을 서쪽에서 攻擊할 수 있고 內陸國인 蘇聯에게 印度洋으로 直接 進出할 수 있는 基地를 提供할 수 있어서 오랫동안 蘇聯政

策의 焦点地域으로 되어 왔다. 특히 印度는 中東의 시리아나 南美的 쿠바가 차지하는 比重만큼이나 蘇聯의 國際的 利益에 重要한 國家이다. 더구나 印度는 非同盟國家들의 指導의 國家이며 中共과 자연스런 同盟關係를 맺고 있으므로 印度와의 關係維持를 爲해서는 蘇聯이 어떠한 行動도 不辭하리라고 判斷된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는 中共을 包圍하고 페르시아灣에서의 蘇聯 利益을 增大시키기 爲하여 政治的 安定과 軍事的 合併을 하기 爲하여 계속 努力할 것이다. 그들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確實한 政治的 統合 및 軍事的 統制가 東南아시아 및 西南아시아에서 그들의 影響力 擴張을 쉽게 할 것으로 믿고 있다. 파키스탄에 대한 長期的인 目的은 이 나라를 蘇聯의 衛星國으로 만드는 것이며 短期的으로는 아프가니스탄 抵抗軍에 對한 反蘇活動을 沮止시키는 것이다.

(6) 페르시아灣 隣接國

蘇聯은 이 地域을 그들의 第一勢力圈으로 만들어 西邦으로 通하는 기름 流通路를 統制함으로써 對美戰略 基盤을 構築하려는 戰略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蘇聯은 이 地域의 反亂集團을 支援하여 끊임없는 反亂을 促進시킴으로써 美國의 中東政策에 混亂을 惹起시키려 할 것이다. 이라크에 대해서는 政治勢力 增大를 꾀하고 軍事支援 增大를 통해 西邦 軍事支援을 減少시키려 할 것이다. 最近 蘇聯이 이라크에 MiG-23 및 MiG-25를 中心

으로 한 武器販賣를 試圖하고 있음은 具體的 한 例가 될 것이다.

한편 蘇聯은 背後에서 北傀, 시리아, 리비아를 통해 이란을 支援함으로써 反美體制를 永続化시켜 窮極的으로 蘇聯 괴뢰政權을 樹立하기 爲하여 이란과 이라크전에서 表面的인 中立을 가장할 것이며 사우디아라비아와는 關係를 改善하기 爲해 繼續 努力할 것이다.

2. 蘇聯의 極東軍事力 增強과 威脅

가. 增強 目的

蘇聯은 이미 앞에서도 言及했듯이 極東地域의 地上軍, 空軍 및 太平洋 艦隊에 많은 比重을 두고 持續的인 增強을 이루어온 結果 월남, 아프가니스탄을 包含한 아시아 地域에서 그들의 勢力을 현저히 擴張시켜 왔다. 더구나 같은 期間동안 美國의 東南아시아에서 役割이 減少되었으며, 美·中共關係는 台灣問題를 둘러싸고 한동안 疎遠한 關係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最近 레이건 大統領의 中共訪問으로 疎遠했던 兩國關係를 다시 改善하기에 이르렀다. 日本과는 貿易 逆調로 인한 惡循環으로 協助關係가 惡化되었다. 이런 動向을 利用하여 蘇聯은 向後 10년에 걸쳐 美國, 日本, 中共의 影響力을 逐出하고 自身の 勢力을 擴張하려 할 것이다. 蘇聯은 軍事力을 軍事, 政治的 目的을 이루는 基本 手段으로 看做하고 있으므로 軍事力을 持續的으로 增強하고 現代化하려

는 計劃下에 極東 軍事力を 增強시키고 있다. 이는 蘇聯이 아시아에서 政治, 軍事的 影響力를 增大시키고 蘇聯에 대한 中共의 先制攻擊을 防止하기 위한 抑制手段으로서도 重要하게 分析되어지는 것이다.

나. 量的 增加

지난 15年間 蘇聯은 對外 影響力 增大의 가장 重要한 方法으로 軍事力を 繼續 補強하여 왔다. 東 우랄지방의 蘇聯 地上軍은 中國 國境地方을 包含하여 15萬名에서 오늘날 50萬名에 가깝도록 增強하였다. 또한 師團의 數도 20個에서 50個로 늘어났다. 日本의 北海島嶼에는 地上軍 萬名以上の 師團級 兵力이 配置되어 있으며 파키스탄에는 800台 以上の 戰術航空機가 配置되어 있으며 아프가니스탄에는 10萬 5千名 以上の 地上軍 兵力이 배치되어 있어 이들 地域의 힘의 均衡을 變形시켰다.

다. 質的 增強

'80年代에 들어오면서부터 蘇聯은 軍事力의 量的 增強보다는 質的인 增強에 더욱 注力하여 美國과 西歐, 中共 等에 많은 負擔感을 주게 되었다. 그 內容을 살펴보면 戰時 極東作戰 現場에서 戰力を 統制키 위한 戰略 司令部를 設置했으며 危機事態 發生時 即刻 投入할 수 있도록 迅速한 措置兵力 및 核戰力を 提供하기 위해 持續的으로 印度洋 艦隊를 展開해 왔으며 美國 海上船泊을 攻擊하기 위한 새로운 能力을 위해 海軍 隸下部隊에 Back-fire를 配置했다. 또한 SS-

20미사일의 數도 지난 3年間 2倍以上 增加되었다. 각기 3個의 彈頭를 가진 100台 以上の 미사일을 우랄산맥 동쪽에 配置했으며 以外에 3個의 地下基地를 蘇聯 中央部에 갖고 있으며 여기엔 81個의 彈頭를 가진 21台의 미사일이 追加될 것으로 判斷된다. 지난 2年間 가장 現代化된 戰鬪艦과 攻擊潛水艦, 戰略核 潛水艦 等이 太平洋에 展開되었으며 戰術 戰鬪機는 現代化된 第三世代 航空機로 代替되었고 地上軍 역시 增強된 機動性和 火力 그리고 優秀한 通信裝備가 補給되어 相當한 質的 向上을 이룬 것으로 判斷된다.

라. 蘇聯의 威脅에 대한 認識

蘇聯의 持續的인 軍事力의 量的, 質的 增強으로 아시아를 비롯한 世界全域에서 軍事力 均衡 및 政治的 安定에 대한 많은 變化를 일으켰다.

첫째, 太平洋에서의 蘇聯 軍事力이 처음으로 美國領土 및 軍隊 輸送網에 대해 深刻하고 直接的인 威脅을 주게 되었는바 그 내용을 보면 알래스카 油類航路와 괌 및 알류우산열도를 包含한 海上補給路의 安定性 保障과 新銳機의 前方展開配置 및 中·蘇國境地帶 地上兵力들의 急進的 增強 配置로 美國은 더 이상 아시아 地域에서의 蘇聯威脅을 강건너 볼보듯이 無關心하게 생각할 수 없게 되었으며 美國의 意思와 相關없이 紛爭에 말려들 可能性이 漸增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둘째, 유럽諸國은 아시아의 美國友邦國들

과 美国이 蘇聯의 攻撃目標이 될 境遇에 대비하여 相互利害關係에 関한 協力을 더욱 增進하게 되었으며, 終局에 이르러서는 蘇聯에 屈伏할지도모를 危險性을 直視하게 되었고, 中共은 西로는 아프가니스탄, 南으로는 印度의 蘇海洋 勢力의 軍事基地化 및 베트남의 共產化, 東으로는 東海를 거친 남지나海峽의 封鎖 可能性으로부터 蘇聯 軍事力의 包圍壓迫을 認識케 된 것이다. 또한 日本은 北海島 北邦의 蘇聯空軍力 增強과 地上軍 配置로 더욱 美国과의 共同防衛体制과 軍事力 增強의 必要性을 認識하지 않을 수 없는 現實에 直面한 것이다.

3. 美国의 对아시아 政策 方向

地政學的으로는 美国은 太平洋 國家임에 틀림이 없다. 美国은 活力 있게 發展해 나가는 아시아 國家들과 自然스럽고 重要한 關係를 유지하면서 海上路 使用의 安全을 相互 保障하길 바라고 있다. 이러한 地政學的인 理由뿐만 아니라 政治協調와 相互經濟 依存 및 文化的 交流面에서도 아시아 國家들과의 交流를 重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美国과 大部分의 아시아 國家간의 關係에 基礎가 되는 傳統的인 友好 및 相互信賴는 雙貿易 協商 및 相互共同協力 能力을 円滿하게 만들 것이다. 이와 같은 美国의 对아시아 政策의 視覺에서 볼 때, 아시아 및 太平洋 國家가 접하는 戰略的 重要性은 유럽을 包含한 世界 어느地域보다 더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으며 美国의 对아시아 政策上 가장

重要한 關心事는 蘇聯의 軍事力 增強이다. 따라서 漸次 增加하는 多様な 選擇方法의 “流動的 攻撃能力”은 美国의 对 아시아 政策에 重大한 變化를 要求하고 있는 것이다. 現在 美国은 아시아 여러 同盟國들로부터 美国이 適時에 그들을 支援할 수 있는가에 대한 疑問을 많이 提示받고 있다. 즉, 그들은 美国이 蘇聯의 威脅에 보다 積極的으로 対処해 줄 것을 要求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要求의 具體性은 事前 位置할 兵力과 自動軍需 支援 등의 威脅에 対処하는 積極的인 支援을 뜻한다. 그러나 美国은 蘇聯이 增加된 軍事力으로 外交力量을 強化하려는 意圖를 저지할 수 있는 重要한 利點을 갖고 있다. 즉 美·蘇 양쪽에 聯關된 國家들이 美国과 蘇聯의 勢力擴張 方法에 있어서의 큰 差異를 漸次 認識하기 始作한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侵攻으로 알 수 있듯이 蘇聯은 그들의 友邦國들에게 意思決定할 어떤 權利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 美国의 対応策

強力하고 信賴性 있는 美国의 存在는 아시아에서 美国의 同盟國들에 대한 蘇聯의 威脅을 防止하기 위해 必須的인 것이다. 새로 構成된 美政府 委員會와 國民들은 美国의 防禦가 太平洋으로부터 始作한다는 것을 認識하기 始作했다. 그러나 勢力均衡보다도 더욱 深刻한 것은 蘇聯의 確固한 武力示威 意志이며 이는 美国과 美国의 同盟國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自由世界의 利益을 守護하려는 共同意志가 個別的 挑戰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다. 그러므로 勢力均衡을 爲한 美國의 軍事力 增強과 共同防衛体制強化 努力이 더욱 重要하게 부각되는 것이다.

(1) 太平洋地域의 美 軍事力 增強

美國은 '70年代 越南戰 以前 水準처럼 太平洋 艦隊를 減縮하려는 計劃을 中止 하고 太平洋司令部 指揮構造를 지난 3年間과 같이 維持할 것이다. 이는 準備力 있는 實質裝備의 現代化를 통해 發展시킬 것이다. 海軍力은 나미즈級 航母인 칼빈슨호와 페리級 誘導彈艦, 로스 엔젤리스級 潛水艦團의 계속적인 增強, 스프랑스級 哨戒艇, 트라이던트 미사일 搭載潛水艦의 追加配置 等を 통해 發展해 왔다. 航母의 F-4 戰鬪機들의 大部分은 F-14 戰鬪機로 代替하였다.

韓國의 旧型 F-4 戰鬪機는 F-16 戰鬪機로 代替하고 A-10 近接支援機를 展開하였으며 日本의 F-4 戰鬪機는 F-15 戰鬪機로 代替하였다. 또한 駐韓美地上軍에는 對戰車헬리콥터와 長距離砲 및 스팅거 미사일 등을 配置하였는 바 이제까지의 유럽이나 西南아시아에 대한 높은 比重은 漸次 太平洋과 東南아시아로 轉移되고 있다. 非常時의 対応能力은 美軍事力の 展開能力 및 實質的 裝備改善 등으로 꾸준한 向上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同盟國과의 相互防衛 努力

美國이 아무리 太平洋에 대한 比重을 높 이더라도 蘇聯의 勢力擴張을 혼자서는 막을 수 없다. 蘇聯의 勢力擴張은 美國 뿐만 아

니라 美國의 同盟國들의 利益에도 같은 威脅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美國이 美國同盟國들의 開發을 돕고 相互防衛를 爲해 努力하는 것은 重要하다. 아시아의 美國 同盟國들은 그들의 平和와 安全에 대한 蘇聯의 威脅을 充分히 理解하고 있으며 蘇聯의 勢力擴張 沮止에 많은 努力을 기울이고 있다. 韓國과 泰國는 北傀나 베트남에 대해 戰力의 數的인 面에서 劣勢에 處해 있지만 自体防衛力 向上을 爲해 GNP의 4~6%를 國防費로 策定 使用할 程度로 努力하고 있다. 이에 반해 日本의 防衛力 增強 努力은 지난 몇년을 돌이켜 볼 때 自國의 防衛力 必要性 認識에 비해 滿足스럽지 못한 水準에 머물러 있는 狀態이다. 필리핀은 美國에 海·空軍 基地를 提供함으로써 地域防衛에 重要한 貢獻을 하면서 合同 演習計劃을 發展시켜 海上路 防禦의 適當한 規則과 任務를 定해 遂行하고 있다. 뉴질랜드와 濠洲는 그들의 軍事力を 增強하여 南太平洋 東南아시아와 印度洋의 保安維持를 爲한 規則을 維持 活用하고 있으며 지난 5월 5일부터 始作 6月末까지 美國, 캐나다, 日本, 濠洲, 뉴질랜드 5個國이 參加한 太平洋 地域에서 進行되고 있는 合同 地上機動訓練(RIM·PAC訓練)은 蘇聯 威脅에 對處하는 共同防衛努力의 좋은 例라 할 것이다.

III. 結 論

아시아 大部分의 나라들은 現在 蘇聯軍事

力 增加에서 오는 威脅을 점차 느끼고 있다. 蘇聯 軍事力의 增強은 지난, 10 余年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특히 지난 4~5 年間이 注目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 諸国들이 느끼는 蘇聯의 威脅은 이와 같은 蘇聯의 軍事力 增強 때문만은 아니다. 이제 蘇聯은 軍事的인 面 뿐만 아니라 理念的, 外交的 要素들을 總動員 해오고 있다. 비록 經濟開發 모델로서의 蘇聯이 아시아의 開發 途上国들에게 많은 魅力을 주지는 못하지만 아시아에서 西邦의 利益을 弱화시킬 수 있는 일이라면 蘇聯은 어떤 手段이라도 모두 動員할 것이다. 즉 軍事力을 使用하여 武力的인 威脅을 直接 使用할 뿐만 아니라 不平分子, 테러리스트, 反亂運動을 支援하고 武器販賣를 하는 등 広範圍한 方法들을 使用할 것이다. 이렇게 蘇聯은 多様な 選択 方法을 繼續 增加시키고 있으며 그들의 이러한 “流動的 攻擊” 能力은 美国과 아시아 同盟国들의 安保에 根本的인 變化를 가져왔다. 強力하고 信賴性 있는 美国에 대한 確

信과 美軍의 아시아 駐屯은 아시아 美国 同盟国들을 蘇聯의 威脅에서 求해 내는데 가장 必須的인 것이다.

이를 爲하여 美国은 世界戰略에 있어서의 아시아 比重을 더욱 높이고 아시아駐屯 美軍能力을 더욱 向上시키며 아시아 여러 同盟国들과의 相互防衛 協力 範圍를 더욱 넓혀 鞏固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美国의 아시아에 대한 関心은 그 어느 때보다도 重要한 것이며, 특히 韓半島는 太平洋 周辺国家가 安保의 視角에서 볼 때 地政學的인 位置로 보아 友邦国들에 대한 重要戰略 및 戰術 要衝地로서 蘇聯의 威脅 속에 韓國을 고립시켜 둘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韓·美·日 集團安保体制의 發展은 美国의 立場에서 볼 때 必然的 優先 研究課題이며 우리는 美国의 對韓政策 視角이 前方基地 戰略(Forward Base Strategy) 概念에 立脚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認識하고 次元 높은 最大의 外交的 活動으로 對等한 立場에서 同盟体制로 發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신교육 1문 1답〉

문 : 공산주의는 어떠한 복합적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답 : 공산주의는 정권탈취를 위한 음모의 과학이며, 파괴의 기술로서 운동, 체제, 이론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시간과 장소 및 대상에 따라 각각 그 얼굴을 달리하면서 편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金日成 父子 偶像化 策動과 그 實態



중위 장 의 현

〈제3975부대〉

1. 序 言

今世紀의 우화로 지칭되고 있는 前代未聞의 붉은 왕조를 구축하고 있는 북괴의 김일성부자 偶像화작업은 世襲의 正統性을 조작코자 하는 目的에서 날이 갈수록 그 열도를 더해 가고 있다. 이제 世界의 비웃음을 한 몸에 받으면서도 끝내 終末을 향해 치닫고 있는 북괴의 偶像화 놀음을 해부해 봄으로써, 북괴의 허위에 찬 大衆操作實態를 알아본다.

2. 金日成父子 偶像化의 특징

김일성부자의 偶像화 과정을 보면 ①1950년대까지의 金日成 1人體制 구축과정을 거쳐 ②'60년대에 들어서서 金日成偶像化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③ 아울러 家系偶像化가 '70년대 초반까지 추진되었고 ④ '70년대 초반 金正日의 등장과 함께 個人指導思想이 造作되면서 '70년대 후반부터 金正日偶像化가 本格的으로 추진되었다. 이렇게 볼 때 金日成과 金正日의 偶像化는 權力世襲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능력이 없는 독재자가 지도력을 조작하기 위한 속성이라는 데서 共通點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金日成과 金正日偶像化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보면 個人偶像化라는 一般의 현상을 벗어나 家系까지 偶像化시키고 있는데, 이는 일찌기 스탈린이나 모택동의 경우

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특이한 점이며, 마치 봉건왕조사회에서 開國者의 집안이 미화되고 있었던 것과 흡사하다 할 것이다.

3. 金日成父子 偶像化實態

가. 金日成偶像化運動의 實態

(1) 살아있는 神, 金日成

오늘날 김일성은 북한에서 절대 과오를 범하지 않는 무오류의 「살아있는 神」으로써 군림하고 있다. 김일성은 자신을 神聖不可侵의 絶對者로 추앙토록 만듦으로써 북한 주민들을 그의 생각대로 맹종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김일성을 호칭하는 데도 「모든 승리와 행복의 조직자이며 위대한 아버지인 김일성 원수」「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민족의 태양」「20세기가 낳은 거룩하고 위대한 사상 이론가」등 온갖 미사어귀들이 동원되고 있다.

모든 회의의 시작과 끝에는 반드시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제창토록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심지어 「펜드로비움」이라는 野生花를 「김일성화」라고 하면서 「김일성화의 노래」까지 만들어 주민들에게 보급하고 있음은 북한 내에서 神格化한 金日成의 存在를 잘 설명해 주는 實例가 될 것이다.

(2) 民族史의 날조

해방 후 소련점령군의 등에 업혀온 34세의 애송이 金聖柱를 김일성장군으로 위장시

켜 전세의 애국자 또는 독립운동가로 분장 시킴으로써 혁명전동의 날조극이 시작된 이래 김일성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갖가지 史實들이 날조되기 시작하였다.

날조된 바에 의하면, 金日成은 7세때부터 군중을 이끌고 日本帝國主義를 反對하여 鬭爭했고, 20세부터는 실제로 무기를 들고 이른바 「항일빨치산」투쟁을 전개하여 15년간 10만여회의 전투를 통하여 한번도 패함이 없이 연전연승함으로써 8·15해방을 가져 온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金日成은 자신의 권위를 조작하기 위해 이른바 혁명전적지, 史蹟地, 혁명박물관 등을 도처에 설치하고 마치 金日成이 항일투쟁을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가건물을 짓고 또 나무껍질을 벗기고 그 위에 獨立萬歲라는 붓글씨를 쓰는 등 갖가지 위장물을 마련하여 청년, 학생들을 동원하여 巡禮시키는 등의 혁명사적지를 조작하였으며, 「抗日빨치산 회상기」라는 책을 만들어 의무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읽기를 강요하고 있다.

(3) 唯一思想 10대 원칙

북괴는 1950년대 말부터 이른바 「唯一思想」이라는 것을 내세워 안으로는 일반주민에게 신봉을 강요하며 밖으로는 「主体思想」이라 하여 널리 선전에 활용해 왔는데,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른바 「唯一思想 10大原則」이라는 것을 만들어 유일사상을 구체화시킴으로써 김일성의 개인 우상화와 金正日에 의한 권력세습화의 正当性을 강요하고

있다.

10大原則 제2조 2항을 보면 「한 순간을 살아도 오직 수령을 위하여 살고 수령을 위해서는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며 어떤 역경 속에서도 수령에 대한 충성의 한 마음을 변함없이 간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제3조 1항에는 「김일성 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확고한 입장과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는데 가 하면 같은 조 5항에는 「김일성의 권위와 위신을 훼손시키려는 자그마한 요소도 비상사건화하여 그와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했고 다음 6항에는 「김일성의 초상화·석고상·동상·초상회장·수령의 현지교시관·수령을 형성한 미술작품·당의 기본구호를 정중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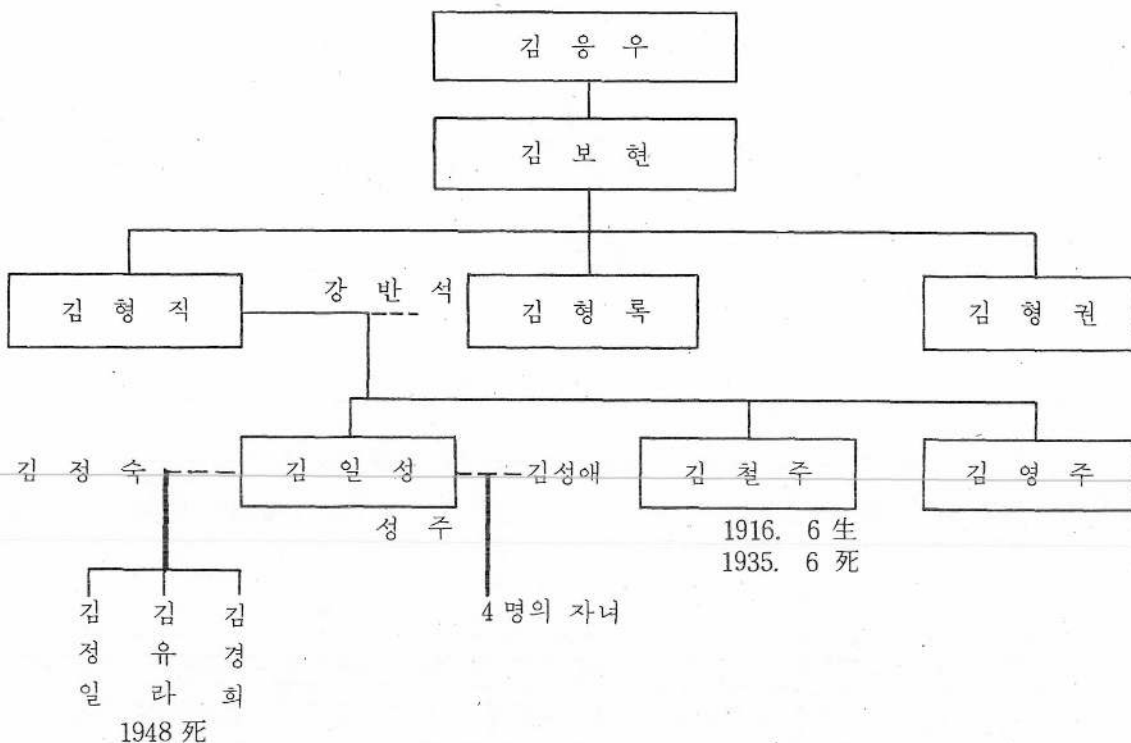
모시고 철저히 보위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같은 조 9항에는 「김일성의 교시와 당 정책에 대하여 시비 중상하거나 반대하는 반당적인 행동에 대하여는 주호도 용화 묵과하지 말고 건결히 투쟁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金日成 家系 偶像化

김일성은 자신이 絶對權力을 장악한 '60년대 후반부터 자신이 우상화를 본격화시킨 것은 물론 자신의 권위를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 시대착오적 혈통미화를 피하기 시작했다.

(1) 金日成 家系圖



(2) 혈통미화

봉건왕조사회에서 開國者의 집안이 미화되었던 것처럼 金日成의 家系는 누구를 막론하고 독립투사나 혁명가처럼 묘사되고 있다.

김일성의 증조부 김응우는 反美思想의 선각자로「서만호」사건의 主動人物로 부각시켜 놓고 있으며, 조부 김보현은 애국지사라고 하고 부 김형직은 3·1운동을 선도한 反日 愛國闘士이며 共產主義 運動의 선구자로 날조되고 있다.

또한 金日成은 자기 집안의 신성불가침성을 과시하기 위해「김형직사범대학」과「김형직 인민병원」등의 호칭을 사용하는가 하면「봉화사적지」「은율사적지」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김형직이 독립을 위해 지하운동을 했다고 선전을 하고 있다.

그리고 김일성은 자기 母인 강반석을「조선의 어머니」라고 호칭토록 하는 동시에 남포에「강반석 혁명학원」을 설치했다.

최근에 김정일의 生母인 김정숙의「陵」을 평양근교의 대성산에 만들었는가 하면 함경북도 회령군을 사적지로 설정하고 사적관·사적비 등을 건립 했으며, 양강도 신파군을「김정숙군」으로, 해산사범대학을「김정숙사범대학」으로, 양강도 예술단을「김정숙예술단」으로 각각 개칭했다.

다. 김정일의 우상화 놀음

세습체제 구축을 위한 金正日 우상화작업은 1975년 金正日의 生日인 2월 16일을 休

務日로 제정한 데에서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1979년까지 金正日을「党中央」「향도의 별」등의 은어로 호칭하면서 신비화·우상화해 더니, 1980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金正日 석고상을 보급하고 金正日의 史蹟館을 건립하는 등 金正日 偶像化作業을 한단계 높여 추진하면서 아울러 3대혁명소조운동을 통해 金正日의 실제적 정치기반 공고화 작업을 계속해 오다가 급기야 1980년 10월 6차 당대회를 계기로 金正日을 북한 내 第二人者로 공식화하였다.

김정일 우월성 조작에 광분하고 있는 북한의 金正日偶像化 놀음을 구체적으로 알아 본다.

(1) 金正日 신화조작

북한의 金正日 신화조작은 그의「出生神話」로 시작된다.

'82년 8월 8일 평양방송은「1940년대, 백두의 창공에는 장군별이 유난히 밝았는데 맨앞의 장군별이 전설적 영웅 김일성장군별이고 그 옆에 자애로운 빛을 뿌리는 여장군별이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여사의 별이고 그 가운데서 영롱한 빛을 반짝이는 별이 애기 장군별이었는데 오늘 주체의 향도성으로 높이 솟아올라 민족과 인류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 있다」고 金正日神話を 조작 선전하였다.

이에 앞서 '82. 2. 15일의 평양방송은 金正日이 마치 김일성의 빨치산 근거지였던「백두산 密營」에서 출생한 것처럼 주장하였다.

그러나 金正日이 1942년 2월에 소련 사마

르칸트에서 출생했다는 사실, 그의 아명이 소련식 「슈라」로 불리워졌다는 사실, 8·15 해방되던 1945년 가을에 그가 동생 「애라」와 함께 김정숙을 따라 소련으로부터 배를 타고 웅기항으로 입북했다는 사실은 이미 너무나 잘 알려진 일들이다.

(2) 金正日의 자애상 조작

최근 북괴는 김정일의 자애상을 조작하기 위해 김정일이 「동의보감」에 주해를 붙여 출판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느니 (82. 12. 12 노동신문), 김정일이 탁아소 아이들의 생일잔치까지 마련해 주었다느니 하고 선전할 뿐만 아니라 그의 생일을 기해서는 주민들에게 식량과 고기를 배급해 주었다면서 그의 자애상을 조작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성격이 난폭하고 그의 업적 행각이 김일성을 능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주민들 사이에 공공연한 사실로 인정되고 있다.

(3) 김정일의 권위조작상

북한에서는 金正日의 권위를 조작하기 위해 김정일을 정치, 경제, 군사, 문학, 예술 등 모든 분야에 정통한 세기적 위인이며 천재라고 선전한다.

북괴의 각종 학습교재에서는 김정일을 「나의 작은 별」 「창조의 천재」 「혁명사상의 완전한 화신」 「자애로운 스승」 「은혜로운 햇빛」 등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金正日이 어렸을 때 1+1은 2가 아니고 1이라고 하여

북에 의한 한반도의 무력통일을 시사했다고 서술함으로써 金正日의 天才性을 선전하기에 광분하고 있다.

또 하나 웃지못할 사실은 신생아의 작명 까지도 우상화의 마수가 뻗쳐 북한내에서 「정일」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은 개명을 강요당했으며, 김부자에 대한 충성을 다하자는 뜻에서 「충성」 「충실」이라는 이름이 신생아 작명에 권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튼 북괴는 김정일의 권위를 제멋대로 조작선전하면서 전체주민들에 대한 우상화 교육과 충성을 강요하고 있다.

4. 偶像崇拜教育의 實態

가. 職場 内の 科外 학습

북한 내의 공장·기업소 각 기관에서는 저마다 교양학습의 이름하에 金日成父子의 각종 傳記를 의무적으로 학습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근무시간과 작업교대시간에 따라 그 학습시간이 틀리기는 하지만, 월요일에는 이른바 「교시노트」 및 「말씀노트」를 지참하고 「김일성교시학습」과 「김정일말씀 학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화요일에는 이른바 「당정책 노트」를 지참하고 당정책 학습을 하는데 주로 김일성과 김정일의 勞作 또는 論文을 학습한다.

수요일에는 강연회노트를 지참하고 강연회에 전체가 참석해야 하는데, 그 내용은 김일성과 김정일 및 그 일가의 「혈통우월성」

「주체사상」 등이다.

목요일에는 기술학습을 각 분야별로 실시하며, 금요일에는 조직학습이 이루어진다.

토요일에는 한 주일동안 「김일성교시」 또는 「김정일의 말씀」대로 충실하게 일했는가 못했는가를 총화하는 생활총화가 실시된다.

이밖에 수시로 과외시간을 이용하여 「항일유격대 참가자들의 회상기」 학습 및 「3대 혁명 불은기 쟁취운동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주민들에게 학습을 실시한 후에는 반드시 학습총화를 실시한다.

즉, 분기말과 연말에 「김일성 교시」 「김정일 말씀」 「당정책」 등에 대한 사상학습결과를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가. 学校教育

(1) 金日成 個人崇拜教育

북괴는 이미 70년 4월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김일성교시 1백번 읽기운동」 「김일성혁명사상 1백번 읽기운동」 「김일성로작학습운동」 등을 전개해 왔으며, 이와함께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직원·학생들을 중심으로 「김일성로작 1만페이지 읽기운동」을 전개해 왔다.

북괴는 또 그같은 우상화학습운동을 전투라는 강렬한 느낌의 용어로 탈바꿈하여 소위 「충성의 3천1백문제 풀이 전투」라는 것을 '75년부터 시작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전투학습을 전개시키는 목적은 말할 것도 없이 김일성과 북괴당이 기대한 사

상교양을 생활화시키고 학생들의 사상성을 더욱 높여 보려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 학생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강요되고 있는 김일성 우상화교육은 학교 교육에서도 만찬가지다. 현재 북한의 각급 학교 교과목 가운데 김일성 우상화를 내용으로 하는 과목은 가장 중요시 되고 있다. 예컨대 북한의 「인민학교」 국어교과서 내용 가운데는 김일성 개인숭배 내용이 19%나 차지하는가 하면 반미사상 10%, 혁명정신 7%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음악교과서의 내용은 김일성 우상화와 반제투쟁의식 및 호전성 고취, 「사회주의체제 우월성」 선전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요컨대, 북한의 학교 교육은 학교 교육을 통해 김일성 개인숭배사상을 체질화시켜 놓으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할 것이다.

(2) 金正日 우상화교육

북한의 전후세대들에 대한 북괴의 우상화교육은 '8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김정일에게까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띠었다.

그리하여 북괴는 과거 북한 어린이들에게 「아버지 김일성 수령님만을 아는 버릇 키우기」를 강조했던 것과는 달리 유치원생들에게 김일성에 이은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 고취를 강조함으로써 김정일 숭배작업을 4~5세의 유아교육에 까지 실시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북괴의 그같은 유아교육과 함께 대학을 비롯 「고등중학교」 등에서는 요즘 매주 토요일

이른바 「사회정치활동의 날」로 정해놓고 이 날에는 김정일의 소위 「덕성실기」와 그가 발표했다는 논문들인 「주체사상에 대하여」 등을 학습토록 하고 있다.

그에따라 북한의 학생들은 김정일 논문의 원문학습을 기초로 한 문답식학습 등을 다양하게 펼쳐 金正日의 思想과 理論을 체득케 되고 그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게 된다.

5. 絶對不可侵의 카리스마의 偶像에 대한 北韓住民들의 회의와 갈등

「북한은 지상낙원이고 金日成은 全世界人民으로부터 추앙받는 영웅이며 북한주민은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이라는 교양과 선전의 테마를 계속적으로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북한사회를 외부와 철저히 遮斷·統制하고 두절시켜야 하며, 북한주민들을 철저히 愚民化시켜야만 한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통신과 교통이 급속도로 발전하여 뉴스의 범위가 극도로 확대된 시대에서 一個 國家를 철저히 폐쇄시키고 한 나라의 국민을 완전히 愚民化하기에는 거의 不可能해지고 말았다. 따라서 오늘의 북한주민들은 자신들의 絶對 不可侵의 카리스마적 偶像에 대한 심각한 회의와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1980년 10월 10일 제6차 勞動黨大會에서 金正日이 후계자로 공식 등장하면서부터 주민의 의식성향에 새로운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즉 金日成이라는 충성의 대상에서 金正日이라는 다른 個體로 충성의 대상을 轉移해 가는 과정을 북한에서는 합

리적으로 教養할 수 없었으며 前 偶像보다 더 큰 偶像이어야 하는 偶像轉移의 原則을 「金正日」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금의 여건이나 시점에서 보아 金日成을 再評價하여 金正日을 대신 추켜세울 수도 없는 난처한 입장에 처하고 말았다. 이러한 과도기적 현상에서 북한주민들은 金正日을 推仰하는 것에 대한 反撥은 물론이려니와 金日成이라는 자체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再評價하지 않을 수 없는 思想的 葛藤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과연 金日成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세계적으로 걸출한 英雄으로서 神과 같은 存在인가?」라는 지금까지 既存事實로 아무 의심없이 받아 들였던 「유일체제」 「주체사상」의 근본적인 문제에까지 도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최근의 북괴 핵심당원(이웅평·신중철)들의 연이은 귀순도 이러한 思想的 葛藤이 빚어낸 결과로서 북한 내부에서의 여러 가지 분류와 金正日派의 中共亡命說등과 함께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6. 結 語

金日成과 金正日의 偶像化는 代를 이은 권력세습에 목적이 있음은 두말할 것도 없으며, 그 우상화과정이 철저히 기만적이라는 데 특징이 있다.

김일성은 자신과 가계의 偶像化를 위해 歷史의 변조를 서슴치 않았으며 심지어 기록에 남아 있는 자신의 언동조차 그 내용

을 수정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金日成에 관한 기록은 철저하게 위조되고 변조된 것으로 보면 틀림이 없다고 할 것이다.

金正日 偶像化에 있어서는 아직도 초기 단계에 있기는 하지만 그의 지도자로서의 資質을 인위적으로 구축하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그에 대한 수 많은 사실조작이 횡행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어떻든 그들의 病的 思考方式은 父子偶像

化라는 전대미문의 해괴한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계속 폐쇄체제 속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눈가림을 시도하더라도 그러한 기도는 결코 오래갈 수 없을 것이다.

모래 위에 세워진 지상낙원은 무너지기 마련이다. 現代史속의 허무맹랑한 神話集團이요, 부자세습의 망상에 사로잡힌 독재의 集團이 지금과 같은 시대착오적 행진을 계속하는 한 그들의 종말은 명약관화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할 것이다.



北韓「思想犯集團收容所」의 全貌

1. 概 要

北韓 共產集團의 統治方法은 철저한 住民 統制와 住民들에 대한 人權彈壓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事實들은 많은 事例와 資料에 의해 證明되고 있다. 金日成이 執權 初期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온 肅清事實이나 '70年代에 이르러 權力世襲制 構築過程에서 표출된 各양의 人權蹂躪策動 뒤에 숨은 被害者들의 뒷이야기는 正確하게 確認된 예는 극히 드물었다. 이와 관련하여 最近 金日成集團의 思想犯들에게 加하는 잔인하고 非人道的인 人權蹂躪行爲의 一面인 “穩城思想犯 集團收容所”라는 것의 全貌가 드러났다. 最近 確認된 事實에 의하면 金日成 集團은 休戰以後부터 北韓의 산간벽지에 外部와 完全히 격리된 大單位 集團收容區域을 만들기 始作하여 '70年代 初盤에 이르러 이를 “特別獨裁 對象區域”이라고 命名하고 그 管理措置를 더욱 強化시켰는 바, 金日成·金正日 政策에 反對하고 黨에 대해 不忠하다고 생각하거나 金正日 後繼者擁立에 不滿을 품고 있는 者, 越南人士 家族, 北送僑胞 등 자유세계 生活體驗者로서 體制에 不滿을 가진 反對勢力 등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反黨·反革命分子,” “教派分子” 등의 政治思想犯들과 그 家族들을 強制 收容시켜 이들을 饑餓와 苦役, 疾病으로 고통당하게 하고, 끝내는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北韓에서 이른바 “特別獨裁 對象區域” 또는 “特殊統制地域” “思想

犯 集團收容所”라고 불리우는 이 “思想犯 集團收容所”는 함경북도 穩城郡, 會寧郡, 鏡城郡一帶, 함경남도 耀德郡, 定平郡一帶, 평안북도 龍川郡, 寧邊郡地域, 慈江道 熙川地域 등 황폐하고 험준한 山間僻地 여러 곳에 세워져 있으며 休戰以來 지금까지 收容된 思想犯의 數는 10여만명에 달하고 있고 최근 世襲制 構築과 관련하여 늘어난 所謂 “危害分子”들로 해서 그 收容者는 增加趨勢에 있다. 이곳 收容者들은 외곽에 여러 겹의 철책선과 電氣鉄條網, 地雷밭, 陷穽 등이 설치된 收容所地域에서 徹底한 監視를 받으며 토굴, 움막에 감자와 풀뿌리로 延命하고 医療 厚生施設도 전혀 없는 最惡의 生活環境 속에서 고된 勞動까지 強要당하는 가운데 絡身토록 人間以下の 참담한 生活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 確認經緯

金日成集團이 “思想犯 集團收容所”를 設置 運用하고 있다는 事實은 同 收容所가 位置한 咸北 穩城郡에서 “國家政治保衛部” 情報員으로 일하다가 '82. 1. 7 大韓民國에 歸順한 金容俊씨가 이 事實을 暴露함으로써 그 全貌가 처음으로 밝혀졌으며, 이러한 事實은 '72. 1. 1~'72. 4. 北韓淸津直轄市 “나남지역 초대소”에서 對日間諜 教育을 받고 日本에 派遣되었다가 '77. 3. 日本 警視庁에서 自首한 間諜 申榮萬씨(現在 韓國居住)의 “思想犯 收容所” 地域 訪問體驗에 관한 証言과 北韓 “國家政治保衛部”將校로 勤務

하다가 지난 '79. 7. 歸順한 康亨淳씨 등의 陳述에 의해 確証되었다.

金容俊씨는 陳述에서 그가 穩城地域의 集團收容所를 처음 알게 된 것은 '62年 5月 中旬 穩城郡 용남中學校 在學時였으며 당시 마을 친구인 전동훈(現在 穩城郡 居住)과 같이 밭줄을 만드는 피나무 껍질을 구하려고 郡內창평, 동포지역 산에 올라갔다가 “統制區域” “通行禁止”란 표시가 붙은 여러 겹의 철책선이 광범위한 지역에 設置된 것을 発見하고 歸家後 마을사람들에게 確認해 본 結果 그 곳이 바로 反革命分子를 收容하는 “集團收容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창평, 동포 “思想犯 收容所”는 '68년까지는 穩城一帶 住民들 사이에는 잘 알려진 秘密로 되었으며, 金容俊씨가 '78. 9月~11月에 穩城 農機械作業所 修理工으로 일할 當時 “새땅 찾기運動”에 動員되어 穩城郡內 全地域을 踏査하던 중 同 收容所 區域으로 連結된 道路網, 鐵道와 收容所의 面積, 收容者들의 生活實態 등을 正確하게 把握할 수 있었다.

北韓의 對日 工作員이었던 申榮萬씨의 証言에 따르면, 그가 對日 工作任務를 賦与받고 淸津市 나남구역 초대소에서 密封教育을 받고 있을 當時인 '72. 3月 密封教育의 일환으로 주을 溫泉場에서 4킬로미터 内外에 位置한 思想犯 收容所를 直接 訪問하고 다중의 철조망과 軍人들의 森嚴한 監視 속에 悽慘한 生活을 하는 收容所의 境况에 全을 느꼈다 한다. 同行했던 指導員의 說明에 따르면 “反黨, 反革命分子들을 收容하는

特殊区域을 보여주는 것은 “工作員이 배신하게 될 경우 그 家族들이 이곳으로 收容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어 離脱을 防止하기 위해서 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다.

申榮萬씨가 이러한 政治犯 收容所가 만 들어져 運營되고 있다는 事實은 그가 은을 高等農業學校 校長으로 在職할 當時 '65. 5月~'66. 4月 期間中 1年間 教材編纂委 社会科学分科委員으로 平壤 教員旅館에서 合宿 生活를 할 때 全國에서 모인 教員들로부터 처음 알게 되었으며, 그 當時는 平北 영변地域, 咸南 正平地域 등 두 地域에만 思想犯 收容所가 있는 것으로 알았으나 密封教育時 주을 一帶의 收容所區域을 直接 訪問 確認 하고부터는 同 收容所가 여러 地域에 산재해 있다는 事實을 알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北韓体制에 대한 心理的인 葛藤을 느꼈다고 申씨는 陳述하고 있다.

3. 特別独裁 対象区域의 概念

北韓이 同 思想犯 收容所를 特別独裁対象 区域으로 指稱하고 있는 事實은 그들이 發刊한 “朝鮮文化語辭典”(795페이지, '73年發行)에서 밝힌대로 소위 “主權을 잡은 勞動階級이 모든 反革命的 要素를 打倒의 對象으로 規定하고 이들에게 徹底한 프롤레타리아 独裁를 實施해야 共產主義社會를 建設할 수 있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하며 이러한 共產主義 建設의 危害要素인 独裁対象者들에 대한 彈壓逼迫은 北韓에서는 아주 당연하고 正當한 것이라고 하는 内容이 金日

成 政治大學 등 特殊教育期間 教科內容에 包含되어 있으며, 思想犯들의 收容所設置運營에 대한 當爲性 등을 教育하고 있다 한다. 따라서 “特別独裁対象”은 이른바 “反黨, 反革命分子”들을 人民의 敵으로 看做하고 金日成과 黨을 대신하여 北韓住民의 이름을 빌어서 除去하려는 政治思想犯을 총칭하며, 特別独裁対象이란 金日成体制에 대한 危害要素 중 北韓이 가장 憂慮하는 対象들을 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事實은 '79年 7月 韓國에 歸順한 강형순씨에 의하여 밝혀졌는데 그는 陳述을 통해 그가 “國家政治保衛部” 將校가 되기 전인 '76年 5月~'78年 10月 23日 期間中 金日成 政治大學 政治保衛部에서 教育을 받을 때 “政治保衛 指導員參考資料”와 講義를 통해 反黨, 反革命分子들에 대한 彈壓과 逼迫은 共產主義 建設에 基礎가 되는 것이며 이러한 危害分子들을 索出, 뿌리를 뽑아내는 것이 政治保衛指導員들의 할 일이라는 것이 強調되고 있었다 한다.

참고 문헌: “收容所圖象 兇惡思” (圖象如日金)

참고 문헌: “收容所圖象 兇惡思” (圖象如日金)

4. 設置經緯(目的)

“朝鮮人民共和國” 北韓 設置 休戰 直後부터 現在에 이르기까지 金日成 体制에 反對한 反黨, 反革命分子, 思想不純 階層을 集團收容하기 위해 設置한 이 수용소 區域이 設置된 經緯는 1958年 12月부터 2年間에 걸쳐 住民들의 思想成分을 檢討한 “中央黨 集中指導事業”시 “反革命分子”로 分類된 者들을 投獄, 処刑 또는 山間奧地로 強制追放한 이후, 1966年 4月부터 3年間에 經緯 資料를 “朝鮮人民共和國” 韓非 和言語

걸쳐 “住民登録事業”을 벌여 북한 전 주민을 3階層 51個 部類로 区分하고 “敵對階層”중에서도 더욱 “危害하다고 指目되는 者”들을 特定地域에 集團收容함으로써 本格化 되었다 한다. 특히 73년에 들어와 金正日 後 繼体制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실시된 “黨員證 및 公民證 更新事業”에서 “危害分子”와 反對勢力이 大幅的으로 増加됨에 따라 이들을 集團的으로 收容할 수 있는 施設을 擴張, 이를 “特別独裁対象区域”이라고 명명하고 그 管理措置를 더욱 強化시켰다 한다. 또한 이와 같은 “危害分子”들을 管理統制하는 데에 있어서 一般犯法者들과 같은 方法으로 公式的으로 다루기에는 矯化所의 收容能力에서나 效果面에서 곤란하며 矯化所가 늘어날 경우 對外的으로 人權彈壓의 印象을 받는 것을 回避할 수 있고 金日成, 金正日을 반대하는 政敵은 물론 그 家族들

까지도 社會에서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手法으로 가장 適當한 것이라는 判斷에서 同 收容所 地域이 設置되었다 한다.

5. 確認된 收容所區域 現況

지금까지 확인된 政治犯 收容所는 咸鏡北道의 온성군, 회령군, 경성군 일대지역, 함경남도 정평군, 요덕군 일대지역, 자강도 희천지역, 평안북도 용천군, 영변군 지역 등 8개소이며, 同收容所들에 收容된 總人員은 약 105,000餘名에 달한다고 한다. 金日成, 金正日의 証言에 따르면 그가 78年 金日成 政治大學 政治保衛學部 在學 당시 敎育을 받을 때 이러한 收容所地域이 1個道에 1處 ~ 2개씩 設置되어 運營되고 있는 것으로 敎育받았다고 陳述하고 있다.

가. 收容所 地域의 規模

道別	地域 (邑·里單位) 緯	面積	收容人員	備考
咸鏡北道	온성군 지역 (창평리, 동천리, 동포리)	250 km ²	27,000	○ 收容人員은 收容者들이 기거하는 움막(키불집) 및 集團住宅의 수자로 추산한 것임. ○ 收容地域 面積은 証言者들의 証言을 토대로 도상에서 추산한 것임.
	회령군 지역 (굴산리, 락생리)	218 km ²	20,000	
	경성군 지역 (죽을리)	237 km ²	15,000	
咸鏡南道	요덕군 지역 (전 요덕면)	67 km ²	13,000	
平安北道	정평군 지역	97 km ²	10,000	
	용천군 (양시북방 백마강 상류)	51 km ²	5,000	
	영변군	171 km ²	15,000	
慈江道	희천 지역	?	?	

※ 上記 收容地域들은 行政區域에서 除外되어 있으며 地圖에 表示되지 않는 獨立地域이라 하며 規模는 대체로 1個郡 單位 行政區域 規模의 $\frac{1}{2} \sim \frac{1}{3}$ 程度라 한다.

나. 收容人員 成分

북한은 全住民을 “核心階層,” “動搖階層,” “敵對階層” 등 3개 계층으로 区分하고 北韓 人口 總 1,800만 중 核心階層은 28% (506만), 動搖階層 45% (814만), 敵對階層은 27% (488만)로 보고 있으며 同 收容區域에 收容된 對象은 敵對階層 중에서도 北韓 權力 層이 가장 우려하는 危害分子라고 判斷되는 자들을 收容하고 있다.

그들은 肅清된 “宗派分子,” “反党·反革命 分子,” 惡質地主, 親日派, 宗教人들과 그 家族들로, 現在 確認된 바로는 '67年度 党中央秘書局 秘書로 있다가 肅清된 金道滿, '69年度에 “反唯一獨裁”란 罪名으로 肅清된 党 政治委員겸 副首相이었던 朴金喆, 副首相

金昌奉, 對南事業 總局長이었던 許鳳學 등 과 '67年 12月 “反党 宗派分子”란 罪名으로 肅清된 당시 党中央委 秘書局 秘書 金光俠, 그리고 최근 金正日 後繼體制 확립과정에 서 金父子體制를 非難하거나, 3大革命小組 의 눈에 거슬린 党政治委員會 候補委員 柳 章植('75年 10月 肅清), 党中央委 政治委員 李用茂 등('77年 9月 肅清), 高位官吏 및 勤勞者들과 그 家族도 收容되어 있음이 확 인 되었다.

한편 과거 日本에서 歸國한 僑胞 中에서도 계속 北韓體制를 비판하고 日本 등 自由世界를 憧憬 讚揚한 者들도 反党·反革命 分子로 몰려 상당수의 北送者들이 이곳에 收容되어 있다고 한다.

〈確認된 主要 收容人士〉

姓 名	肅清日字	肅 清 當 時 職 責	肅 清 理 由
金 道 滿	67. 3	党中央委 秘書局 秘書	党政策路線에 不滿
朴 金 喆	67. 4	党政治委員兼 副首相	“
金 光 俠	67. 12	党中央委 秘書局 秘書	反党 宗派分子
金 昌 奉	69. 1	副首相兼 民族保衛相	宗派分子, 唯一思想體制 紊亂
許 鳳 學	69. 1	對南事業總局長	“ “
柳 章 植	75. 10	党政治委 候補 및 秘書	金正日 後繼體制 反對
李 用 茂	77. 10	党中央委 政治委員	“

다. 收容所 運營實態(歸順者 証言)

(1) 思想犯 索出 逮捕 및 移送過程

同 思想犯收容所들은 “国家政治保衛部”가 모든 業務를 總括적으로 管掌하여 調整 統制하고 있으나 思想犯 索出, 後送 및 警備 任務는 “社会安全部” 산하 “人民경비대” 에서 担当하고 있다.

一般住民의 境遇 思想犯을 索出하는 過程은 邑 및 勞働地區担当 政治保衛部 指導員이 住民 5名당 1名の 幫助者(情報提報者)를 앞세워 빈틈없는 監視網을 펴고, 反党·反革命言動을 하는 사람을 索出 連行하여 軍 政治保衛部에 引繼하게 되며 軍 政治保衛部는 連行된 者의 反党·反革命 行為 等 犯罪事實을 확인한 후 裁判節次 없이도 政治保衛部の 批准(書類審査)을 받아 夜間(밤 12시~1시 사이)을 利用하여 그 家族들도 同伴시켜 收容所로 強制 移送하고 있다. 移送時는 주로 “풍차”(커버를 씌운 貨物自動車 形態)에 싣고 武装安全員의 監視下에 護送하며 입은 것 외에는 洗面道具조차도 가져갈 수 없고 이들의 財産(家財道具)은 모두 國家에서 몰수한다.

黨幹部 同 著名人士들에 대한 收容所 流配過程은 우선 肅清對象 人物에 대한 虛偽 事實을 事前 流布시켜 輿論을 誤導케 한 後 “国家政治保衛部”에서 直接 逮捕하여 家族와 함께 該當收容所로 移動하며, 最近에는 著名人士들에 대한 搜索逮捕 命令을 金正日이 直接 指揮한다는 事實이 住民들에게

까지 잘 알려져 있다.

(2) 思想犯들의 收容所 慘狀

思想犯으로 몰려 集團收容所에 일단 入所하게 되면 “公民証”을 押留당하고 入所한 날로부터 모든 基本的인 權利가 完全히 剝奪당하게 되며 家族, 親知의 面會가 禁止되는 것은 물론 書信連絡까지도 할 수 없다. 基本權 剝奪 實例로는 選舉權, 被選舉權은 물론 教育을 받을 權利가 剝奪되며 北韓에서 一般住民이 國家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생활기본조건인 糧穀, 衣類配給과 住宅配當, 의료보전 등 惠沢이 中斷되고 아무 것도 없는 無의 狀態에서 生存을 위한 모든 問題를 自身들이 解決하도록 버려져 있으며 결혼도 出産도 禁止되어 人間의 想像을 超越한 金수와 같은 生活를 하고 있다. 收容者들은 區域內에서 每日 12時間 以上の 無報酬 強制勞役に 動員되며 밤에는 義務적으로 2時間 이상씩 自己批判을 爲主로 한 思想改造를 위한 學習을 받아야 하며 作業 및 학습시간을 除外하고는 2名 이상 모여 다니지 못하게 철저히 統制하고 收容者로 위장한 情報員을 潛入시켜 收容者들의 行動 하나하나를 감시하고 作業을 게을리하거나 反党意思를 버리지 못하는 者, 脫出을 企圖하려는 者들은 索出하여 收容者들이 보는 앞에서 公開処刑을 당하는 生地獄과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

收容者들의 日課는 收容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새벽 4時에 기상하여 6時까지 아침식사 등 모든 個人的인 일을 마치고

고 6시부터 作業場에 들어가 作業量을 부여받고 7시부터 作業을 시작하여 午前作業은 午後 1시까지 進行되며 1時間 점심을 먹고 다시 午後作業에 들어가 밤 8시까지 午後作業을 마치고 저녁食事を 9시까지 마친後 11시까지 2時間에 걸쳐 自己批判을 爲主로 한 思想改造 學習 時間을 갖고 난 뒤 就寢하게 되는데 이러한 日課는 休日도 없이 年中 繼續되고 있다(이들이 하는 作業은 주로 石炭 等 광물채취와 伐木, 開墾 等 이라 한다).

이 곳 收容者들의 衣食住 生活는 自身들이 스스로 解決해야 되는데 收容所에 들어갈 때 食料, 食器, 被褥, 衣服, 生活 必需品 農事道具와 軍에서 使用하다가 廢品이 된 모포 등을 淸구로 提供하는 以外에는 當局의 支援이 전혀 없어 새로 收容所에 들어온 사람들은 먼저 들어와 있는 사람들로 부터 감자, 옥수수씨를 나누어받아 自給할 農事를 짓게 되는데 땅이 황폐하고 식량이 절대부족하여 봄철에는 풀잎과 나무껍질 등으로 延命, 解凍時에는 收容된 사람들 중 많은 사람(특히 老人層)들이 營養失調과 疾病으로 死亡한다고 한다. 이들이 住居하고 있는 住宅는 통나무를 엮어 만든 키클집(4坪程度)이나 토굴을 파서 살고 있으며 家族이 없는 사람들은 集團住宅(통나무로 만든)에 合宿토록 하고 겨울철 暖房은 各自가 作業時間을 除外한 틈을 利用해서 나무가지 등을 모아 解決하고 있으나 酷寒을 견딜만한 住居環境도 되어 있지 않고 또 衣服도 제대로 없기 때문에 그들이 겪는 苦痛은 悲

慘하기 짝이 없다. 婦順者 김용준씨의 陳述에 의하면 '79年度 本人이 遊擊隊에 服務하던 親旧로부터 알게 된 事實로 同 收容所 收容者, 中 收容後에도 계속 反黨·反革命 言動을 하는 者들을 索出해내어 遊擊訓練用으로 利用한다 하며 惡質分子로 몰린 사람들은 夜間을 利用, 은밀히 트럭에 싣고 깊은 山林地域으로 連行해서 풀이놓고 "너희들은 이제부터 自由다.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고 말하고 特殊部隊 要員들을 시켜 칼과 몽둥이 등으로 이들을 殺害하는 야만적인 행위를 恣行하고 있다 한다.

이곳에 收容된 收容者들은 이러한 地獄같은 곳에서 終身토록 生活해야 하면 國家慶祝日 등에 矯化所에 收容되어 있는 一般 犯罪者들에게 주어지는 赦免이나 減刑도 이들에게는 該當되지 않는다. 婦順者, 강형순씨의 陳述에 따르면 '79年度初에 不足한 勞動力을 充당키 위해 收容者들 중에서 힘이 좋은 젊은 靑壯年들로 建設隊를 만들어 事業成果가 좋으면 赦免해 준다는 條件으로 建設事業場에 投入한 일이 있었는데 죽도록 일을 시키고도 赦免惠沢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한다.

苦된 일이나 營養失調, 疾病 등으로 死亡한 收容者에 대해서는 屍身을 家族들에게 돌려주거나 葬事지내는 일이 없으며 收容所 管理要員들이 單獨으로 屍身을 치워버리지만 埋葬을 하는지 어떤 다른 處理를 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3) 警備狀態

同 收容所 區域은 3~4미터 높이의 4~

6重의 鐵柵線 울타리가 設置되어 있고 脫走가 容易한 곳에는 電氣鐵條網, 地雷밭, 그리고 陷穽 등을 設置해 놓았으며, 외곽을 따라 2킬로 間隔으로 7미터정도 높이의 監視網樓를 세워놓았고 望樓에는 기관총으로 무장한 監視兵들이 밤낮으로 경계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軍犬을 同伴한 巡察兵이 계속해서 외곽을 순찰하고 있는 등 물샐틈없는 경계를 하고 있어 어느 누구도 脫出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한다. 만약 脫走하려다 발각될 때는 경비대원들에 의해 무차별 射殺되며, 逮捕된 境遇에는 惡質分子로 몰려 遊擊隊 訓練場에서 特殊部隊要員

에 의해 訓練用으로 殺害되기 때문에 脫走 事件發生은 거의 없다 한다. '74年 여름에 온성지구 收容所에 新規 入所한 青年 數名이 監視員의 눈을 피해 脫走하려다가 現場에서 모두 射殺된 事件이 發生하여 住民들을 놀라게 한 일이 있었다고 하며 '76年 겨울에도 온성地區 收容所에서 強制勞動하던 신영환(당시 33세)이라는 青年과 과거 人民軍 제1기계화 歩兵師團 2班隊 小隊長으로 있던 中尉 出身 공창덕(당시 28세)이 收容所 脫出을 企圖했다가 發覺되어 公開 銃殺당한 事實이 있었다고 歸順者 김용준씨는 陳述하고 있다.



통일교향악단
문예집

종속이론의 형성배경과 문제점

1. 종속이론의 형성 배경

뉴레프트 운동이나 네오막시즘이 제1세계 내지는 제2세계의 동서체제에 대한 저항 내지는 반동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이들 모두가 유럽사상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유럽중심이라고 하는 유럽문화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였다.

'70년대에 들어 발전도상에 있는 제3세계 국가들은 국제정치에 있어서 새로운 차원을 형성하여 선진국에 대항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곧 하나의 이념으로 발전되었다. 이들의 주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종속이론인데 이것은 제3세계의 빈곤은 선진국의 착취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서는 모종의 혁명을 필요로 한다는 내용을 그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원래 경제성장과 발전을 설명하는 시각은 전후에는 주로 후진국 자체에 내재해 있는 구조적 모순이나 자원과 기술의 빈약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빈곤의 이유를 자국의 내부에서 보다 국제적 구조에서 찾으려는 경향으로 전환되었는데 그 원리는 서방 공업국 특히 발전국들이 투자, 원조, 무역 등을 통하여 제3세계에 경제적으로 침투하여 제3세계를 선진국(이들 선진자본주의 국가를 종속이론가들은 중심국가라 한다)에 종속시킴으로써 후진국(이들을 주변국가라 한다)의 독자적 발전과 경제적 자립을 방해하고 있다는 가설에 입각하고 있다.

종속이론은 라틴아메리카 제국에서 제기되었는데 이들 국가들은 스페인과 포르투갈, 프랑스 등 선진국에 의해 오랫동안 착취당해 왔으며 여기에서 벗어나자 곧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진출에 의해 자원 및 인력을 활용당해 왔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속이론가들은 라틴아메리카 출신학자가 많으며 이러한 이념경향이 아프리카, 아시아로 전파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당시 라틴 아메리카의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은 어떠했으며, 어떤 요인들이 종속이론의 태동을 가능하게 만들었는가를 살펴보자. 종속이론의 태동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① 전후 민족해방 운동이 승리하고 민족자본가 계층이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수입 대체적 공업화 정책을 추진한 점.

② 그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국제, 국내적으로 불공평한 소득분배를 낳게 되었고, 인구 대다수가 성장의 혜택을 받지 못함은 물론, 산업화가 일차적으로 외국 자본가에 의해 수행되는 등 사회경제적 모순이 누적됨에 따라 그 정책이 실패로 끝나게 된 점.

③ 이 와중에서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는 등 새로운 군국주의 경향이 대두되었고,

④ 쿠바혁명으로 상징되는 사회주의적 민족해방 운동이 고양된 점을 들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라틴 아메리카는 그 이전에 채택되었던 외부 지향적인 발전 전략에서 벗어나 의사 결정의 주체를 국내에서 담당하며 정치적 민주화의 촉진과 대외 의존의 감소라는 명분으로 수입 대체적

공업화 정책을 시도하였는데 이러한 정책은 결과적으로 지나친 대외무역에의 의존, 외국자본에 의한 공업화 과정의 지배, 문화적 제국주의의 가속적 침투, 국민대중의 궁핍화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말았다.

따라서 수입 대체적 공업화 정책의 실패로 민중의 불만이 고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1960년대 중반부터 프랭크(독일태생 미국인)으로 미국, 칠레, 멕시코 등에서 경제학, 사회학을 강의) 산토스 등의 학자들의 주도로 기존 발전, 전략을 비판하고 보완을 하였는데 그 과정속에서 마르크스주의적 편향성이 강한 종속 이론은 그 기본틀을 갖추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쿠바혁명으로 대변되는 민족해방 운동은 종속이론을 생성시킨 중요한 배경 중의 하나이다. 제3세계에 대해 제3의 발전의 길을 제시해 준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여겨졌던 쿠바혁명은 부르조아적 사회과학을 비판하는 종속이론의 형성을 고무하고 자극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어떤 논자는 「카스트로 없이는 프랭크는 불가능하다」고 까지 비유할 정도로 종속이론과 쿠바혁명의 함수관계를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이러한 논리는 쿠바혁명이 가져 온 쿠바의 경제적 빈곤상이 세계적으로 공인됨으로써 그 빛을 잃고 있음). 따라서 종속이론가들이 외국자본이나 부르조아적 경제발전애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요컨대 종속이론은 어떤 학문적 사조로서 자연 발생된 것이라기 보다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전개된 반제 민족해방 운동의

실천 과정에서 생성된 하나의 민족주의 이론이므로 이를 제3세계 제국에 공통된 이론으로 적용하려는 시도는 각 나라마다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매우 불합리한 발상으로서 중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신생공업국들의 발전의지와 능력을 무시한 이론적 횡포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2. 종속의 개념

1960년대 중반에 등장한 종속학파에 있어서의 종속은 경제를 비롯한 정치, 사회의 제반적인 특성을 묘사하기 위한 것으로 인용되고 있으며, 동시에 저발전에 인과관계적으로 연계되어 있거나 장래 저발전 세계의 발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어떤 과정들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종속학과 내에서도 이 용어가 사용자의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저발전의 원인이 된 특별한 역사적 과정을 중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빈곤한 국가들의 장래발전을 좌우하는 현재 다양한 요소들의 상관적 작용을 강조하는 등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산토스는 그의 고전적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 「종속의 구조」에서 종속이란 “한 나라의 경제가 다른 경제의 발전이나 팽창에 의해 제약되는 하나의 상황을 의미한다”고 하였으며, 이와 유사하게 푸르타도는 “기술 진보를 통제하는 조비 패턴을 강요할 수 있는 어떤 국가의 능력은 다른 국가의 생산기구를 자기나라 이익에 합치되도록 구조화하

는데 결정적 요소가 되고, 따라서 후자의 국가들은 종속적으로 된다”고 정의하였다. 한편 보다 간결한 정의는 카르도스와 팔레토가 내렸는데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자본축적과 확대가 그 체제 내부에서 본질적인 동태적 구성요소를 찾을 수 없을 때 그 체제는 종속적”이라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몇가지 인용문에서 살펴볼 때, 종속 이론가들이 지칭하는 종속의 상황이란 주변국가내의 경제 과정이 그 국가 외부의 과정들에 의해 제약되는 관계를 말한다. 바꿔 말하면, 종속이란 외부의 투입(자본이나 기술)이 없으면 산출을 확대시킬 자체 능력이 결핍된 상태, 즉 외부적 보완에 의존하는 구조적 상황을 의미한다. 이러한 대외적 측면을 강조한 종속의 개념 규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어떤 종속 이론가는 종속의 대내적 측면(자체요인)을 강조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종속의 대내외적 측면(국가 외부의 요인 및 내적 요인)의 결합을 주장하기도 한다.

종속이론을 대하는데 있어서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종속과 발전 간의 관계를 어떤 학자는 성장이 종속에 의해 저해받고 있다고 하고, 일부는 중심국의 팽창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성장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이보다 더 나아가 종속과 성장은 비례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등 일치된 의견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부 국가의 특수성을 설명한 이론을 모든 나라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명확한 증거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계층에서는 이 이론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설명하려함은 국제 전반에 걸친 현상을 파악할 능력을 결여한 소치라고 판단되며,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국가경제의 진정한 편은 운페시킨 채 어두운 면만을 고의적으로 확대유폭하여 사회교란을 목적으로 하는 선전선동의 저의가 깊게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할 수 있는 것이다.

3. 종속이론의 주요 논점

종속이론은 크게 나누어 네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하나의 학설로 형성되어 왔다.

제 1단계는 UN의 “라틴아메리카 경제위원회”의 책임자였던 라울프레비쉬가 1949년에 국제연합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라틴제국의 경제발전이 부진한 이유는 중심국과 주변국 사이의 불평등 교환관계에 있다고 주장하고 그 시정책으로 수입대체 산업의 강화를 건의한 시기이다. 프레비쉬의 건의에 따라 라틴제국은 수입대체 산업을 주축으로 한 공업화 정책을 추구했지만 결과는 저발전의 가속화였다. 주요 원인은 다국적 기업의 확산과 외채의 누증때문이었다. 이에 60년대 중반부터 프랭크와 도스산투스 등의 일군의 학자들은 남미경제위원회의 경제발전 정책을 비난하고 저발전의 원인은 외세(특히 자본과 기술)침투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계기로 종속이론은 구체적 내용을 갖추게 되었는데, 이를 2단계로 본다. 2단계에 나타난 종속이론가들은 대부

분이 강경론자이며 한국에 유입된 종속이론은 이 때의 학설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서 형성된 강경파 종속이론은 1970년대 초 오스발도순쟁과 푸르타도 등을 중심으로 한 온건론자에 의해 비판과 수정을 받았으며(3 단계), 오늘날에는 실증적인 검증에 영점을 두고 있으나(4 단계), 한국, 대만 등 신생공업국들은 그들의 예언이나 집단에서 크게 벗어날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한정된 부분적인 검증으로 말미암아 보편성있는 이론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함이 드러나고 있다.

4. 종속이론의 문제점

가. 접근방법론상의 문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종속이론의 주요 문제점은 첫째, 국가를 국제 경제질서의 종속변수로 간주하는 점이다. 지지하는 바와 같이 종속이론은 국제 체제적인 시각에서 제 3세계의 발전과 저발전 현상을 분석한다. 이와 같은 접근방법에 있어 분석의 기본단위는 국제체제 또는 질서이며, 제 3세계 국가의 발전을 국제질서상의 체제에 따라 결정론적으로 주어질 뿐, 제 3세계 국가나 정부는 자율성과 주체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점은 분명히 방법론적인 하자에서 오는 논리적인 비약이요, 독단이다. 현실적으로 제 3세계 국가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하에 따라 국제 경제질서상에서 차지하고

있는 자신의 위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또 변화시키고 있다. 둘째, 종속이론은 제3세계의 저발전현상을 분석하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전체론적인 접근법을 원용하고 있다. 전체론의 접근은 가능한 많은 개별적인 상황을 검증을 통하여 일반화하기 보다는 몇 개의 상황을 기술하여 선불리 전체적인 공통성을 유도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설득력있는 일반화된 이론의 정립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종속이론은 기술차원에 머물러 있는 가설적 이론에 불과한 것이다.

나. 가설상의 문제

첫째, 이론구성의 전제인 기본가정이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것이다. 종속이론은 국제자본주의 경제질서를 중심-주변, 또는 중심-준주변-주변으로 총화시키고 이 총화체제의 기본 속성을 불평등 교환 또는 수탈체제로 파악한다. 따라서 자본의 흐름은 주변에서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마련이며 국제질서의 구조적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주변권은 저발전의 악순환을 탈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제3세계의 빈곤은 과거 제국주의의 수탈정책과 전후 국제 경제질서의 모순때문이지 제3세계 자신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가정은 너무 단순하고 독단적이다. 전후 일본과 서독이 차지했던 국제 경제 질서상의 위치는 오늘의 제3세계 못지않게 미약한 것이었고 패전의 참상은 제

국주의의 식민통치가 제3세계에 끼친 수탈 정책 이상으로 가혹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역경을 헤치고 빈곤에서 재기, 세계의 중심국으로 부상한 것이다. 따라서 국제정세의 구조 모순만이 빈곤의 원인이라는 가정은 실증성이 희박하다. 같은 논리에서 제3세계의 사회경제적 요인이나 문화적 또는 정책적 요인도 마땅히 중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종속이론은 외자와 기술도입을 발전의 필수조건으로 본 확산이론의 논지를 비판하고 외자와 기술의 도입을 오히려 저발전의 원인으로 상정한다. 그러나 외자 중에서는 장기 저리 차관처럼 경제기반의 구축에 기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배척하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하며 기술 또한 일본의 경제발전이 예증하듯이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순기능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외자와 기술의 도입을 부정하는 종속이론의 입장은 보편성이 희박하다. 비교우위론을 배격하는 종속이론의 입장 또한 같은 이유에서 보편성이 희박하다. 비교우위론이란 특정산업이나 상품의 전문화와 고급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무역의 우위를 확보한 발전 전략이다. 비교우위의 확보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는 자본, 기술, 경영관리 방법이 중시되며 동시에 외자와 유치와 기술의 도입은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된다. 어떤 기술을 도입해서 어떻게 활용하며, 어떤 상품이나 산업을 육성하여 원활한 국제교역을 하느냐에 따라 비교우위의 확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때문에 비

교 우위론 자체를 부정하는 자세는 설득력이 부족한 것이다.

종속이론은 제 3 세계의 정부를 자국의 지배계급과 외세의 이익에 봉사하는 종속구조의 도구로, 통치 엘리트는 이들의 하수인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가관과 엘리트관은 대중선동을 위한 흑백논리에 불과하며, 사실 제 3 세계의 대부분 정부와 통치 엘리트는 민족주의적인 색채가 강하며 외세와 관련을 맺는 것은 자국의 이익추구를 위해 약소국이 감내하고 그들과 경쟁하기 위한 국제협력주의의 한 전략이라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다. 종속 개념상의 문제

종속이론은 제 1 세계와 제 3 세계의 관계를 지배와 착취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복잡한 국제경제의 유통과정과 국가간의 다원적 교호관계의 메카니즘을 종속이라는 하나의 단일한 개념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조작적이고 단순 논리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또 종속성이란 발전국이든 발전도상국이든 모든 나라에 존재하는 것이지 저발전국에만 종속개념이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독단적이다. 선진국도 석유 등과 같은 특정부문이나 영역에 관해서는 후진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국제적 현실이다. 또한 종속이론의 오류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편향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작업했다는 점이다.

즉 종속이론가들은 현존하는 모든 지배-

종속관계의 사례, 예컨대 폴란드나 체코슬로바키아와 같은 동유럽 공산국가에 대한 소련의 지배는 포함시키지 않고, 단지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와 저발전된 자본주의 국가간의 관계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표본 선택의 편향성 때문에 종속이론가들은 모든 종류의 종속관계를 다양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 힘의 단순한 불균형이 미국-라틴아메리카 및 소련-동유럽 간의 지배, 종속 구조 속에서 모두 발견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속이 단지 자본주의 국가에서만 빚어지는 전유물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즉 소련과 동구 유럽 및 제공산주의 국가 간의 지배 종속관계는 자본주의 국가간의 관계보다 오히려 더 종속적이라 할 수 있는데도 종속이론은 종속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발생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라. 발전 전략상의 문제

종속이론의 강경론자들은 사회주의 폭력혁명이 외국 자본가와 국내매관 세력 간의 연합을 파괴시키고 발전을 저해하는 국내의 봉건적 요소들을 제거할 것으로 생각하며, 자급체제를 통한 자력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속이론가들의(특히 강경론자) 이러한 발전전략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수단적 비도덕성이다. 폭력혁명을 통한 발전의 추구는 폭력을 사용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회는 전체주의로 변할 가능

성이 높고 폭력의 아들은 단지 폭력으로 폭력의 연쇄반응 현상을 조래함을 우리는 실증적으로 보아왔으며, 이는 오히려 국가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평화와 정의와 평등의 실현은 더욱 암담해질 뿐이다.

둘째, 정책적 실패가능성이다. 즉 제3세계에 있어 사회주의 발전모델의 채택은 실패의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제3세계가 국제 자본주의 경제질서와의 관계를 끊고 자력갱생의 정책을 채택한다는 것은 오히려 자국의 국가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강대국에의 종속을 야기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 점은 최근 중공이 모택동의 자력갱생론을 지양하고 4대 현대화 노선을 추구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했다고 자부했던 쿠바가 소련에 종속되는 운명을 자초하게 되었다는 사실, 또 소련의 집단농장의 생산성 저하 등이 실감있게 반증해 주고 있다.

셋째, 논리적 허위성과 모순성이다. 종속이론가들은 평등과 정의를 구현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의 채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들의 주장과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배계층과 당의 관료제화에 의한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으며 민주화보다는 독재화의 경향이 강하고 말로는 인간해방을 강조하지만 결과는 인간의 예속과 고통의 가중을 노출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을 비롯한 중, 소 등의 공산주의 국가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네째로 종속이론가들은 다국적 기업 등

민간 해외 투자가 착취적이고 위태롭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나치게 전체적이고 단일한 기준에서 분석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채취산업에 대한 투자는 착취적 성격이 있으며 경제성장을 왜곡시키기도 하나, 제조업, 용역산업 및 하위 체제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해롭다고는 단정할 수가 없다. 자본주의 체제의 속성이 이윤추구에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조화와 협력의 요소도 있으며, 관계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거래도 있고 무엇보다도 투자자의 효과를 선별할 수 있는 자국의 능력이 문제라는 것은 확실하다. 다시 말하면, 종속이론가들은 국제관계의 힘(선진국의 역할)은 과대평가하는 반면, 저발전국 자신의 영향력이나 책임은 과소평가함으로써 자신들의 민족사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지키지 못한 과오를 범하고 있다. 종속이론가들이 즐겨 인용하고 있는 일본의 근대화는 국제 경제체제에 편입되어 착취를 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일본 국내의 힘과 발전의지의 결과였다.

여기서 종속이론이 태동하게 된 쿠바가 혁명 후 어떻게 변하였는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카스트로 혁명 정권수립 후 25년 동안 쿠바 경제는 불과 몇 해를 제외하고는 실질 경제성장을 거의 이룩하지 못하였다. 혁명 후 쿠바는 그 기본 노선에 따라 국제 자본주의 체제와 급격히 관계를 단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교역을 자초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도 이룩하지 못한 것이다.

에컨대 설탕 산업의 경우, 1970년대 후반의 몇 해 동안 국제시장에서 설탕가격이 급등하였는데 국제 경제체제로부터 고립되어 있던 쿠바는 설탕가격의 상승에 따른 이익을 취할 수 없었다.

쿠바에 있어서 경제성장의 동인인 설탕산업의 침체로 말미암아 쿠바 경제는 실질 성장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쿠바도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라는 초기의 열광적 기대와는 달리 사회적, 경제적 빈곤화를 초래하여 200만에 달하는 탈출자를 내게 했고, 미국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대신에 소련에 의존하여 테러수출의 전초기지화 됨으로써 새로운 종속관계를 심화시켰다. 쿠바의 경제적인 실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59년 카스트로가 정권을 잡기 전에 쿠바의 생활수준은 이탈리아와 같았고, 주민들에 의한 원자재 생산은 남미에서 제일가는 편에 속했다. 쿠바인의 영양상태에 관해 살펴본다면 1958년 가장 잘 먹는 나라에 속한 편이었는데 오늘의 영양섭취상태는 상당량의 칼로리가 떨어지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들겠다」던 카스트로의 호언과는 달리 국민의 95%가 가족들의 피로 약값을 지불할만큼 가난한데도 카스트로 자신은 너무도 화려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25채의 관저와 여러 군데에 개인 해변 휴양지를 소유하여 경찰이 무장하고 있으며 화려한 리무진 안에는 억만장자들이 즐기는 가장 퇴폐적이고 화려한 것들로 장치된 생활을 하고 있다.

요컨대 중공, 탄자니아, 쿠바 등에서 사

회주의 혁명이 실패하는 것은 사회주의 혁명에 수반되는 희생과 비용이 너무나도 크며 사회주의 체제와 생산성은 부정적인 상관관계에 놓여 있으므로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 완화라는 서글픈 현실만이 노출되는 것이다.

5. 결 론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 본 가설에 지나지 않는 종속이론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종속이론의 강경론자들의 주장에 따라 우리 경제가 폐쇄성을 띤 경제체제를 취하여 자력갱생을 한다면 발전의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 할 것이다.

천연자원이라고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인구는 많고 가진 것은 고도로 훈련된 인적 자원 밖에 없는 우리가 폐쇄체제를 취하여 소득의 분배에만 신경쓴다면 「공평한 가난」은 될지언정 잘 살아야 한다는 명제의 달성은 요원한 꿈이 되고 말 것이다. 공평한 가난은 결과적으로 대외 경쟁력이 약한 약소국이 되어 어느 강대국의 영원한 종속국가가 되리라는 것은 뻔한 사실이다. 또한

온건론자들의 주장대로 국가자본주의나 민족자본주의를 택한다 하여도 계획과 통제하에서 나타나는 생산성은 낮아질 수 밖에 없고, 그것은 또한 전체 지향적인 특성으로 말미암아 생동력을 잃은 전체주의 국가가 되고 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종속이론은 경화된 사상으로 생동적인 통합이 아닌 획일적인 통일을 요구하고 공동의 책임의식에

의한 단결이 아닌 강요된 목표에 따른 단합을 요구하며 개방적인 발전의 가능성을 내포한 정체가 아닌 생동력을 잃은 폐쇄적인 경색을 가져오는 사고체계에 지나지 않는다. 발전보다는 가난을 향해서 뒷걸음치고 있는 쿠바는 바로 이러한 사고에서 도래된 필연적 결과라고 공인되고 있다.

우리의 사상인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지금의 경제체제는 그 속성이 19세기나 20세기 초의 소외체제를 방치한 그런 자본주의가 아니라 수정 자본주의로 시장원리를 기본으로 하되 내부적인 갈등이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하여 소득구조의 공정을 위한 각종 세제와 의료보험, 장학제도, 농어촌 후계자를 위한 용자 등의 구현을 위해 실시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국가경제력의 성장에 따라 더욱 확대 실시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국가에서 못 사는 사람이 없고, 어느 분야에서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위에서 흔히 목격하는 일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종속이론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상황을 설명하려는 일부 지식인들의 시도는 한국의 국제적인 제관계를 전체적 맥락에서 분석하는 안목을 결한 채, 지엽적 결합만을 과대 확대하여 전개된 원한과 적의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원한과 적의를 담고 있는 사상은 가상적인 적과 원수를 파괴하고 부정하는데 능할 뿐, 성숙하고 건전한 사회와 역사를 창조하는데는 늘 무력하였다. 무엇이든 부정적으로 보는 폭력사상이 건설과 창조에 이바지한 예는 거의 없다. 파괴에 능한 공산주의가 인간을 위한 사회를 창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폭력을 수반하는 과격한 적의가 인간을 위한 구원의 약이 될 수 없으며, 그러한 적의로 일관하는 마르크스 사상과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는 종속이론을 수궁하는 것은 그 만큼 위험하고 해로운 일이다.

종속이론은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극히 지엽적인 현상을 가지고 전체를 설명하려는 독단 이론에 지나지 않으므로 우리는 전체적인 맥락속에 다양한 현실을 보는 시각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근 검 절 약 기 풍 속 에

필 승 공 군 이 록 하 자

이 글은 지난 6월 9일 본부강당에서 개최한 제34주년 6·25반공웅변대회에서 입상한 연사들의 원고를 수록한 것임.

〈편집자 주〉

〈1등〉

힘을 길러라

소 위 박 상 웅

〈제5672부대〉

뿌리는 땅 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전혀 눈에 띄지 않지만, 땅 위에 피어난 꽃은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며 싱그럽게 피어나듯이, 보이지 않는 거룩한 정신의 뿌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슴 속에 영원히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조국이 있고 그러기에 생각하기 싫은 슬픈 시간이 있으니 1983년 10월 9일 버마 하늘에 울렸던 폭음소리는 우리들 가슴속에 참지 못할 울분을 만들었습니다.

나무여! 풀이여!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는가.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멀리 외국땅으로

떠났던 우리의 외교사절단에게 폭탄을 터뜨리고 국가의 원수를 시해하려고 했던 비인간적인 북한공산집단은 보이지 않는 전쟁의 피냄새를 물고 왔으며 이땅에 눈물을 남겨 주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타국땅에서 한줌의 재가 되어 돌아오신 아버지의 유해를 부둥켜 안고 목놓아 부르던 딸의 비참한 광경이 지금도 눈에 선하며 영원히 잊지 못할 한맺힌 장례식이 되어 눈시울을 적시게 합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그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강토, 같은 핏속에서 태어난 우리 민족이 전쟁의 폭풍을 물고 온 저 인간 백정 김 일성이 때문에 수 많은 애국자들이 죽었으며, 더 살아 큰 일을 해야 할 목숨들이 원통한 꽃잎으로 숨져갔으니 우리 목숨 다하도록 조국을 지켜 통일을 이룩하고자 간곡히 간곡히 부르짖습니다.

별공을 생활화하는 여러분!

군인은 이겨야 합니다.

남의 힘은 빌어 온 힘ियो, 참된 힘 참된 실력이 될 수 없으니 지금은 안 계신 그

분들의 정신을 받들어 우리의 실력으로 자주국방의 태세를 튼튼히 해야 하겠습니다. 배고파 울부짖던 어린 아이가 피투성이로 쓰러진 어머니의 가슴에 매달려 피를 빨던 이 민족의 비극은 30여년이 지났지만 또 무엇이 부족하여 다른 나라에까지 쫓아와 이 같은 슬픈 역사를 되풀이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의 무력적화를 획책하는 북한 공산집단의 전쟁미치광이들로부터 우리는 조국과 민족의 수호를 책임져야 하겠습니다.

하루의 힘든 일과를 마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내무반이나 가정이 없다면,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전우들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시간시간을 짜증과 불만 속에서 보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조국이 망한 후에는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수 없고 이 세상 어디에도 갈 곳이 없으니 국민 모두가 다시는 헤어지지 않는 단결로서 생사고락을 함께 할 때 이것이 바로 국민총화요, 선진조국이 되는 지름길이라고 이 연사 강력한 외침을 보냅니다.

사나운 개 콧등 아물 날 없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풍자적인 속담이 있는데 아마 지금쯤 공산당의 피수 김 일성의 아랫배가 굉장히 아프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는 고난을 박차고 일어서 경제발전으로 하늘을 찌를 듯한 고층

건물과 곳곳에 대소공업단지가 들어서고 전망 밝은 미래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즈음은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의 역사적인 민족도약의 전기를 눈 앞에 놓고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과거의 자세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틀을 확립하는 시대입니다.

장병 여러분!

조국과 민족이 처해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안정과 화합을 유도하며 최후의 한 순간까지 멸공전선의 발자취를 밟아 이제 다시는 가슴아픈 비극의 노래, 피눈물에 젖은 노래 대신에 국민적 산화와 의지로서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이겨 통일의 노래, 새 역사의 노래를 힘차게 힘차게 불러봅시다.

싸움이 싫으나, 그러면 힘을 길러라.

〈2등〉

만 남

대 위 차 영 현

〈제 3975 부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부모님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집은 돌담집이었고, 앞마당에 앵두나무가 있었으며, 집 옆에 있는 작은 교회에 다녔습니다.”

바로 지난 해 7월 23일 밤 8시,

서울 여의도 KBS본관 중앙홀에는 세명의 중년 남녀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 배우 서른 아홉살”

그는 33년의 긴 세월의 망각의 강을 넘어서 어린시절 그 기억을 되돌리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맞아 제 동생이 맞아요” 라고 중년부인이 소리치며 안타깝게 발을 구르고 있었지만 이 배우씨는 믿어지지 않는 표정으로 담배만 피워물고 있었습니다.

서른 세해 동안의 그 지나간 방황과 외로움, 가슴이 찢어지도록 사무쳤던 그리움이 전쟁의 그 참혹한 거리에서 기억처럼 살아남아 이 만남의 순간을 기다려 왔던 마음이 무섭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이 배우씨의 외삼촌이 이 배우씨의 왼쪽 눈썹을 헤쳐 작은 상처를 찾아내고는 “맞아. 너 이녀석 나를 모르겠어” 하면서 알아보시고 이 배우씨가 내놓은 고아시절의 어린 모습 사진을 보고는 “맞다 순철아 네가 맞아”하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최 순철” 이것이 바로 그의 성이고 이름이었습니다.

헤어질 때는 그토록 간단했었는데 다시 만나기란 이토록 어려웠던 것입니다.

헤어짐이 분단이라면 만남은 바로 통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 우리가 해야 할 민족적 과제는 우리 민족의 평화적 통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평화통일의 깃발을 높이 흔들고 아직도 혈육을 찾지 못해 애타우고 그리워하는 이산가족의 고통과 비애를 제거해야 하겠습니다. 누가 평화통일을 이룩하며 무엇이 한반도 이 땅덩어리에 사랑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사회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온 국민의 총화단결이 아니겠냐고 여기 선 이 연사 여러분 가슴을 향해 질문의 화살을 보냅니다.

부모님 몰래 애를 뱌 처녀도 할 말이 있다고 우리의 이산가족 찾기운동을 북돋아 주는 “이산가족 찾기라는 광대놀음을 벌이고 있는 것은 인민들과 내외 여론을 기만하고 분열을 고착시키려는 책동이다” “미리 각본에 의한 방송이다”라고 중상모략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민족의 쓰라린 아픔을 정녕 저들은 모르고 있더라 말입니까?

저는 언젠가 국립묘지 묘비의 글들을 읽어 본 적이 있습니다.

“아빠, 아이들 걱정 마시고 편히 쉬세요”

“아들아, 우리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눈물없이 읽을 수 없는 애절한 사연들,
동족의 손에 의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
난 쓰라린 사연, 우리는 해마다 이 유월이
오면 웬지 모르게 숙연해지는 마음들을 갖
게 됩니다.

조국의 영광을 짊어진 저와 여러분의 단
결된 힘이 우리 국토방위에 더욱 절실히 요
구되는 때가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김 일성이가 소련을 방문하고 휴전선 155
마일 어느 곳에선가 10개 이상의 땅굴이 파
내려오는 이 때에 우리는 편히 앉아 안이
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혈육을 찾지 못한 이산가족의 한 사람인
저희 아버님께서도 저만 보면 부탁하시는
말씀이 “너의 할아버님, 할머니님은 이제 돌
아가셨다 할지라도 다른 친척들은 봐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
는 계속 추진되는 사회의식 개혁운동과 더
불어 국가 자존의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
하는 우리로서는 더욱 더 단결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평화통일의 그 날까지 총 매
진하자는 것이 이 연사의 마지막 힘찬 주
장입니다.

감사합니다.



〈3등〉

하늘이 주신 사명

병 장 오 기 현

(제 2762 부대)

아시아 대륙 동북쪽의 해뜨는 곳을 향해
용솟음치는 대륙의 정기가 정점을 이룬 한
반도에 반만년의 깊은 역사를 가진 고귀한
문화의 힘이 빛나는 진주와 같이 형성되었
으니 단군을 세운 하늘나라 환웅은 이땅으
로부터 세계만방에 배달문화의 빛을 비추고
자 하는 하늘의 뜻을 키워왔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문화는 험난한 주
변정세 속에서도 끊임없는 성장을 계속하여
36년간 일제침략의 세월을 민주정신의 저력
으로 이겨냄과 동시에 세계를 밝혀주는 동
방문화의 횃불이 되겠다는 사명감으로 뭉쳐
하늘의 뜻을 이루고자 했을 때 그 뜻을 철
조망 하나를 사이에 둔 김 일성 피뢰집단
의 포악한 난도질로 인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으니 하늘을 피로 물들이던 삼천리 금
수강산의 통곡소리가 재전하고야 말겠다는
국민들의 함성으로 변하여 이제 불과 3년
후에는 국민 총생산액이 일천억불이요, 일

인당 국민소득은 2천 5백불이라는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했을 뿐만 아니라 4년 후에는 이 땅에 세계 올림픽을 열어서 우리 문화를 마음껏 자랑하게 되는데 또 다시 전쟁준비에만 광분했던 김 일성이가 애써 쌓아놓은 우리의 금자탑을 부셔버릴 기회만 노리고 있다니 너무도 분하고 기가 막혀서 평양까지 달려가서 김 일성의 숨통을 끊어버려도 분이 안 풀리겠으니 반공정신으로 뭉친 4,000만 우리 국민의 하늘을 찌르는 분노와 이제는 죽어도 공산당과는 못살겠다는 1,800만 북한 동포의 애타는 절규를 한테 모아서 총력의 화살, 필승의 화살로 만들어서 김 일성의 심장을 향하여 힘차게 쏘보내자고 강력히 호소합니다.

위대한 민족정기를 타고나신 존경하는 장병 여러분!

성서에는 후세의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둔해지고 눈은 감아 버린다고 예언했습니다만, 우리 북한 동포는 눈과 귀를 가리우고 입에는 자갈을 물린 채 김 일성 부자의 채찍에 시달리며 피를 말려 만든 괴뢰도당의 마차를 끄는 짐승보다 못한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 갈 줄이야 하나님들 어찌 상상하셨겠습니까?

적화통일 야욕과 김 일성 세습왕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북한 전역을 외부세계와 완전 격리시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민들만 혹사했던 북괴가 이제는 한반

도의 통일은 남북한 당사자의 직접대화가 아닌 3자 회담으로서만 이를 수 있다는 억지주장을 들고나와 국론의 분열만 노리고 있으니 이들은 분명 피도, 눈물도 없는 살인마들이라고 단호히 규정하고 싶습니다.

버마 아웅산 묘지의 폭음소리는 아직도 우리의 귀에 쟁쟁하고 아버지를 잃은 가족들의 눈물은 끊임 없이 없건만 북괴는 또 다시 땅굴을 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을 납치해 가기까지 하는 교활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때에 우리의 사명을 정예공군의 기량을 갈고, 닦아서 한 치의 허점이나 약점을 보이지 말자는 것이요, 3일전쟁, 5일전쟁, 속전속결, 유격전을 부르짖으며 재침을 위한 구결행각에 미치광이가 된 김 일성의 망상을 분쇄하여 번영된 선진조국을 건설하자는 것이기에 여기에는 너와 내가 있을 수 없고, 여기에는 전방과 후방이 있을 수 없다고 제공통일에 피가 끓는 대한의 젊은 장병은 만장하신 여러분의 고동치는 심장 심장을 향하여 피맺힌 절규를 힘차게 쏟아 놓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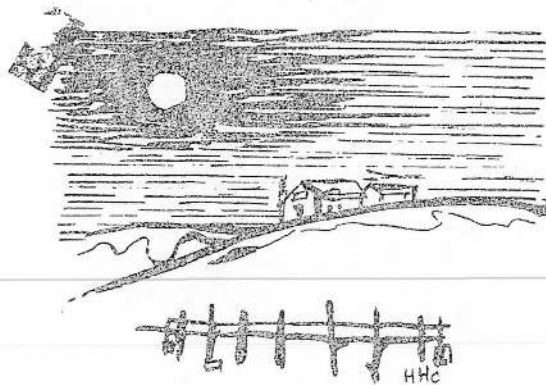
임의 행차 서쪽으로 멀리가지고 왕자를 북쪽으로 위치한 오늘날 장수들은 공을 세울 때로다. 바다에 맹세하니 용이 흐느끼고 산에 맹세하니 초목이 아는구나. 이 원수 모조리 무찌른다면 내 한 몸 이제 죽는다 한들 어찌 사양하리오.

조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싸워야

하는 지를 가르쳐주는 충무공의 조국애는
오늘도 우리의 가슴에 살아있고 조국이 통
일되어 세계를 비추는 동방문화의 햇불이
되기를 염원하는 선열들의 기도가 있으니
선진조국을 눈 앞에 둔 이 시점에서 피와
땀으로 건설한 국토를 한 발짝도 양보할 수
없으며, 더럽힐 수도 없습니다.

조국은 우리에게 하늘을 맡겼습니다. 하
늘과 땅의 보라매가 일심동체가 되어 이 원
수 모조리 무찌른다면 내 한 몸 이제 죽는
다 한들 어찌 사양하겠느냐는 선열들의 조국

애를 본 받아 내가 아니면 조국은 망하고 만다
는 뚜렷한 신념으로 뭉쳐 이 단결된 우리의 결
의가 휴전선을 넘어 대동강 물줄기를 따라
올 때 평양 모란봉까지 넘쳐가고 제공호 높
이 날려 철통같은 방위태세를 갖추는 때 김
일성의 남침야욕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
오, 155마일 휴전선에서 끊어진 민족의 정
기는 되살아 날 것이니 우리 모두 선진조
국 창조를 위해 하늘이 주신 사명인 조국
통일을 향하여 총 매진하자고 신념에 찬 주
장을 자신있게 외칩니다.



太平洋空軍 現代化(上)

중령 박 재 근 記

〈공 군 본 부〉

동아세아에 있는 미공군부대는 항공기, 시스템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강한 억제력을 부활시키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태평양 지역인 한국 오산에 있는 미공군은 미군철수 정책 후에 약해졌던 공군 전력을 3년만에 걸쳐서 막강한 억제력을 재건설하고자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새로운 비행기,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시설과 지원임무를 현저하게 증강함으로써 태평양 공군의 특성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이러한 임무들은 상당히 증가된 미국의 경제성과 유리한 정치적 이점을 위해서 수행되고 있다. 태평양 공군의 전술부대들은 1970년대 중반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되면서부터 여러 해 동안 별로 중요시되지 못했었다. 태평양 공군의 전성기는 베트남 전쟁시 병력 174,000명, 항공기 1,880대였으나 1970년대 말에는 군무원을 포함한 병력 50,000명과 항공기 330대로 감소하였다. 총 항공기 330대 중 200여대는 주로 전투공격용인 저성능 항공기 F-4들이었다.

태평양 공군작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군사시설의 건설비용은 1977년에는 4.3백만불까지 감소되었었다. 지난 3년간 제3세대의 항공기도입, 조기경보기 E-3A영구배치, 그리고 새로운 작전시설 및 주거시설 경비의 실질적인 증가는 태평양공군의 전쟁준비태세 능력의 지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광활한 태평양연안 국가들과 어마어마한 긴 작전행동반경은 태평양 공군 책임지역의 특성을 지적해 주고 있으며, 태평양과 인도양, 극동아세아를 포함해서 100만 스퀘어마일이며 지구표면의 약 2/3를 차지한다.

따라서 미공군은 다른 지역에서는 필요하지 않는 특수시설과 절차를 사용해야 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통신 및 군수물자의 보급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서태평양지역 미공군은 모든 항공기의 시스템과 부품을 수리하기 위해서,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 중앙집권적인 긴급수리시설이 설립되어 있다.

공군작전지휘부 통제 아래 건설된 이 시

설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태평양 공군부대와 근거리에 위치, 긴급수리 능력을 갖고 있으며 또한 본국의 창수리에 의존하고 있다. 수주일이나 걸리는 부품의 보급지원 부족은 장비를 부작동케 하거나 수리를 할 수 없게 한다.

태평양 지역에서 한 지점에서 한 부품이 다른 곳으로 전달되려면 시간과 거리를 먼저 생각해야 하므로 Aviation Week & Space기자가 태평양 공군작전상태를 조사하는 최근에도 본국에 보급품 지원을 반복적으로 요청하고 있었다.

미국 본토 서해안에서 태평양 작전지역으로 이동하려면, C-141비행기로 하와이 Hickam 비행장, 괌의 Anderson 비행장에 각각 3시간 15분씩 체류하는 시간을 포함해서 24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태평양 지역 내에서의 각 비행장과 거리도 좀 가까운 편이지만, 그래도 미본토나 유럽지역에 비하면 상당한 거리가 되는 것이다.

태평양 지역의 미공군의 억제력으로서 증강은 1979년도에 오키나와 가테나 비행장에 Mc-Donnell Douglas사의 F-15전투기와 E-3 A조기경보기를 영구배치함으로써 공대공 능력을 신장시키는데서부터 비롯된다. 그 다음으로 1981년 말에 F-16비행단이 군산기지에 설립되었으며, 1982년 초에는 수원에 A-10비행대대가 창설되므로 해서, 이 지역에서 공대지 능력과 깊숙한 후방차단 능력을 증가시켰던 것이다. 대부분의 제3세대 항공기들은 이미 배치되었던 F-4와 같은 숫자로 대체되었으며, 현재까지는 양적 증

가보다는 질적 향상에 주력하였다. 새로운 A-10비행대대는 먼저 배치되었던 10대의 A-10항공기에 비해 순수한 증가분이었다.

새로운 전쟁의 방어개념

만약 일본 북쪽기지에 F-16비행단 주둔 제안이 일본측에 받아들여진다면 앞으로 5년 이내에 항공기의 많은 수적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요사이 국방장관 와인버거의 발표에 의하면 1985년도경에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일본 미야자와 비행장에 48대의 F-16으로 구성되는 비행단을 주둔시키는 잠정적인 협정이 미국과 일본 사이에 이루어졌다 한다. 공식적인 양국정부의 협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만약 이루어진다면 지난 10년간 보다도 현저한 군사력 증강을 가져오게 되는 계기가 된다. 최근에 태평양 공군의 보강은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가. 태평양 연안국가들의 현저한 경제발전-미국이 서유럽과의 무역거래량보다 더 많은 미국 총 무역량의 28%를 이 지역 국가들과 무역을 하고 있다.

나. 미국과 미국의 우방국들이 이 지역에서 생산 오일과 전략적인 물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우방지역에서는 매년 약 1,250억 불에 상당되는 오일이 생산 또는 이전되고 있는 것이다.

다. 태평양연안 아세아 우방국들과의 방위조약-미국과의 방위협력이나 조약을 맺

고 있는 7개국 중 5개국은 태평양 아세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조약을 맺은 국가는 일본·한국·필리핀·타이랜드·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등이다.

라. 소련의 극동군사력 증강과 한국에 대한 북괴의 예측할 수 없는 전쟁도발성-소련의 태평양함대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태평양과 인도양에 소련함대의 출현이 잦다. 또한 소련공군은 최근 몇 년 동안 현저한 증강과 현대화했으며, 현재 극동에 있는 소련비행장이나 베트남에서 미국이 사용하던 기지에서 서태평양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사력을 강타하거나, 미국의 동맹국들을 강타할 수 있는 항속거리와 강타능력을 갖고 있다. 북괴는 DMZ에서 50마일 이내에 있는 그들의 군사력으로 남한에 대한 끊임없는 적대행위와 공격행위를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지역에서의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소련의 강력한 군사력이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북괴의 적대성과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은 한국분쟁에 대비해서 훈련하고 준비하는 태평양 공군에게는 더욱 더 긴박한 위협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국에는 태평양 공군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전술전투기 F-4E, A-10, F-16전투비행단이 영구히 주둔하며, 그 외에 F-15, RF-4C항공기도 다른 태평양 공군기지에서 파견되어 비상대기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미 본토에 비행기지를 둔 부대와 마찬가지로 태평양 지역에 주둔한 미공군 부대도

주기적으로 한국에 전개하여 한국의 지역적 환경에 익숙해지도록 훈련하고 있다. 또한 고고도 정찰기인 Lockheed사의 U-2가 이 지역의 깊숙한 정찰을 위해서 전개운영하고 있으며, 미공군은 한국 공군과 합동작전을 잘 운영해 나가고 있다. 한·미공군은 전술 항공통제본부(TACC)와 ASOC에서 상호협력하면서 작전하고 있다. 한·미공군은 어떤 경우에는 같은 비행장과, 같은 훈련 Range를 사용하고 있으며 미공군 AIRBORNFAC인 OV-10항공기는 한·미공군 전투기를 지상군 지원임무를 위해 Control 하고 있다.

또 한국공군 정비사들은 미공군 F-4E 한 개 대대를 정비하고 있으며 미공군의 지원으로 한국공군은 항적탐지망과 통신망을 현대화하여 서울에서 남쪽으로 30마일, DMZ에서 60마일에 위치한 OSAN기지에 한·미공군 지휘부가 새롭고 견고한 Tace 내에서 작전하고 있다. 조약에 의해 미공군은 필리핀 공군과 함께 필리핀 방어를 분담, 방공과 방공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비행기지인 클라크기지는 필리핀과 미공군이 같이 사용하고 있다. 미공군, 해군 및 해병대의 항공기와 태평양연안 아세아국 항공기 간에 빈번한 연합훈련을 갖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미공군 계획담당 장교가 말하기를 미군과 일본은 정치적으로 일본 내에서 미묘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직도 미군의 중심지역으로 남아있다고 했다. 일본의 자체방어의 책임이 일본에 있음에도 불

구하고, 태평양 미공군 항공기와 조종사들은 매년 일본 자위대와 정기적으로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태평양 미공군 지휘관에 의하면 이러한 합동훈련의 목적은 일본 본토를 방위함은 물론 일본 본토로부터 약 1,000마일에 이르는 해상로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이곳에 주둔한 미공군 항공기들은 일본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자체방어를 위한 공격능력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해상 보급로를 보호하기 위한 양국의 공동노력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전력소요가 밝혀지는대로 곧 추진되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일본의회에서 48대의 F-16비행단을 일본 북쪽기지에 주둔을 허용한 것은 일본이 소련의 군사력 위협을 인지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태평양 미공군 고위장교가 밝혔다.

Kurils에서의 현대화와 소련의 군사력 증강으로 일본해상공에 소련의 BACKFIRE 항공기들이 모습을 나타냈다.

“일본은 자기네들의 자체방어를 하기 위한 군사력 증강의 평가가 있었다. 그들은 빠르지는 않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5공군 사령관 Donnelly 중장이 말했다. 태평양 미공군이 지난 3년 동안 현대화의 노력을 한 결과 긴박한 북괴의 공군력보다 앞서 있지만 극동에 있어서 소련의 군사력 현대화와 미공군의 질적 개선은 일반적으로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로서 태평양 미공군이 현대화로 얻는 질적우세를 소련은 수적우세로서 대처한 것이다. 북괴가 보유한 남은 700여

대의 소련제 항공기와 기계화, 사단이 보유한 장비는 수적인 면에서는 우수하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우수하지 못하다. 태평양 공군지휘관에 의하면 베트남 전쟁시대와 같은 형의 북괴 항공기와 방어장비들은 태평양 공군과 한국공군이 연합전력으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태평양 공군의 고급장교들이 갖는 관심은 북괴공군기가 한국에 있는 미공군기지를 강타하는 것 보다는 북괴 특공부대가 야간에 아군시설물을 공격하는 것이다. “북괴는 10만명의 특공대와 많은 AN-2 항공기들을 갖고 있다”라고 Donnelly중장은 말했다. AN-2항공기는 구식, 프로펠러 단발엔진이며, 무장병력을 12명 운반할 수 있다. AN-2항공기는 야간에 계곡을 따라 저고도로 비행하여 우군의 방공레이다망을 피해서 특공대를 운반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Donnelly 중장은 생각하였다.

따라서 특수부대 요원들은 비행기에서 낙하산으로 낙하한 후에 남한의 군사시설물을 가능한한 빨리 파괴하려고 할 것이다.

Donnelly중장은 말하기를 이러한 공격 시나리오 때문에 미공군 요원과 보안경비대들이 기지방어 절차를 더 보강해서 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공군 적위협 분석가들이 말하기를 중공 국경과 극동의 소련의 전투기들의 숫자 - 약 2,000에서 2,500-은 지난 10년 동안 약간의 변화는 있었지만은 소련에서 출격하여 일본과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항공기 항속능력과 공대공 미사일, 그리고 보다 나은

레이다 시스템을 장착한 최신 항공기를 배치함으로써 현저한 질적인 향상을 가져왔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소련의 장거리 전투임무의 항공기들이 과거에는 미공군의 기지였던 베트남의 캄란과 다낭기지에서의 발진 가능성이다.

정보전문가의 추정에 의하면 극동에서 약 2,000여대 항공기의 90%에 해당하는 소련 항공기들은 SU-15(Flagon), MiG-23(Flogger B/G), MiG-25(Foxbat), SU-19/SU-24(Fencer), MiG-27(Flogger D/S), SU-17(Fitiet H), MiG-21(Fishbed) 등 제3세대 항공기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력들은 300여대에 이르는 소련 공군과 해군의 폭격기들인 Bears, Bisons, Baggers 초음속의 BACKFIRES로 보강되어 있다. 쌍발엔진인 BACKFIRES폭격기는 핵무장과 재래식 무장의 공격능력이 있으며, 대함능력과 정찰임무로 일본 해상공과 중공해 남쪽바다에 자주 나타난다. 또한 Bear 정찰기도 필리핀 50마일 이내에 가끔씩 나타나곤 한다. 1977년부터 유럽에 배치되었던 SS-20미사일을 소련은 극동에 배치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비 전략적 미사일을 서남아세아와 동남 아세아에 연장배치 했었다. 현재는 소련 보유 SS-20의 1/3인 약 250개의 WARHEAD를 극동에 배치하고 있다. 소련 공군의 현대화는 급속도로 이루어졌다. 1979년과 1981년 사이에 소련은 미태평양 공군이 보유한 항공기의 3배가 넘는 구식항공기들을 최신 전투기로 대체하였다.

미공군 적 위협 분석가들은 과거에 미공군

부대들은 소련의 수직 우세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으나 이제 소련 공군의 질적 향상으로 사정이 달라졌다고 믿고 있다.

“태평양 공군이 현재 증강되지 않은 상태가 군사력 균형에 기여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급속한 변화는 실망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클라크 공군기지의 제13공군사령관 Kenneth D. Burns소장을 말했다. 태평양에서 소련함대는 크게 4개의 함대로 구성되어 80명의 지상전투요원, 100명의 해병대, 그리고 400대의 항공기를 탑재하고 있으며, 해상작전을 계속적으로 증강시키고 있다.

수상함대는 최신형이며 미태평양 함대가 가지고 있는 화력보다 더 우수한 장비로 무장되어 있다.

소련의 태평양연안 해군 비행기지에는 Bager와 Backfire폭격기로 구성되어 있고, 항공모함 민스크에는 Saw Helicopter와 수직 이착륙 항공기인 YAK-36, 그리고 제트 전투기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1979년부터 브라지보스톡 항구를 떠나 서태평양에서의 작전과 중공해 남쪽에서 정찰임무를 하고 있다. 항모 민스크호는 미국이 개발한-현재는 소련이 사용하고 있는-캄란 항구시설을 이용 이 지역에서 항해하는데 필요한 물자를 보충받고 있는 것이다.

“어느날 브라지보스톡과 캄란만 사이에 24척의 소련선박이 있었으며 캄란만에는 16척 이상의 소련선박이 정박해 있었고 또한 싱가포르와 인도양 사이에는 32척 이상의 소련 선박이 있었다. 10년 전에 우리가 이러

한 숫자의 선박을 목격했다면 선회하면서 상세히 관찰했겠지만 지금은 면적이 되어 버렸다"라고 오키키와 가데나기지의 313비행단장 Thomas B. McInerney준장이 말했다. 또한 소련은 이 지역에서 인도양까지의 항로상에 다른 국가들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항만을 찾고 있다. 소련 해군의 활동이 증가되고 미태평양 공군 책임지역이 광대함에 따라 이 지역에서 미 해군 및 해병대와 연관되는 작전을 증가시킬 방안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태평양 공군관계 장교들이 이러한 작전을 하려면 해상작전에서의 공군의 참가는 실제로 상세한 절차를 밟아 해군 관계관들과 작전지휘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태평양 공군조종사들은 소련 함정의 능력, 함정의 무기 특성과 전술을 알 수 있도록 교육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러한 작전에 대한 논의는 태평양 공군의 항공기와 무장 시스템을 소련 함정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되게 할 것이다. "우리들은 현재 태평양 지역에서의 주어진 임무만 수행할 뿐 해군과 해상작전은 아직까지 실제로 수행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Burns는 말했다.

제 1 단계로서 미태평양 공군부대들은 해상 최저 표준고도인 1,000ft 이하에서 작전하도록 숙달시키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훈련은 무장함정을 최저고도에서 공격하면서 가능한한 무장함정에 탐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공군의 다른 분야에서의와 마찬가지로 미태

평양공군 지휘관들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와 장비들에 대한 부품의 부족에 제한을 느끼고 있다.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제 3 세대 항공기들은 적절한 수준의 부품이 공급만 된다면 더 많은 소티를 운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항공기들의 신뢰성과 정비지원성이 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미태평양 공군에서는 작년에 구형인 F-4를 운영할 때 지금보다 가용률이 더 좋았다. 왜냐 하면 F-4에 대한 부품은 항상 충분히 공급되었기 때문이다. 항공모함에 있는 전술전투기들의 가용률은 작전에 목표달성 비율을 훨씬 능가하였다.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미태평양 공군 지휘관들은 항공기를 운영하는 요원들-장교와 사병, 조종사와 정비사들-은 상대적으로 어리고 경험이 많지 않은 인원들로서 제한된 훈련과 미경험이거나 적은 경험을 가졌다고 역설한다. 이러한 현상을 가져오게 한 한 가지 요소로서는 1970년대 숙달된 인원들이 대량 유출되었기 때문이다. 공군 전술 교육기관에서는 일선분야에 요원들을 빨리 배치시켜야 했기 때문에 그들의 훈련기간을 단축시켰다. 일선 비행부대에서는 이러한 인원을 재교육시키기 위해서 이미 숙달되었던 많은 기간 요원들이 투입되어져야 했다. 태평양 공군내에서 전반적으로 볼 때 비교적 인원이 부족하고 전속기간이 12~18개월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추가적인 훈련이 요구되고 있고 또한 전속기간이 짧기 때문에 한 분야에 숙달된 전문요원이 되고서부터 본국 근무로 돌아갈 때까지 짧은 기간 동안 군

무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해서 미태평양 공군내에서는 현재보다 많은 물의 숙달된 요원을 보유해야 된다는 주장과 때를 같이해서 전술교육기관에서도 교육기간을 연장하는 등 전체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과 필리핀은 비교적 제한받지 않은 공역사용 규정과 민간 항공항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미태평양 공군 조종사들은 다른 공군전술지역에서보다 복귀의 긴박한 상황아래 실질적인 비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미태평양 공군 지휘관들은 매년 다른 여러 국가들과 다목적 지원임무와 연합작전을 강조함으로써 실질적인 공군작전을 계속 펴왔다. 이러한 연합작전 강조점은 태평양 공군부대들이 조종사의 측면에서 볼 때 많은 향상을 가져왔다고 공군장교들은 믿고 있다.

“우리는 지난 몇년동안 연합작전 참가와 우방국과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큰 전진을 이룩하였다”라고 클라크에 있는 8 전술비행단장 John Corder대령은 말했다. “향상된 작전효율과 생존성에 관한 모든 시스템-방공작전, 공대공, CAP, 외부장착 ECM, AW-ACS, C3 등-을 모두 갖추고 있다”라고 Corder대령은 덧붙였다.

현 전력의 작전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하고 있다.

태평양 공군기지인 오키나와의 가테나 공군기지에서는 극동에서 소련항공기 수적 우세와 다른 적대국 군사력에 대처하기 위해

미태평양 공군에서는 제3세대 항공기와 시스템을 보다 향상된 기동능력과 가용물을 유지하는데 분투노력하고 있다. 현재 태평양 공군에 의해서 운용되어지는 제3세대 전투기들은 증가된 작전능력으로 새로운 전술과 새로운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보유한 항공기들은 Mc Donnell Douglas F-15제공항공기, Generaldynamic사의 F-16전투기/폭격기, 그리고 Fair Child의 A-10근접지원/대기잡 항공기로 구성되어 있다.

태평양 공군이 약 12~15개월 전에 F-16과 A-10항공기를 작전배치된 반면 F-15항공기는 1979년 처음 배치운영 되었다.

가. 항공기 교체

대부분의 이 제3세대 항공기들은 제일 먼저 생산되어 배치되었던 공대공과 공대지 임무로 쓰이던 F-4C와 F-4D항공기들과 교체되었다. 미태평양 공군에는 아직까지도 F-4E, F-4G, RF-4C항공기들이 남아있으나 각 항공기의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새로운 장비와 항법/무장투하 시스템을 보강했다. 태평양 공군 고위장교에 의하면 추가적으로 1979년부터 임무배치된 E-3A AW-ACS항공기는 과거보다 더 한층 연합훈련을 강화시켰으며 또한 미공군 전투기들의 작전 지휘향상을 가져왔다. 미태평양 공군이 보유한 전투기의 총 대수는 제3세대 항공기로 교체되면서 전반적으로 약간 증가되었지만 향상된 신뢰성 향상으로 보다 많은 소티를 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전력증강을 가져왔다.

미태평양 공군에서 평균 1대의 항공기로 한 달에 13소티 운영되었던 것 보다 F-15나 F-16항공기는 한 달 18소티를 하고 있다. 미태평양 공군 고위장교들은 F-15항공기의 레이다, 상승률, 가속성, 선회기동성 등과 같은 탁월한 능력 때문에 방공작전면에서 현저한 향상이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서는 최근 후로리다에서 있었던 William Tell공대공 사격대회에서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항공기로서 거의 모든 종목에서 승리를 휩쓸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미태평양 공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F-15항공기들은 가데나 기지에 있는 제18전술전투 비행단에 속해 있다. 기타의 미태평양 공군부대들과 마찬가지로 F-15비행단 항공기들은 동시에 아세아와 서태평양 지역에 걸쳐서 분산배치되어 작전훈련과 방공비상대기를 하고 있다. 이 비행단은 가데나 기지에 위치해 있지만 3~5대의 항공기는 한국에 있는 오산 비행장에 전개되어 3대가 항상 한국공군과 함께 방공비상대기를 하고 있다. 또 다른 F-15항공기들은 가끔 필리핀 클라크기지에 전개하여 Cope Thunder훈련에 참가한다.

나. F-15항공기의 신뢰성

F-15항공기의 신뢰성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동시에 서태평양지역 3~5개 지역에서 작전을 할 수 있었다. 과거 몇 년 동안 F-15비행단의 1/3에 해당하는 항공기들이 어

떤 주어진 시간에도 모기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전개하여 임무수행을 하여 왔다. 제18전술전투비행단의 기본 임무는 태평양 공군과 동맹국 전투기들이 근접지원 임무나 후방차단 임무수행시 이 전투기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다. 소련, 동남아세아, 중동지역을 포함 태평양지역 어느 곳에서든지 전투가능성을 저지하기 위해 조종사들이 훈련과 작전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작전훈련은 한국전쟁 도발에 대비한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3~5대의 F-15항공기가 한국 오산기지에 주둔하여 2대는 10분 비상대기, 한 대는 1시간 대기하는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F-15비행단과 2~3대의 AWACS항공기가 가데나와 같은 기지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F-15 항공기와 AWACS조종사와 승무원들은 훈련을 같이 자주하고 있다. 미태평양 공군 지휘관들은 이러한 훈련은 양쪽 항공기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항공기 탐지와 방공능력을 동시에 향상시켜 준다고 믿고 있다.

“E-3A는 F-15비행단을 위해서 배치되어 있고 F-15전술전투기 비행단은 E-3A과전대대를 위해서 배치되어 있다”라고 가데나에 있는 961AWACS대대장교가 말했다. E-3A항공기와 합동작전 발전에 추가해서 가데나에 위치한 F-15대대들은 서태평양 지역에서 주 위협이 될 많은 수의 북파 항공기나 소련 항공기에 대해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기전술로서 요격 임무절차를 개발해 왔다.

태평양 공군의 다른 전투기 비행단들과

마찬가지로 제18전술전투 비행단도 많은 수의 적 전투기 전술에 대한 과중한 압력을 받아왔다. “우리는 F-15비행단에 전입한 조종사들에게 초기에는 항공기 4대로 운영하는 작전을 강조해 왔으며 많은 수의 적기와 조우했을 때와 또한 MiG기를 격추시키기 전에 생존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도록 강조하여 훈련하였다”라고 비행단 작전부장인 Greg Martin대령은 설명했다. 태평양지역에 북피나 소련의 항공기가 수적으로 우세하다고 해도 “우리가 만약 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고 올바른 작전 계획만 수행된다면, 많은 수의 항공기와 싸울 필요가 없다”라고 Martin대령은 덧붙였다.

4대의 항공기 대형을 F-15비행단에서는 많은 수의 적기와 대항할 때 최저 기본대형 개념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 제18전술전투 비행단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정해진 항로를 따라 모기지를 떠나서 16대의 항공기로 대형을 유지하여 각 항공기 간에 꼭 필요한 통신만 통화하면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리핀에서 Cope Thunder 훈련에 참가할 때는 미래상황에 대비하여 2개 대대로서 이루어진 32대의 항공기 대형비행이 계획된다. 이 전투비행단에서는 전투지휘역할과 좀 더 실제적인 작전 훈련 임무를 조종사들이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비행회수를 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모든 임무가 가능한한 실제전투 상황과 부합되도록 목표가 주어지며 매회마다 같은 전투훈련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비행단 지휘관들은 말하고 있다. 지난

해에는 비행단 총 소티의 25.6%가 타기종과 전투기동하는데 투입되었다. 올해에는 이 비행단에서 더 많은 성과를 올리기 위한 추가적인 타기종과의 훈련계획이 되어 있어 이 임무에 투입되는 소티가 증가될 것이 예측된다.

주로 하와이의 카네오헤와 일본의 이와쿠니에 있는 미 해병대 전술항공기들이 가베다에 있는 주기장에 전개하여 F-15와 전투훈련을 하고 있다. 해병대 항공기들은 주로 F-4, A-4 그리고 수직이착륙기인 헬리어들로 되어 있으며, 공격과 방어임무로 나누어서 F-15전투비행대대와 훈련하고 있다.

제18전술전투 비행단 소속 F-15조종사들이 “가장 대적할 만한 항공기”라고 부르는 군산으로부터 전개해 온 F-16항공기와 서로 협력절차를 개발하기 위한 작전훈련도 같이 하고 있다. F-16항공기팀은 F-15 항공기팀과 함께 적 전투기들과 조우할 것을 대비한 대형을 유지한다. F-16 항공기들은 자체 Radar로 장거리에서 적기를 탐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F-15항공기와 밀접된 대형을 유지하는 대신 F-15항공기들은 자체 레이다로서 장거리 적기탐지능력을 발휘 AIM-7중거리 미사일로서 적기를 무력하게 만든다.

일단, 적기가 가시거리 내로 들어오게 되면 F-16항공기들은 탁월한 기동성을 발휘하여 나머지 적 항공기를 격추시키게 된다.

F-15비행편대들은 미래의 어떠한 분쟁지역에서 적의 통신 재밍이 심할 것이라는 예상때문에 통화없이 작전할 수 있도록 주기

적으로 훈련하고 있다. 더구나 서태평양 지역에서 작전하는 F-15항공기들은 작전지휘 통제 통신이 적에 노출되어 있어서 기만통신과 같은 종류가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여야 한다.

다. 무통신 작전훈련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의 비행이든 미태평양 공군부대의 조종사들은 무통신과 재밍에 대한 충분한 연습이 되어져 있다. 따라서 항속거리를 현저하게 증가시키기 위하여 F-15항공기에 외부 연료탱크를 장착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미태평양 공군지휘관들은 이러한 계획에 상당히 열성적이다. 왜냐하면 외부 연료탱크 장착은 태평양 공군의 F-15항공기가 가네다기지로부터 타지역으로 추가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또 한편으로는 제18전술전투비행단에서는 만약 필요하다면 보조임무로서 F-15항공기로 하여금 공대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F-15조종사들에게 제한된 공대지무장투하 계획을 수립했다.

가네다기지에 있는 F-15항공기들은 공대지 무장장착에 필요한 WEAPON RACKS나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현 F-15항공기 날개 밑에 2개의 2,000파운드 폭탄을 장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비행단 장교는 설명했다.

각 비행대대마다 F-15항공기로서 공대지 임무에 숙달된 기관요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이미 공대지 무장투하 임무에 경험있는

조종사들에게 비행단에서는 중점훈련을 하고 있다. 이제까지 공대지 숙달훈련 계획은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비행단 장교의 말에 의하면 조종사들의 평균 CEP는 40피트이며, 히캄기지에서 가네다기지에 전개해서 훈련 중에 있는 한 조종사의 첫번째 대지 공격 임무에서 평균 CEP는 22피트이다. 미태평양 공군의 각 F-15대대 조종사들은 공대지 임무로 반기에 4개 내지 6개의 폭탄을 투하함으로써 제한된 추가 훈련으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15항공기의 무장투하는 중고도와 고고도에서 CDIP(Continuous Display Impact Point) 모드를 사용 투하했을 것이다.

미태평양 공군의 F-15항공기의 임무가동률은 1982년에 66.8%였고 한 항공기당 한 달에 비행단 소티는 18.2이다. 제5공군의 고급장교이면서 제18전술전투비행단 소속인 한 장교는 임무가동률을 85%까지 증가시키고 소티율도 월당 21~22소티를 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미공군 내에서 현재의 부족한 부품만 해결된다면 이것은 가능하다고 그들은 믿고 있다. 군산기지에서 작동 중인 F-16항공기에 대해서도 부품부족은 같은 상황이다. 태평양 지역에서 유일하게 F-16비행단인 제8전술비행단은 공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족한 부품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F-16비행단의 요구되는 평균소티는 월 21.3이며, 이것은 태평양 공군 평균 목표인 19보다 약간 높은 숫자이다.

라. 전환능력 (Swing Capability)

제 8 전술전투비행단은 1981년 말에 F-4D 항공기에서 F-16항공기로 교체되어 현재 48대의 항공기를 운영하고 있다.

방공전투기 임무에 부가해서 F-16항공기는 깊숙한 후방차단 능력을 갖고 있다. 전에 교체되기 전 F-4D항공기의 주임무는 CAS지원 임무용이었다. 최근에 F-16항공기 임무가용률은 75%였으며 완전하게 임무수행한 가용률은 68~70%였다고 제 8 전술전투비행단장 James F. Rerord대령은 말했다. 더 좋은 부품지원이 이루어지면 임무가용률은 더한층 개선될 것으로 믿는다고 그는 덧붙였다. 부족한 항공기의 부품이 현지 보급창고에 없기 때문에 항공기 자체 부품을 수령하려면 시간적으로 60~120일이 소요된다고 Record대령은 설명했다. 이러한 부품문제로 불가동된 항공기의 부품을 Cannibalization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항공기는 지상에 오래남아 있게 된다. 태평양 사령관 Arnold W. Braswell중장은 "F-16부품보급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신속하지 못한다. 모든 생산된 부품들은 새로운 항공기를 조립하는데 전부 소비된다"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F-16비행단이 보유한 모든 비행기들이 비교적 새항공기라는 사실 때문에 좀 혜택을 받고 있다. 1981년 9월에 첫 F-16항공기가 F-4D항공기와 교체가 시작되어 이제는 완전히 F-16만 운영하고 있다.

더구나 "SWAPOUT"계획에 의거 Block-

10항공기 대신 무장발사 소프트 웨어, Horizontal Tailplane, MSIP (Multinational Staged Improvement Program) 등을 바꾼 B-Lock-15항공기가 도입되면서 8비행단에는 1년 이상된 항공기는 한 대도 남아 있지 않다.

마. 가 용 륜

제 3 세대의 항공기가 가용률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다.

F-16항공의 Westing House레이다는 기록에 의하면 실제 설정해 놓은 것보다 가용률이 훨씬 좋은 것으로 되어 있다.

F-16항공기는 좋은 공대공 능력을 갖고 있고, 또한 8전술전투비행단 조종사들이 공대공 전투훈련을 하고 있지만 비행단 기본 주임무는 깊숙한 후방차단이다. 공대공과 공대지 임무를 공히 훈련하는 것은 태평양 미공군 지휘관들로부터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항공기에 대한 기술적 설명은 정확하게 하기가 힘들다. COPE THUNDER 훈련을 하기 위해 F-16항공기가 Crow Valley Range에서 처음 투하한 폭탄은 명중이었다"라고 필리핀의 클라크기지 제 13공군사령관 Burns소장은 이렇게 말했다. 제 8 전술전투비행단에서 지난 1년간 기록한 데이터에 의하면 F-16조종사들의 평균 CEP는 10° 강하 폭격이 35피트, 20° 강하폭격이 50피트, 30~35강하폭격이 65피트를 보여주고 있다. 비행단에서 가장 우수한 조종사의 CEP가 강하각이 10° 일 때 9피트, 20° 일 때 24피트, 30° 일 때 28피트이다. 깊숙한 후

방차단 임무시 기본 무장은 2,000LBS MK-84, 500LBS MK-82이며 자체방어용으로는 AIM-9P 또 AIM-9L, 20mm의 510발을 장착할 수 있다.

F-16항공기는 GBU-10과 GBU-12와 같은 LASER로 유도되는 정밀무장과 Mavericks와 같은 TV로 유도되는 정교한 무장을 장착할 수 있지만 고위장교들과 조종사들은 이구동성으로 F-16항공기는 근본적으로 정확하게 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밀 무장의 필요성은 느껴지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F-16항공기의 무장투하 시스템은 2,000 LBS Pumpy Bomb를 Target 상에 30피트 이내로 계속 명중시킬 수 있으며 F-4 항공기로는 약 150피트였다. F-16 항공기는 전례한 번도 보유한 적이 없었던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 F-15항공기와 근본적으로 같은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고 5 공군 사령관 Charles L. Ponnely중장은 설명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군산에 있는 F-16조종사들은 복잡한 정밀 무장을 항공기에 장착하는 필요성을 유보한다고 했다.

“F-16항공기가 기본적으로 안정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고도의 정밀을 요하는 정밀무장은 크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8 비행단 부단장은 말했다.

바. TV유도무장

“우리는 Maverick을 사용해 보았지만 목표를 발견하고 Seeker로 Lock on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F-16항공기에게는 TV로

유도되는 무장은 별로 좋지 않다. 완전히 날씨가 청명해야 Lockon하고 발사할 수 있다. 적에게 노출되는 시간이 좀 많다”라고 Running대령은 계속했다.

“Maverick은 단좌항공기, 고속항공기인 F-16에서 발사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Lockon하고 발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라고 비행단 전술무장장교 Hardvel 대위는 말했다.

GBU-10이나 GBU-12 LASER 유도폭탄은 예를 들어서 철교같은 단단한 목표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Hardvel대위는 계속 말했다.

F-16항공기로서 이러한 무장을 투하할 수 있지만 군산기지에서는 이 무장투하에 대한 훈련이 없었다고 그는 말했다. 이러한 무장은 현재 가용하지 않지만 만약 한국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북괴의 단단한 군사적 목표물에 대하여 Turnel의 폭파시 F-16 항공기 임무에 유용할 것이라고 태평양 고위참모가 말했다.

만약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면 8 비행단 F-16항공기들은 깊숙한 후방차단과 적 비행장에 대한 공격을 하는데 사용되어지게 될 것이다.

사. 요격기지

북괴의 군사목표와 항공기 격납고, 그리고 요격통제기지는 산 밑에 굴을 파거나 단단한 암캐호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적어도 입구를 파괴할 수 있는”무장이나 Turnel Buster가 필요하게 된다고 미태평양

지휘관들은 말한다. 이러한 무장은 무기고, 연료저장고, 해변시설을 파괴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F-15와 F-16항공기와 마찬가지로 Fair Child의 A-10근접지원/대기갑 항공기도 작년 초에 한국에 전개하여 다른 모든 구형항공기들과 같은 가용률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작년 3월에 수원기지에 전개하여 작전하는 A-10항공기 대대인 제25 전술전투대대는 현재 창설 중이고, 아직 완전한 대대로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 대대에 대한 통계치는 나와있지 않다. 작년 12월에 마지막 6대가 전개됨으로써 26대의 A-10항공기로 창설단계에 있다. 대대에 증원될 조종사는 24명 내지 26명으로 1월 1일부로 작전가동 되도록 계획되었다.

아. 유 용 성

조종사들이 이 대대에 증원되기 전에 A-10항공기의 유용성과 가용률은 대대지속 훈련 동안에 항공기가 모자라기 보다 조종사와 정비지원 인원이 부족상태였다고 대대장교가 말했다. 이러한 지속훈련은 미 태평양 공군에서 주기적으로 훈련하는 것으로서 전쟁상황 Schedule에 따라 며칠씩 계속적으로 항공기와 조종사가 작전하는 것이다.

A-10항공기의 수원전개는 작년에 군산기지에 있는 F-4D항공기가 F-16항공기로 교체되면서 생기는 CAS능력의 취약점을 보강키 위한 것이다. F-4항공기의 주 임무가 CAS인 반면에 F-16항공기의 임무는 깊숙한 후방차단으로 지정되어 있다. 수원 A-10대대는 현존하는 대대의 비행기를 1대 1

로 교체하는 것 보다도 그동안 즉 활동하지 않았던 대대를 부활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F-4항공기가 수적으로 약간 감소 때문에 A-10도입으로 순수증가분은 A-10 10대 뿐이다. A-10항공기에 대한 새로운 시설은 현재 건축 중에 있으며 수원의 위치는 DMZ에서 남쪽으로 45마일 지점이다. A-10항공기의 한국에 전개는 "새로운 비행기에 새로운 임무에 새로운 기지"라고 오산기지 51전술전투비행단 단장 Thomas R. Olsen대령은 말했다. 한국에서의 A-10항공기 작전은 어떤 면에서 전통적으로 작전했던 절차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예를 들어서 A-10항공기의 기관포 특성으로 구니 사격장의 상당부분의 안전시설이 요구된다. 더구나 30mm탄이 조류로 침식된 땅을 치면서 튀어나가기 때문에 기관포 목표 자체를 보강하여야 한다.

한·미간에 A-10의 저고도 특성에 대한 비행훈련 절차는 합의되었다. 과거에는 700피트 이하에서 작전할 수 있도록 강조되었던 것 중의 하나는 A-10항공기가 대기갑 미사일을 장착한 헬기와 함께 JAAT의 개념은 최근에 육군과 공군의 협력으로 공중무기로 대기갑력을 파괴하는 것이다.

A-10항공기는 30mm GAU-8/A와 Mavericks으로 대기갑력을 공격제압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다.

한국수원기지에 있는 A-10조종사들은 완전 작전상태로 창설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한된 훈련을 하고 있다.

F-15, F-16, A-10항공기들이 태평양지

역에 배치됨에 따라 태평양 공군이 보유하고 있던 F-4C와 F-4D항공기들은 사라졌으며 다소의 F-4E항공기는 주임무가 공대공이고 2차임무는 '공대지 공격'을 하고 있고, F-4G항공기는 적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데, 그리고 RF-4C는 전술정찰임무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F-4항공기들은 여러 해 동안 더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항공기들에 대한 항법과 무장투하 능력을 보강하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이 계획 중 주된 작업은 Lear Siegler의 AN/ARN-101 Digital 항법장비와 무장투하 시스템이다. 이 계획은 여러 달 동안 진행되어서 현재 F-4대대들은 거의 완결단계에 있다. AN/ARN-101은 저고도항법과 무장투하 정확도에 있어서 현저한 개선이 기대된다. 이 시스템은 LO-RAN(Low-frequency Radio Navigation) Signal, 레이더, 항공기의 TRACK을 유지할 수 있는 TV영상과 수평, 각도, TOSS폭격에서 무장투하 할 수 있는 LCOS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대대 전체의 CEP를 개선시켰다”라고 클라크기지 제 3 비행단장 Jhon Corder대령이 말했다. 이 비행단은 F-4E와 F-4G대대복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적 방공기지를 찾아 파괴하고 무력화시킨다. “이비행단에서는 과거에 첫 공격에 목표를 파괴할 능력이 없었지만 AN/ARN-101를 장착하면서부터는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Corder대령은 말했다. 이 비행단은 창정비로서 F-4항공기의 75%가 AN/ARN-101보강작업이 이루어졌다. 보강작업은 올 봄에 완성될 것이다.

미태평양 공군 F-4대대는 이러한 AN/ARN-101보강작업에 병행해서 제한된 숫자의 Ford Aerospace사의 Pave Tack를 장착하고 있다. 항공기 외부에 장착된 Pave Tack으로부터 입수된 정보가 ARN-101시스템으로 전달되어 야간과 악기상 조건에서 보다 나은 위치와 무장투하의 정확도를 제공해 준다.

제 3 비행단의 F-4대대들은 임무비행 전에 조종사들에 의해 ARN-101에 사용할 수 있는 Cartridge에 비행계획을 수록할 수 있는 DTS(Data Transfer System)를 장착하고 있다. 그러나 이 DTS를 정비할 숙달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대대에 한 개씩 나가있는 Terminal을 약 6개월 동안 사용하지 못했다.

따라서 임무조종사들은 임무 전에 Power를 넣고 수동으로 항법과 Target자료를 수록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비슷한 Data시스템은 본국에서 민간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정비된다고 비행단 장교가 귀띔해 주었다. AN/ARN-101과 PAVE TACK보강작업에 추가해서 RF-4C전술정찰기는 Litton Industries사의 AN/ALQ-125전술전자적 정찰 Sensor(Terec)시스템을 장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최종적으로 지상에 있는 Station에 직접 DATA Link로 정찰정보를 보낼 수 있는데 이것은 UPD-4 Side Looking Airborn Radar와 Have Quick Secure Communication Radio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장비보강은 RF-4C항공기의 Stand off능력을 제 공함으로써 생존성을 증가시켰다.태평양 미

공군에서 정찰대대는 오키나와의 가데나기 지 제18전술전투 비행단에 위치한 제15전술 정찰대대가 있을 뿐이다. 한국지역에서 정찰요구에 응하기 위해 오산 비행장에 7대의 RF-4C항공기가 영구배치되어 있다. 과거에는 태평양 여러 지역에서 다목적 임무수행을 요구하기 때문에 제한된 항공기로서 정찰지원 문제가 있었다고 제18비행단장 Drew대령이 말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년 전부터는 동시에 2개지역 이상에서 작전할 수 없도록 인가되었다. 오산에 배치되어 있는 RF-4C항공기는 한국지역을 위한 임무수행을 하면서 동시에 가데나에서나 클라크기지에서 또 다른 정찰작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운영함으로써 대대에 허용된 임무준비와 가용률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됐다. 1980년 중반기로부터 서태평양 지역에 영구배치된 3대의 AWACS E-3A항공기는 태평양 공군을 보강하는데 기여하게 되었다.

현재 가데나에 배치된 E-3A항공기는 육군·해군·해병대 동맹국 공군들과 마찬가지로 태평양 공군부대들과 함께 작전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로 과거에는 없었던 어느 정도의 합동훈련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동시에 한반도의 동서 양쪽에서 2대의 AWACS가 북괴의 대부분 공역을 탐색할 수 있다.

또한 해군의 함대와 E-3A항공 기간에 Digital Data-Link를 통해서 정보를 교환함으

로써 E-3A항공기는 한국과 일본 해협으로부터 오키나와까지 공중과 해상에서 움직이는 항적을 실시간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또한 AWACS승무원들은 적 전투기들이 목표지역으로 진입해오는 항적에 대해서 경보를 제공해 주므로 지상에 있는 육군방공부대와도 작전해왔다. 이러한 절차로서 육군 HAWK미사일 대대는 자기배들의 Search Radar를 OFF함으로써 전기적 펄스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가 AWACS 승무원들로부터 경보를 받게 되면 항적이 미사일 발사 유효거리에 위치할 때 Acquisition Radar를 ON하여 SAM을 발사하면 된다. 가데나 기지에 위치한 AWACS대대는 태평양지역에서 우군과 실제적으로 Interface를 시켜왔으며, E-3A항공기들은 새로운 시스템과의 협력하는 노력에 도움을 줬다.

이러한 시스템은 해병대 레이더를 포함시켜 음성통신없이 해군 전투기들을 통제할 수 있는 Data Link시스템을 보강시켰다. 서태평양 지역의 제3세대 항공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E-3A항공기도 비교적 높은 신뢰성과 가용률을 보여 주었다. 각 AWACS 항공기들은 일주일(7일)을 기준으로 1일당 평균 소티 1.5~1.6을 해왔다.

평균 한 소티 시간은 약 9.5시간이지만 앞으로는 많은 소티가 한 소티당 11시간 이상을 비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1982년도에 임무 준비가동률은 95%였으며 임무준비율은 2.1%이었다.

無人航空機의 現在와 장래 (下)

윤 형 기 記

KZO

서독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 무인기는 적의 각종 지상목표물에 화력조종을 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AQUILA 무인기에 비하여 매우 정확한 목표물포착능력을 갖도록 하였으며, 레이저조명, 사향정찰 및 피해평가 등이 제 2 차임무이다.

다른 국가에서도 똑같은 분야에 대하여 노력을 하고 있음을 감안해볼 때, 국제간에 개발을 협조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AQUILA를 구매 및 라이선스 제작할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제반환경조건과 임무개념이 크게 다르다. AQUILA는 전세계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미육군에서 의도한 것이며, 따라서 체제가 복잡하고, 또한 서독 육군에서 개발을 시도하는 이 무인기에 비하여 매우 고가일 것이다.

서독의 개발회사들은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예비적인 연구를 하여 왔으며, 이와 같

은 각종 연구는 Dornier 및 MBB사의 개념 연구에 이용되었다.

MBB사에서 개발하고자 제의한 RPV는, TUCAN 무인기로 tail 부분이 작은 delta-wing 항공기로 중심의 변화를 조절하기 위하여 wing이 유동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Dornier 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무인기는 하중면적이 크고 안전성을 기한 delta-wing 항공기로 따라서 tail부분이 없다. 무인기의 configuration은 AQUILA의 configuration과 비슷하다.

KZO 무인기체제는 비행조종을 위하여 strap-down 항법장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비행조종체제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구는 임무수행 중 고도로 유연성을 기할 수 있고, 정확한 항법으로 비행하는 것이다.

동 무인기는 각종 비행지점과 비행로 및 고도 등을 사전에 프로그램 할 수 있으며, 지상유도 없이도 video image와 기타 정보를 전파하면 작전할 수 있다.

또 다른 개발장비는 sensor와 그 sensor를 RPV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장치하는 문

제와 비행조종 및 data 전파문제이다. 그 외에도 thermal imager는 TV카메라 보다도 더욱 효과적일 것이며, 이는 야간작전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AQUILA무인기와 같이 이 무인기에 사용될 sensor는 video sensor 외에도 laser illuminator/laser rangefinder가 될 것이며, 발사 및 회수체제는 개발상 어떤 모형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다.

KZO의 가격은 어떤 sensor를 사용하는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Jam-free data 전파장비와 비행조종장비도 또한 가격을 추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KZO RPV의 가격은 50만마르크 이상이 될 것이다.

ARGUS무인기와 같이 KZO무인기도 서독 육군의 정찰장비가 될 것이며 전반적인 체제가 통합될 경우에는 이 무인기체제는 1980년대 말경에 수적으로 우세한 적의 공격력과 교전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찰, 감시 및 화력조종능력을 서독 육군에게 제공할 것이다.

공중공격(Air Strike)

공중공격용 RPV(주로 공군임무용)의 개념은 이미 1970년대에 각종 연구에서 검토되어 원형기를 개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개념에 따라, 각종 폭탄과 미사일로 적의 잘 방어된 지상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재사용 RPV의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RPV는 초음속능력은 물론,

유인전투폭격기에 필요한 탑재체제가 필요치 않음이 유인전투폭격기와 다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개념은 수 톤의 중량을 수반하였으며, 수행하게 될 각종 임무는 RPV가 일부 대체하기 위한 임무였던 후방 차단/공격임무와 약간 다르다.

현재의 공중공격용 RPV의 개념은 대량으로 생산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 완전자동의 소형 소모용 체제를 기초로 하였다. 또한 각종 개념연구로 LOCUST 공격용 drone과 SUPERFLY mini-drone 및 PAVE TIGER와 같은 각종 무기체제가 이미 완전히 개발하게 되었다.

임무형태별로 볼 때 이미 취역하기 시작한, 재래식 탄두로 무장한 지상발사 순항미사일은 공중공격용 RPV와 일치하나, 공중공격용 RPV는 무인항공기와 미사일의 중간 영역에 속한다.

공중공격용 RPV의 개념을 기술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 구라과지역에서 어떤 전쟁이 발생하였을 때 전반적인 전략적 상황에서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공중공격의 개념을 간단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NATO에서의 지배적인 견해에 따르면, 바르샤바조약군의 전략은 대대적인 기습공격으로 C³I를 포함한 서방측의 모든 중요한 시설물들을 점령하거나 또는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서방국가의 방어를 위하여 요구되는 필요한 것은 최초 24~48시간 이내에 공격부대를 공격, 크게 손실을 가할 수 있는 능력과 C³I체제가 공격을 받게 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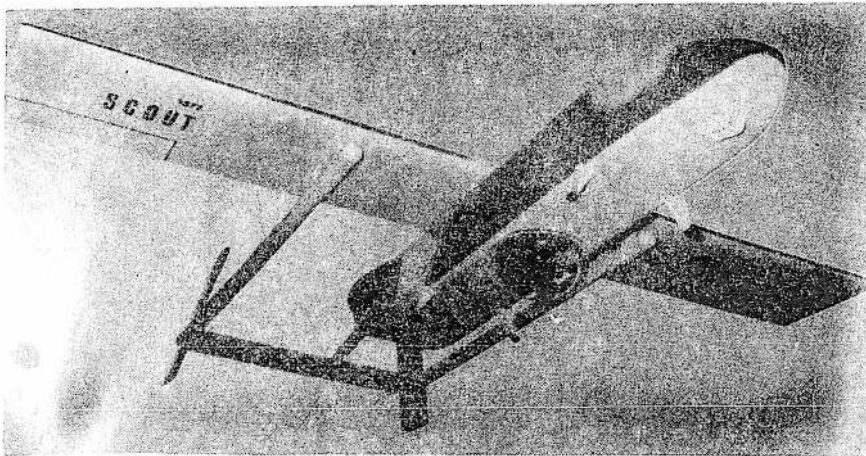
이므로 다른 C³I체제와 신속히 전개될 수 있는 각종 무기체제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데 있다.

이와 같은 조건은 LOCUST 종류의 무인 drone에서부터 GLCM에 이르기까지 각종 무기체제로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최대의 비용대 효과적으로 충족될 수 있다.

사정거리가 보다 길고, 보다 값비싼 GL

CM은 교량이나 항공기 보호용 shelter 및 이와 유사한 각종 중요한 목표물에 사용되어야 하고, mini-drone은 레이더 시설이나 C³I와 같은 많은 목표물에 사용되어야 한다.

전차공격용 drone은 불과 몇 발의 명중으로 밀집된 적의 진격로상의 전차에 큰 타격을 가하는데 적합할 것이다.



〈레바논 전쟁에서 큰 효과를 거둔 MASTIFF 무인기 Tadiran사에서 제작〉

LOCUST

LOCUST개념은 입증되었으며, 그 목적은, 유인항공기의 ID/S 임무의 모험을 크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적의 방공망을 제압하는 것이다.

고속으로 많은 무인기를 발사하였을 때에는, 피동 radar secker와 탄두로 무장한 이들 mini-drone은 거의 자동에 가까운 항법장비를 사용하여, FEBA선 너머 기계획

된 목표물지역으로 비행, 레이더사이트에서 방사되는 방사를 획득할 때까지 공중에서 배회비행한 후 공격을 한다.

무인기의 공격의 위협 때문에 레이더가 작동을 중지할 경우에는 LOCUST 무인기는 즉시 공중에서 다시 배회비행을 하면서 탐색하기 시작한다. 만약에 레이더사이트를 다시 포착하지 못할 때에는 가장 최후에 수신한 신호에 따라 공격을 한다.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서독-미국간에 체결한 1979년의 협정에는 연구 및 비용

을 50:50으로 분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탄두 개발은 General Dynamics사와 Texas Instruments사에서 개발하도록 계약을 하였으며, General Dynamics/VFW Fokker, Texas Instruments/Dornier 및 Teledyne Brown/MBB 등 3개회사팀에서는 RPV 그 자체와 체제통합을 완성하였다.

여러 회사에서는 개발계획에 그들 자신의 자본을 상당히 투자하고 있으나,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서독은 예산상의 이유 때문에 1981년 5월에 계획의 참여를 취소할 수 밖에 없었으며, 미국도 또한 계획의 참여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UPERFLY 및 PAVE TIG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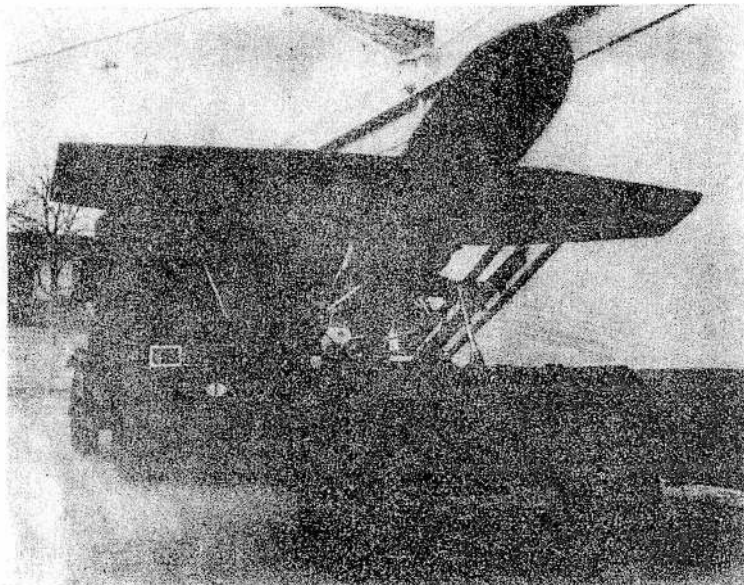
미국의 이 두 가지 계획은 LOCUST 와

똑같은 임무를 수행하며, 적의 C³I 체제의 공격을 목적으로 개발하는 무인기이다. 1982년 말 이후부터 PAVE TIGER 계획에 관한 간단한 각종 보고가 있었으며, 최초에는 Boeing사에서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현재에는 미공군에서 개발하고 있다.

신속 반응능력의 일환으로써, 그 전개의 목적은 유인전투기가 적의 중요한 목표물을 공격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각종 공격목표물은 적의 Jammer나 기타 방사원(source of radiation)이며, 이 RPV는 Boeing사에서 이미 비행시험을 하였다. 이 RPV의 익폭은 2.60m이고, 28hp의 piston engine을 사용한다.

이 무인기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성공함으로써 미국에서 분명히 재고하고 있는 것 같다.



〈MIRACH-20, mini-RPV, Meteor사에서 제작〉

최근현황(Current Status)

최근의 실정은 다음과 같다고 말할 수 있다.

- 이용되는 각종 중요한 기술
 - 염가기체구조
 - 각종 임무에 적합한 엔진
 - 각종 발사 및 착륙절차
 - 각종 control station을 포함한 지상 체계
 - 자동항법을 포함한 디지털방식의 비행조종
 - Data전송(적의 재밍에 구애 없이)
 - 각종 sensor
- 각종 전자부품의 소형화에 상당한 발전이 있어 왔으며, 그 가격 또한 계속 떨어지게 될 것이다.
- 여러 가지로 이용되고 있으나, 잠정적인 사용자들은 이를 서서히 받아들이고 있

으며, 대부분의 임무용 각종 장비가 이미 개발되었다.

○ mini-RPV/drone의 개발에 주로 역점을 두고 있음이 분명하다. 최대 100~120kg의 비행하중은 이제는 적합한 체제가 아니다. 그러나, mini-RPV/drone은 개발 및 생산하는데 가격을 가능한 한 가장 낮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없으며 따라서 대규모로 생산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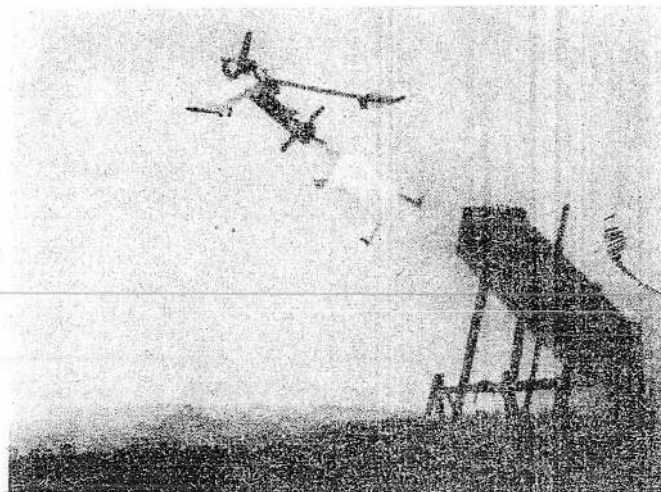
○ mini-RPV의 가격은 소모용체제는 2만불에서 6만불정도이며, 재사용체제는 15만불에서 50만불(하중에 따라) 정도이다.

○ 대형 RPV는 가격문제와 공중에서의 안전성문제 때문에 개발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적어도 구라파국가에서는 개발을 고려하지 않고있다.

○ 유인항공기를 대체하려고는 의도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예견할 수도 없다.

가까운 장래

무인항공기의 개발추세는 어떠한가? 이 문



LOCUST 무인기, MBB/Teledyne 사에서 제작목표 지역으로 접근, 레이더목표물 탐색, 파괴할 수 있음.

제는 무인항공기의 가장 중요한 임무와 그 특성을 감안하여 취급할 것이다.

각종 표적기로서 무인항공기

실제 목표물의 제반 특성과 거의 똑같이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같은 특성은 저고도 고속비행, 편대비행, 기동, ECM/ECM능력 등을 들 수 있으며, 정찰, 목표물 포착 및 화력조종임무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 체제나 또는 개발 중인 체제에 혁신적인 개발을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밀리미터파 레이더의 이용은 물론 전천후능력(야간은 제외)을 갖게 할 수 있다.

또한 자동화로 부분적 처리절차의 능률향상을 기하여 지상체제의 비용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다.

○ 유인항공기에서 발사한 무기에 화력조종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

○ 조종회로의 일부로써 인간이 계속하는 추세를 보일 것이며, 이와 같은 방법에서 전송되는 첩보는 똑같은 비행의 최적 지휘 및 통제에 사용될 수 있다.

공중공격(Air Strike)

여기에서는 고정목표물과 이동목표물간에 엄격한 구별을 하여야 한다. 최근에 와서 제1세대 순항미사일이 취역, 고정목표물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다음의 개발추세는 mini-RPV/drone에 관한 것이다.

- 고정목표물 : 이 목표물은 방사(radiate) 다.

가 문제시 되는 목표물로서, 따라서 미사일의 임무와 설계는 LOCUST미사일의 임무 및 설계와 유사하다.

이 무인기는 기체의 가격을 더욱 감소시키거나, 가격과 중량면에서 더욱 알맞는 엔진을 사용하거나 또는 특수임무용으로 탄두를 알맞게 하여 개조할 수 있다.

- 이동목표물 : 대량의 목표물과 교전할 수 있거나 서방측의 기갑부대나 현재의 정밀포가 갖고 있는 사정거리 보다 더 긴 사정거리의 무기를 개발하기에 앞서 바르샤바조약군의 제2제대와 같은 대량공격부대를 신속히 반격해야 하는 필요성을 사전에 감안하여야 한다.

LOCUST무인기와 가격이 거의 비슷한 대전차 무인기나 이와 유사한 무인기가 바르샤바조약군의 제2제대와 같은 대량공격부대를 신속히 반격하는데 가능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대전차 무인기는 많은 목표물들이 집결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비수색 지역에 전개될 수 있는 능력을 또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대전차무인기는 overkill (똑같은 목표물에 여러 대의 무인기가 같이 교전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방법은 물론, 적정감시비행과 목표물을 획득, 분류(전차 또는 추력) 및 측정/교전할 수 있는 특수한 sensor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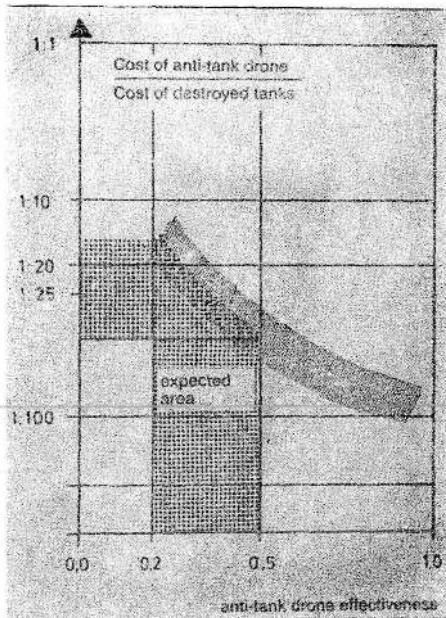
그 외에도 이와 같은 대전차무인기는 자동으로 작전할 수 있어야 하고 탑재컴퓨터와 목표획득용 sensor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Terminal phase용으로 가공할 수 있는 개념은 여러 가지의 개념이 있으나, 이 개념은 모두가 MLRS계획용으로 개발하고 있는 submunition(소형폭탄)의 기술을 사용한다.

음향탐지용 sensor와 같은 목표획득용 sensor를 사용하면 탄두는 목표 포착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밀리미터파 레이더를 사용할 경우, 탑재 sensor를 필요치 않는 다른 방법은 2~3개의 완전한 TGW(Terminally Guided Warhead)를 사용할 것이며 이때에 1대의 무인기는 상응하는 전차대수와 교전할 수 있을 것이다.

비유도 로켓과 같이 목표물지역으로 TGW를 발사하는 MLRS와 비교해 볼 때 앞에서 언급한 탑재 sensor를 필요치 않는 무인기체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점을 갖게 될 것이다.

○ 사정거리가 더 길고,



〈Cost exchange ratio〉

○ 자동으로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으며,
○ 보다 유연성 있게 비행조종을 할 수 있으며,

○ 목표물을 잘못선택하였을 경우에는 교전을 중지하고,

○ TGW를 투하하는데 매우 정확하게 투하할 수 있다.

각종 불확실성을 계속 수반하고 있는 현재의 입장에서 비용대효과면을 생각해 볼 때, 전차와 무인기간의 비용상태(변화)율은 앞의 도표와 같다.

ECM

RPV의 대표적인 각종 임무를 언급하였을 때, 여러 가지의 EW의 가능성을 언급하였으며, 여기에는 적의 방공제압, 기만(decoy) 또는 포화(saturation)와 같은 임무가 포함되었다.

이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최근에 개발한 무인기는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무인기이다.

대표적인 두 가지의 능동 ECM임무는 다음과 같다.

○ 적의 방공첩보체제를 포화시키기 위한 기만용 RPV(decoy RPV).

○ 적의 지대공 레이더체제의 탐색거리를 감소시키기 위한 radar Jammer, 예로써 거리 6km에서 250m의 고도로 비행하는 RPV는 불과 10^{-7} 의 출력을 필요로 하며, 이는 지상 30km 떨어진 거리에서 재밍한 출력과 같다. RPV는 FEBA선 훨씬 후방에서도 재밍할 수 있다.

방공(Air Defence)

무인기는 가까운 장래에는 missile, 대공포 및 전투폭격기로 구성된 최근 방공체제를 보충하거나 또는 대체하지 않을 것이다.

각종 방공임무, 특히 EW상황에서 기동성이 우수한 각종 목표물을 식별 및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동화되지 못하였으며, 또한 최신 기술로는 원거리 통제소에서 이와 같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미래의 전투기는 공대공임무의 일부로써, 각종임무를 충족시킬 수 있겠으나, 이와 같은 일부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한 RPV는 그 복잡성과 비용을 다소 감소시킬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방공용 RPV의 개발은 앞으로도 계속 연구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미래의 전망

끝으로, 무인항공기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동·서 양진영의 시나리오상에서 그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미래무기의 정의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mini-RPV에 역점을 둘 것이다.

조종사의 위험(Pilot risk)

조종사에게 많은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유인항공기로 많은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러나, 자동체제가 승무원의 사용을 고려하지 않을 때에는 기타 여러 가지 임무는 성공의 가능성이 높다.

생환성(Survivability)

mini-drone의 크기와 능력을 감안해 볼 때, mini-drone에 대한, 육안, 음향, 레이더 및 IR탐색과 그 명중률은 극히 낮다. RPV/drone에는 금속부품을 적게 사용하므로 radar cross-section이 아주 작으며, 최신기술인 stealth 기술을 사용하면, 유인기에 이 기술을 시용하였을 때 radar cross-section을 감소시킬 수 있듯이 각종 레이더신호를 더욱 감소시킬 수 있다.

RPV는 알맞는 비행형태로 비행할 수 있는 이점 외에도 여러 가지의 이점을 갖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비행속도가 느린점이 결점이라 하겠다.

유인항공기에 비하여, mini-drone은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수단과 실현조건 등을 감안해 볼 때, 교전시 명중률이 아주 낮으며, 그 자체의 가격에 비하여 가치성이 높다.

가격(Cost)

유인항공기와 무인기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 두 항공기를 직접 비교하는데에는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으나, 가격면에서 무인기가 이점을 갖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와 같은 이점은 조달, 운영요원 및 운영비면에서도 유리하며, 특히 연료비의 절감면에서도 유리하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성능 및 운영매개변수(performance and operational parameter)를 감안하여야 하며 두 정찰체제간에 가격 비교시 고려하여야 한다.

CL-89무인기는 군을 지휘 및 통제하는 데는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유연성 및 침투능력은 RF-4 PHANTOM에 비할 수 없다. 그러나, 무인기로 각종 임무를 충족시킬 수 있는한, 유인기에 비하여 가격의 이점을 갖게 될 것이다.

기술상의 발전

20년 전에는 기술상의 문제때문에 무인기의 사용을 계속 보류하여 왔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전자장비가 소형화되어 무인기의 개발과 여러 방면의 사용에 영향을 주게 됨으로써 그 경우가 다르게 되었다.

미군은 이와 같은 체제를 “힘의 승수(force

multipliers)”라 부르고, 또한 이와 같은 체제는 대체적으로 가격이 싸면서도 그리 복잡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많은 조작사를 필요치 않으면서도 수적으로 열세한 부대의 전투 능력을 증가시켜 준다.

결론

유인기와 무인기에 대해서 토의할 때에는 유인기의 완전한 대체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RPV를 사용하면 새로운 몇 가지 임무와 일부 기존 유인기의 임무를 충족할 수 있음이 분명하다.

기술개발에 상당한 투자를 함으로써 최신 기술이 개발되었으며, 이와 같은 최신기술은 미래에 계속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문제는 군 planner들이 기존 잠재력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제한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化学戰과 그防禦策

中尉 강 신 일 記

1. 化学戰의 概念

化学戰이란 敵 人員에게 살상이나 피해를 주기 위해 毒性化学作用劑(살상작용제)를 사용하는 戰爭形態를 말하며, 化学作用劑는 化学的 性質에 의하여 살상, 자극, 연막, 소이, 신호효과를 일으키는 固体, 液体, 気体を 말한다.

이 化学戰에 사용하는 化学武器는 毒가스, 發燃武器, 火염방사기 등으로 연막소이, 화염의 형태를 가지며 독성, 파괴성, 화학반응 등을 일으키는 무기를 총칭한다.

이러한 化学武器가 最初로 사용된 그 歷史的 실례를 찾아 보면 B·C 428년 펠로포니시안 戰爭 때 스파타군이 아테네군에 유황 및 비소 등 기타 가연성 물질을 사용했다는 기록을 찾아 볼 수 있으며 1차대전 때 1915년 4월 22일 벨지움의 이푸트戰鬪에서 독일군이 염소가스로 바람을 이용하여 5마일에 걸쳐 살포하였는데 그 效果는 놀

라와서 방어수단이 없었던 聯合軍側은 약 오천명의 死傷者를 냈으며 같은 해 12월 또 다시 독일군은 질식작용제인 CG(염소 및 일산화탄소와 함께 일광에 존재하며 쉽게 독성이 강한 물질로 化合되는 것으로 회랍어의 어원을 따라 phosgen이라고 부름)를 사용하자 연합군도 CG 및 겨자가스로 보복하였다. 이 겨자 작용제는 1936년 이태리군이 이디오피아군에 사용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 1980년 1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 신경작용제를 사용 세인의 경악을 사기도 했던 사실은 우리 기억에도 아직 생생한데 한 때 미국만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보유 하던 시절 소련은 이러한 군사적 불균형을 화학작용제로 메꿀 수 있다고 할 만큼 化学武器는 새로운 武器體系로써 대단한 위협을 주고 있다.

더구나 북괴는 1960년에 화학탄을 도입한 후 현재는 혈액, 수포, 질식 및 신경作用劑를 生産할 能力을 구비하고 있으며 소련의 武器體系를 도입한다면 280km까지의 標

的에 대하여 化学武器로 공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련을 위시한 적성국들이 보유한 포병탄약의 30%가 化学彈이라고 한다.

이렇게 볼 때 북괴의 화학전 수행능력에 대한 위협은 상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과 방호 대책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평소 訓練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化学作用劑의 種類 및 特性

화학작용제는 전술적 용도 및 生理的 作用에 의해 살상(독성화학)작용제, 무능화 및 자극작용제, 그리고 기타 작용제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작용제들은 궁극적으로 호흡기 계통이나 피부계통을 통해서 인체에 침입해서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데 호흡기 계통을 통해서 發生하는 効果는 노출량에 비례한다. 받은 노출량은 作用劑의 量 즉, 노출시 공기 속에 존재하는 작용제의 농도와 각개 병사의 노출시간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면 농도가 희박한 곳에서 장시간 노출되거나 농도가 짙은 곳에서 짧은 時間동안 노출된 것은 모두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그리고 피부를 통한 액체 작용제는 호흡기 계통보다 오래 걸리는데 피부에 땀이 나거나 심한 활동을 할수록 흡수비율은 높아진다.

가. 殺傷(毒性)作用劑

이 작용제로는 신경작용제, 수포작용제, 혈액작용제, 질식작용제가 있으며 사람에게 生理的 毒性 結果를 가지는 化学的 化合物質이다.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액체나

고체를 기화시켜 가스상태로 살포되며 이 살상화학작용제는 對人武器로써 현재까지 가장 빈번하게 써왔던 것이다.

(1) 신경작용제

이 작용제가 人体에 침입하게 되면 자율신경계통인 交感神經과 副交感神經의 균형을 상실하며 증상으로는 코홀림, 가슴에 압박감, 호흡곤란, 땀흘림, 구역질, 구토, 시력감퇴, 동공축소, 경련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하게 된다.

신경작용제의 代表的인 것으로는 GA(TABUN) : 급속살상작용제로 물리적 상태는 액체상태로 물과 서서히 반응하고 강한 산과 알칼리에 급속히 반응한다. 냄새는 순수할때 없으며 불순할 때 약간 달콤한 과일 냄새가 난다. GB(SARIN) : 무색무취의 액체로 치사량은 $100\text{mg} \cdot \text{min} / \text{m}^3$ 이며 치사량 노출 후 15분 내에 사망하는 급속살상작용제다. 이 외에도 GD(Soman), VX 등이 있는데 이러한 대부분의 작용제들은 흡입 후 1~2분 내에 급속히 증상이 나타나며 상처나지 않은 피부를 통해 침투될 경우에는 서서히 증상이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신경작용제는 무미, 무색, 무취한 작용제이다.

(2) 수포작용제

수포작용제는 눈이나 폐에 영향을 주고 피부에 수포를 形成한다. 이 작용제는 통증이 없는 작용제로부터 자극성이 있는 작용제, 흉터를 남기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작용제는 색이 없는 것으로부터 진한 갈색의 기름과 같은 액체로 되어 있으며 통상 증기 상태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수포작용제는 살상보다도 부상시킬 目的으로 운용하여 전투력을 상실케 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수포작용제는 주로 지속성 효과로서 방어시에 사용하며 적의 보급품, 시설, 장비, 자재 등을 사용 제한하기 위해 오염시킬 목적으로 사용된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겨자작용제로 H(Levinstein mustard), HD (Distilled mustard)가 있고 질소겨자작용제(Nitrogen mustard)가 있다. 액체상태이건 증기상태이건 간에 수포작용제는 内部 및 外部를 막론하고 접촉한 人体에 수포나 화상을 일으키게 한다. 피해정도는 노출시간, 활동정도, 기상, 작용제의 농도 및 형태에 따라 상이하다. 바늘끝만한 수포작용제 방울이라 할지라도 1인치 직경의 수포를 형성하며 겨자작용제의 저농도에 보호되지 않은 인원이 잠깐 노출된다 하더라도 살상을 당하게 된다. 어떤 겨자수포작용제는 냄새가 없는 반면 다른 수포작용제는 마늘이나 냉이와 같은 냄새가 나고 기타 수포작용제는 불쾌하고 자극성의 냄새가 난다.

(3) 혈액작용제

혈액작용제는 통상 가스나 증기 형태로 호흡에 의하여 체내에 흡수되어 인체 세포에 의한 산소운반을 방해함으로써 혈액순환기관 및 호흡기관에 해를 끼치게 된다. 증상으로는 두통 및 현기증, 경련이나 혼수상태에 빠져 결국 사망하게 된다. 이 代表的인 작용제로는 AC(Hydrogen Cyanid)와 CK(Cyanogen chloride)가 있으며 특히 AC는 액체의 급속살상작용제로서 Eichmann이 유

태인 육백만명을 살상할 때 사용하였다.

(4) 질식작용제

질식작용제는 폐에 상해를 줌으로써 호흡기 계통에 영향을 미쳐 기침, 질식, 가슴답답함, 메스꺼움, 두통 및 눈물이 흐르는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데 지연효과는 통상 2~4시간 후 각 개인이 모르는 동안에 發生한다. 질식작용제는 기체와 같이 무색이며 갓 베어놓은 풀과 같은 냄새가 난다. 이 작용제의 대표적인 것은 CG(phosgence)이며 1차대전시에 대부분 이 가스를 사용하였다.

나. 無能化作用劑

(1) 마비작용제

마비작용제는 일시적으로 신체의 일부기능을 마비시켜 사람의 定常活動을 妨害한다. 이 작용제의 代表的인 것은 BZ로써 사람의 定常活動을 방해하게 되는데 그 증상으로는 두통, 현기증, 졸음, 정신적 신체적 활동의 와해로 환각상태를 일으킨다.

(2) 心理作用劑

心理作用劑는 一時的으로 정신이상자를 만들어 환각, 환시, 환청, 妄想, 不安을 생기게 한다. 이 作用劑에는 LSD, Cannabis, Methedrine, Mescaline 등이 있는데 이 마비작용제와 心理作用劑는 요즈음 平和武器 또는 人道的 武器라고 해서 많은 關心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다. 폭동진압작용제

(1) 최루작용제

최루작용제는 눈의 점막을 자극함으로써 계속적인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작용제이며 호흡기계통을 자극하고 고농도일 때는 피부에 가려움증과 수포를 형성한다. 이 작용제의 代表的인 것은 CN(Chloroaceto phenone), CS(D-chlorobenzol Malonitlei)가 있다. CN은 사과꽃 냄새가 나는 固体로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연혼란작용제이다. 또한 CS는 후추같은 강한 자극성의 냄새를 지닌 액체로 기습공격시 20초 내지 1분이면 無能化시킬 수 있는 武器이다.

(2) 구토작용제

구토작용제는 비소를 中心으로 만들어진 화학물로서 전부가 고체이며 에어러솔로서 運用된다. 흡입하면 먹은 것을 토하게 하는 작용제이다. 증상은 감기가 들린 사람과 같이 콧물이 나고 구역질, 가슴의 죄임 등 증상이 나타난다. 代表的인 것으로는 DA(Dipheylchloroarisine), DM(Adamsite), 그리고 1918년 독일군에 의하여 만들어진 DC(Diphenyl Cyaroarsine)이 있다.

라. 기타作用劑

기타작용제로는 教育訓練用으로 개발된 教育訓練作用劑와 신호 및 연막효과를 위한 연막작용제 그리고 Napalm탄과 같이 높은 熱로서 施設, 裝備 등을 태우는 소이작용제가 있으며 對植物作用劑 및 對物質作用劑 등이 있다.

3. 防禦策

化学作用劑는 地上化学彈에 의한 포격,

航空機에 의한 폭탄 투하 및 살포, 탱크나 미사일 등에 의해서 에어라졸 狀態로 살포된다. 化学作用劑를 투발할 때 氣象條件은 化学작용제의 위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가장 效果的으로 運用할 수 있는 시기 및 조건은 통상 夜間, 이른 아침, 황혼무렵 또는 구름이 완전히 덮이고 바람이 잔잔하고 약할 때다. 그리고 평평한 地形은 울퉁불퉁한 지형보다 運用에 적합하고 지대가 높은 지대보다 낮은지대가 좋다.

그러면 化学戰下에서 적이 감행한 화학작용제의 존재 종류 및 농도 등을 어떻게 識別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방어와 戰力を維持할 것인가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우리가 이를 탐지하는 방법에는 五官에 의해 화학작용제를 탐지하는 주관적인 방법과 탐지기구를 사용하여 탐지하는 客觀的인 方法이 있다. 主觀的인 탐지방법은 탐지에도움은 되지만 절대적인 방법이 되지 못하므로 客觀적인 방법이 주로 사용되는데 이 방법은 침투보호의에 의한 보호 및 除毒여부를 결정해 주는 指針이 된 M_6 및 M_6A_1 탐지기를 비롯하여 M_7 및 M_7A_1 탐지크레용, M_{18} 화학작용제 탐지키트, G系列 작용제를 탐지할 수 있는 E_{41} , R_3 신경작용제 자동경보기와 장거리 경보계통인 전파탐지기가 사용되고 있다.

화학공격을 받기 전 지휘관은 要求되는 보호의 수준을 결정하고 부대원으로 하여금 보호의와 장비의 착용을 지시한다.

유독성 화학작용제 개인방호의 품목으로 방독면과 보호의가 있다. 방독면의 종류는

오늘날 국내에서 많이 보급되고 있는 M₉ 및 M₉A₁ 방독면과 최신형으로 미국이 월남전에서 사용했던 M₁₇ 방독면이 있다. 방독면 하나만으로는 호흡기 뿐만아니라 노출된 피부까지 감염되는 신경 및 수포작용제에 대하여 완전히 방어할 수 없으므로 몸 전체를 덮는 보호의가 필요하다.

각 個人은 化学武器공격시 즉시 다음과 같은 방어절차를 취한다.

- 숨을 멈추고 철모를 벗는다.
- 안경을 썼을 때 벗어 놓은 철모의 내부나 상의 주머니와 같은 안전한 장소에 넣어둔다.

- 防毒面을 着用하고 검사한다.
- 경보를 전달한다.
-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 해제 지시가 있을 때까지 계속 착용한다.

- 신경작용제 증상이 나타나면 아트로핀 주사를 맞는다.

각 個人은 다음과 같은 상황일 때는 자동적으로 防毒面을 착용한다.

- 야포, 박격포, 로켓트 혹은 항공기 폭탄에 의한 공격
- 항공기 살포공격
- 출처를 알 수 없는 연막 혹은 안개가 생길 때
- 의심스러운 냄새 혹은 액체가 있을 때
- 화학공격이 의심스러울 때나 화학작용제로 오염되었다고 알려졌을 때
- 무의식 중에 코를 흘리고 가슴 혹은 목

구멍이 막히거나 압박되는 감각이 느껴질 때, 시력이 흐려지거나 눈에 자극을 느낄 때와 호흡 곤란을 느낄 때 등이다.

만약 화학작용제의 영향에 의해 입을 수 있는 상해나 동시에 發生될 수 있는 다른 병을 막는데 필요한 응급처치 및 除毒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눈에 오염된 작용제는 오염되지 않은 물을 사용하여 코를 중심으로 좌우측 방향으로 씻어낸다.

- 피부는 M13 제독키트의 피부제독분첩이나 M258 피부제독키트로 제독한다.

- 신경작용제의 응급처치 약품으로는 아트로핀 주사, 안타도트, 옥심 등이 있다.

- 혈액작용제 응급처치는 아질산 아밀을 사용한다.

- 지휘관은 아트로핀 주사, M13제독키트 M258 피부제독키트 및 아질산아밀의 상태와 사용요령을 각개 병사가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적의 화학무기 공격을 받았다 고 생각만 하여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저들의 포악성으로 볼 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러한 무기를 사용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이러한 시점에서 전투태세를 다시금 점검하고 화학무기에 대한 피해를 최소로 줄이기 위해 방어에 대한 분석 및 훈련을 철저히 하고 전 장병을 망라하여 팀웍이 이루어져 필요한 탐지 및 제독장비와 약품, 보호장구 등이 충분히 확보되고 유지 관리되어야 겠다.

소련의 宇宙開發計劃

少領 尹 龍 鉉 譯

1. 서론

지난 5월 개최된 항공우주심포지움은 늦게나마 우주시대를 향한 우리 공군의 발돋움이었을 때를 같이 하여 공군대학 연구발전실에서는 “한국의 항공우주력 振作方向”이라는 책자를 발간함으로써 항공우주력에 관한 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더욱 고무적인 사실은 국내 최초로 공군사관학교에 항공공학과와 항공우주공학과가 분리 운영될 계획으로 있어 명실공히 항공우주력에 관한 의식을 우리 공군이 선도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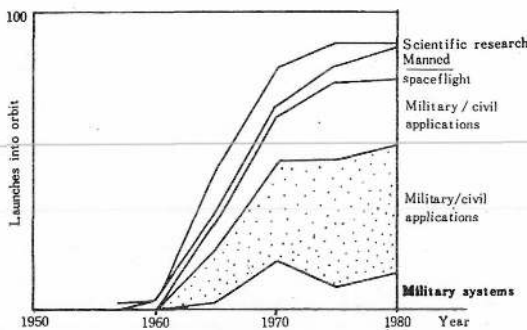


Fig. 1 : Analysis of the Soviet space program by payload category, showing how it is predominantly in support of military objectives.

이제 현대는 바로 衛星戰爭의 時代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소련의 우주개발 능력을 고찰해 봄으로써 소련의 우산 속에서 전쟁준비에 광분하고 있는 북괴가 이를 어떻게 군사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예측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세계 여러 나라 중 인공위성을 발사한 나라들에 대한 발사대수와 성공이나 실패에 관한 집계는 표 1. a. b와 같다. 이 중에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 목적과 군사목적의 한계를 명확히 구분할 수는 없지만 약 75% 정도는 군사목적으로 사용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특히 소련의 우주계획에 대한 자료는 매우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소련이 어느 정도의 규모를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하고 있느냐에 관한 사항은 더욱 획득하기가 어렵지만 몇가지 기준에 의하여 추정하여 보면 다음과(그림 1) 같다.

TABLE 1a -- Worldwide Record of Known Space Launchings*

Year	SUCSESSES							Payloads to Earth Orbit							Moon, Beyond	
	USSR	US	Japan	China	Italy	ESA**	India	USSR	US	Japan	China	Italy	ESA**	India	US	USSR
1957	2							2								
1958	1	5						1	5							
1959	3	10						9							1	3
1960	3	16						3	16						1	
1961	6	29						7	35							1
1962	20	52						25	55						4	1
1963	17	38						19	62							1
1964	30	57						37	69						4	2
1965	48	63						69	93						4	7
1966	44	73						47	94						7	5
1967	66	57			1			74	78			1			10	1
1968	74	45						81	61						3	4
1969	70	40						76	58						8#	4
1970	81	29	1	1	# #			98	36	1	1	#			3	4
1971	83	31	2	1	1# #			107	45	2	1	1#			8	7
1972	74	31	1		# #			106	33	1		#			8	3
1973	86	23						123	23						3	7
1974	81	22	1		2			111	27	1		2			1	3
1975	89	28	2	3	# #			136	30	2	3	#			4	4
1976	99	26	1	2				139	33	1	2				1	2
1977	98	24	2					125	27	2					2	
1978	88	32	3	1				138	34	3	1				7	4
1979	87	16	2			1		126	18	2			1			
1980	89	13	2				1	132	16	2				1		
1981	98	18	3	1		2	1	146	20	3	3		5	1		2
Total	1437	778	20	9	4	3	2	1928	977	20	11	4	6	2	79	65

* This table reflects those countries/organizations which currently have a space launching capability.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three other countries have successfully orbited payloads in the past. Britain made one successful space launch of a single payload in 1971 and had one failure in 1970. France had its own launch vehicle (Dismant) from 1965 through 1975, during which 10 successful launches of twelve payloads were made; there were two launch failures (three payloads). Australia made one launch of one payload in 1967.

** ESA refers to the European Space Agency.

Additionally, the United States sent one piece of debris to escape as part of an Earth orbital Mission.

Italy Launched is each of four years marked with this symbol a payload for the United States which are also included in the U.S. count, making a total of eight Italian launches and a total of 774 U.S. launches. The table makes no attempt to show separately other international cooperative payloads launched by the United States, the USSR, France, and Italy for 18 countrie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se launches and payloads are included in the data above.

CRS-19

TABLE 1b -- World Record of Known Space Launchings

FAILURES

Year	Launches							payloads to Earth Orbit							Moon, Beyond	
	USSR	US	Japan	China	ELDO★	ESA★★	India	USSR	US	Japan	China	ELDO★	ESA★★	India	USSR	US
1957		1							1							
1958		12							8							4
1959		10							9							2
1960	2+ ?	13						2+ ?	12						2+ ?	2
1961		12							12						1+ ?	2
1962		7							12						5+ ?	1
1963		8							11						2+ ?	
1964		7							8						1+ ?	
1965		7							7						2+ ?	1
1966		4	2						12	2					1+ ?	1
1967		3	1						4	1					3+ ?	
1968		3				1			15				1			
1969		1	1	1		1			1	1			1		2+ ?	1
1970		1	1			1			1	1			1		1+ ?	
1971		3				1			2				1		1+ ?	1
1972		2							2						1+ ?	
1973		2							2							
1974		1							2							
1975	2+ ?	3						2+ ?	4							
1976			1							1						
1977		2							2							
1978		1							2							
1979				1+ ?			1				1+ ?			1		
1980		2					1		4				3			
1981	2 ? #	1						2 ? #	1							
Total	187 ?	106	6	2+ ?	4	1	1	250 ?	134	6	1+ ?	4	3	1	22+ ?	15

★ ELDO refers to the European Launch Development Organization.

★★ ESA refers to the European Space Agency.

Two U.S. escape distance failures were Earth orbital successes; 20 Soviet escape distance failures were Earth orbital successes. Only the USSR and China do not report launch failures; therefore failures for these two countries have been estimated by applying the U.S. failure rate to their launch successes

totals; the only other Soviet and Chinese failures specifically noted are those which can be identified from official public sources. Failures of international cooperative payloads are included in the national totals shown above, and not listed separately by country or organization.

Defense Daily reported that there were two Soviet failures in 1981 (January 8, 1982).

CRS-20

2. 소련의 항공우주력 현황

지난 1957년 10월 4일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인 소련의 스푸트니크호가 발사 성공했을 때 당시 흐루시초프는 「外界로 향한 인간의 위대한 전진이 시작됐다」고 예언했다. 그로부터 4반세기가 지난 오늘날에 와서는 수 많은 무인위성과 유인우주선이 발사되는 가운데 미·소 양국은 서로 우주의 패권을 노리는 열띤 경쟁을 벌여왔다.

특히 지난 '76년 12월 포드대통령은 소련이 코스모스 970호로 위성파괴위성(헌터-킬러위성) 실험 소식을 듣고 「미국도 동일한 우주병기를 개발, 배치하도록 하라」고 지시하면서부터 미·소의 우주병기의 개발과 군사위성의 발전속도는 급격한 상향곡선을 그리게 되었다.

自國의 군사위성을 相對國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自國衛星의 궤도변경 및 순간적인 회피·기동수단을 강구하는 동시에 요격미사일, 킬러위성, 광선무기(레이저 등)의 실험을 통해 상대방의 위성을 선제 공격함과 아울러 自國衛星을 위협하는 적의 킬러위성을 공격하는 對衛星體系(Anti-Satellite System)의 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이와 같은 System을 발전시켜 적의 ICBM, SLBM공격을 대기권에 돌입하기 전에 우주공간에서 사전에 파괴시키는 전략용 대탄도탄 요격체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소련의 우주력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인공위성의 各機能別로 나누어 정찰

위성(사진정찰, 전자정찰, 해양탐색, 조기경보, 핵실험탐지), 통신위성, 항법위성, 기상위성, 헌터킬러위성 등에 관해 각각 간략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다.

가. 사진정찰위성

소련은 1961년부터 쏘아올린 저고도 궤도 위성으로부터 상당한 양의 사진필름을 회수한 것으로 판단되어 왔다. 이 저고도 궤도 위성들의 임무지속기간은 대개 13~14일 정도였는데 이 위성의 궤도와 임무상의 제반 특성을 분석해 보면 이 위성들은 2개의 주요한 암시를 주고 있다. 첫째, 위성의 임무지속기간이 13~14일이고 고도가 240~420km 궤도에서 비행하다가 종종 궤도수정이 실시됨이 관측되었는데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특별히 관심있는 지역에 대한 사진촬영범위(Coverage)를 확대하기 위한 것과 좋은 해상도(resolution)을 얻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두번째로 낮은 궤도로 지날 때는 항상 북위 35°와 55°사이에 위치하며 이 지역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해 볼 때 특수목표물에 대해서는 1일에 평균 2회씩 촬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소련의 정찰위성이 촬영할 수 있는 사진의 정확도는 20cm정도의 물체까지 정확하게 촬영할 수 있으며 차량, 건물, 장비 및 병력의 활동 등을 모두 확실하게 식별할 수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소련의 위성이 장착하고 있는 카메라의 유동성과 기타 영상장비 능력은 크게 향상되어

실시(real time) 영상자료를 지상에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이다.

나. 발사탐지위성

미국은 오래전부터 적의 탄도발사에 대한 조기경보를 위성관측에 의존하여 왔으며 소련도 이와 유사한 체제를 개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는 고고도의 타원형 반동위 궤도(Highly elliptical Semi-Synchronous Orbit)상의 위성체제이다. 궤도의 가장 높은 곳(high point)은 약 40,000km에 달하며 북대서양과 서태평양상에 위치하게 된다. 지구의 표면에서 볼 때 인공위성이 high point에 있을 때는 정지상태에 있는 것 같이 보이며, 북대서양의 high point에 있을 때에는 미국내의 ICBM 기지를 5~6 시간동안 관찰하여 소련으로 동시에 data를 전파할 수 있다. 이러한 위성들이 위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 궤도 선상에 9개의 위성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려는 위성의 거리에 따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 완벽한 체제를 갖추지 못해 최근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다. 전자정찰위성(ELINT)

소련은 ELINT위성을 이용하여 고출력레이다 송신기를 탐지, 식별 및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임무는 몹시 비밀리에 수행할 것이며 위성망은 관심지역을 커버하기에 가장 유력시되는

위성망은 경사도 81°, 고도 630km의 원형 궤도에 6개의 위성으로 구성된 위성망으로 추측되며 각기 궤도는 적도 평면주위에 60° 간격으로 거리간격이 유지되어 있다. 위성의 평균 수명기간은 18개월이고 이 위성망은 소련이 상당히 중요시 하고 있는 위성임에 분명하다.

라. 해양탐색위성(RORSATS)

소련은 레이더를 장착한 해양감시 위성을 전개하였으며 이 위성을 RORSATS로 알려져 있다. 이 위성은 위성의 강력한 펄스 레이더 신호로 해군함대 및 해양군사시설 위치를 쉽게 모니터 할 수 있으며 Swathe 폭은 약 400~500km로 평가된다(그림 2 참조).

이 위성들은 해양지역 상공에 대해서만 작동을 하며 해군 목표물을 탐지 및 위치 확인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실하다. 이러한 임무수행을 위해서는 목표물 data가 장거리용 대함 미사일을 장착하는 전함이나 기지로 전파되어야 한다.

이 위성들은 원자로를 사용하여 동력을 얻는 것으로 오래전부터 추측하여 왔으며 이는 Cosmos 954호가 캐나다 상공을 재돌입하다가 광범위한 지역에 우라늄 235의 파편을 떨어뜨렸던 1978년 1월에 확인되었다. 보통 수명종료시에는 핵반응로가 약 1,000km궤도까지 상승하여 그 궤도에서 약 500년 동안 머물게 되어 있으나 Cosmos 954호는 이것에 실패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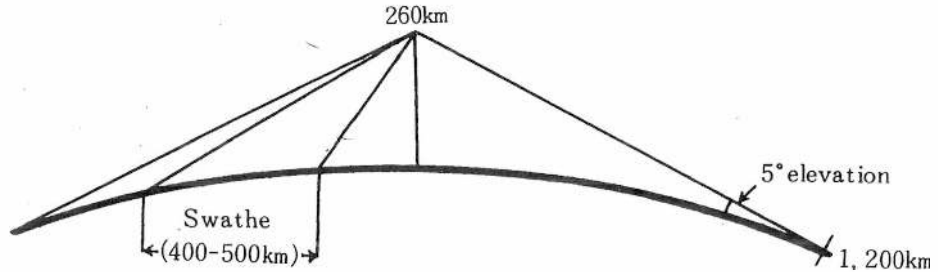


Fig 2 : The geometry of the observation process used by Soviet radar-equipped ocean reconnaissance satellites (Rorsats). the radar swathe and assumed down-link area.

마. 헌터킬러위성 (ASATS)

소련이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위성으로 궤도상을 선회하고 있는 적위성을 탐지, 추적, 파괴하는 것으로 소련의 위성공격용 체제는 저고도 원형궤도에서 목표물에 매우 효과가 있음을 오랜 실험을 통해 입증해 왔다. 대개 소련이 오늘날까지 사용해온 booster로는 그作戰高度가 160~1,500km에 이를 것으로 추측된다.

ASAT는 유도체제의 조종으로 그의目標物에 접근할 수 있는 궤도상에 위치하며, 약 400m/sec의 속도로目標物을 따라 비행하면서 근접거리에 다다르면 재래식 탄두를 파괴, 고속파편으로 목표물을 파괴시킨다(그림 3 참조).

소련이 오늘날까지 수행한 약 20여회의 실험에서 요격위성은 발진 후 1~2회의 선회로 목표물에 접근하였고 실험의 약 50%는 탄두 파괴단계에 도달하여 유도 및 조종의 우수한 정확도가 입증되었다.

또한 高에너지 레이저 武器體系를 이용 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地上基地體系와 宇

宙體系의 두 가지가 있는데 소련은 이 高에너지 레이저를 이용 지상에서 空中目標과 실험을 한 바 있으며 우주에서도 「살류트」 우주정거장을 이용 高에너지 레이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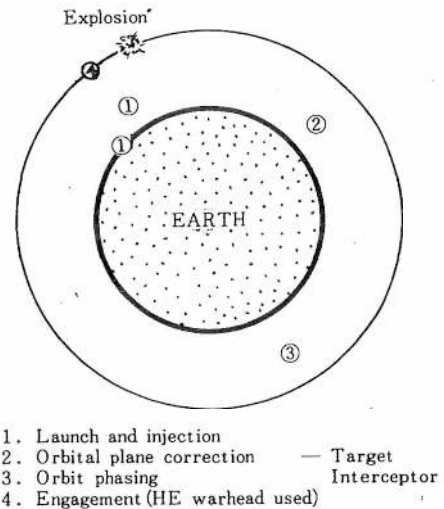


Fig 3 : Low-altitude anti-satellite intercept profile, as demonstrated by the Soviet Union in a long series of test.

위성파괴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바. 통신위성 (COMSAT)

통신위성 (COMSAT)은 전세계에 걸친 군작

전수행에 있어 효과적이고 필수적인 지휘·관리능력을 提供하는 위성으로 다음 그림 4와 그 궤도에 따라 3 종류의 각기 다른 통신위성으로 식별할 수 있다.

여기에서 소련이 최근 보유한 것으로 믿어지는 것은 해상도가 우수한 전자광학위성에 직접전송체계(real time data link)를 제공하는 능력을 보유하여 최신 사진정찰위성의 결함을 보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동안 관찰해 온 바에 의하면 심한 타원형 궤도에 위치해 있는 Molniya Comsat 가 대부분의 소련 통신교신 임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오늘날까지 총 51개의 위성이 비행하였다. 그러나 이 위성들은 지구궤도 비행 위성으로 대치하고 있으며 은밀한 작전 중에 사용될 수 있는 Power가 낮은 송신기의 각종 신호를 중계하기 위해서는 저고도 Comsat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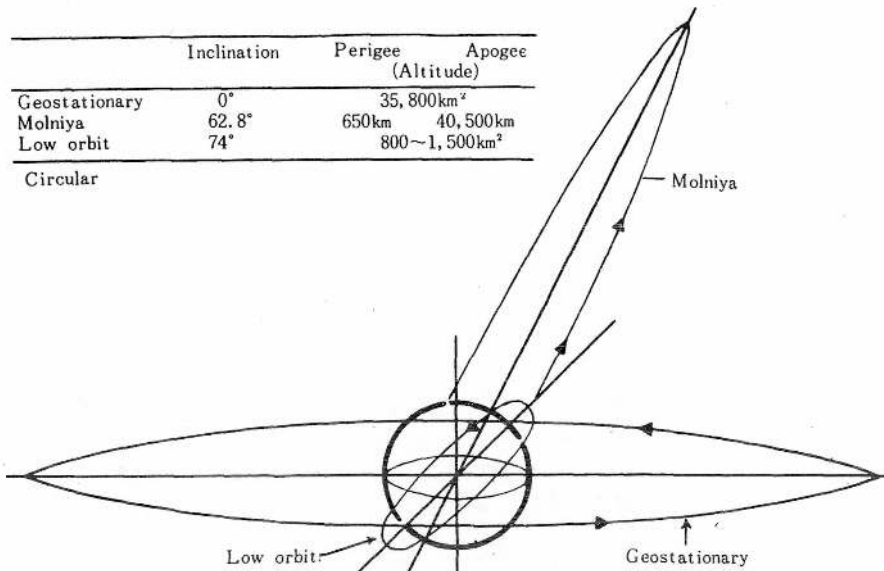


Fig 4 : Soviet communication satellite orbits.

사. 항법위성 (NAVSATS)

아군 및 적군의 항공기, 전함 등의 위치, 속도, 방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소련의 항법위성은 소련해군의 항법을 정확히 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미국의 Transit 체계와 크게 비교할 수 있으나 소련의 항법위성은 아직 미국이 구상한 18개의 NAVSTATS 위성 만큼 정확하지 못하다.

현재 미국의 항법위성은 민간이용자들을 위해서는 불과 200m까지 오차를 감소시킬 수 있고 군 이용을 위해서는 20m까지 오차를 감소시킬 수 있을 만큼 완벽하다.

아. 기상위성 (METSATS)

구름의 위치와 이동상태를 제공하는 것으로 소련의 기상위성으로서 METEOR 2 위성이 가장 대표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위성은 미국의 NOAA 위성과 거의 비슷하다. 언제나 4대가 경사도 81°, 고도 900km의 궤도에서 비행하면서 고·저해상도의 영상을 지상에 전송한다.

3. 유인계획 및 전망

소련의 우주 유인계획은 많은 군사적인 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육안관측 정찰방법과 카메라 사용 및 다중스펙트럼 전자 광학 Sensor의 이용은 이미 언급한 바 있으며 이 유인우주계획에는 각종 우주공간기술의 개발과 무인위성 궤도용 하드웨어개발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이와 같은 매우 광범위한 계획은 1961년에 시작되었으며 48가지의 임무가 포함되어 있고, 93명의 우주비행사가 궤도비행을 하였으며 소련인이 아닌 9명을 포함하여 61명이 참여하였다. 5개의 Salyut 우주 정거장이 발사되었으며 그 중 2개는 순수한 군사목적 임무를 띠고 있었다.

소련의 기술능력은 Salyut 6호가 임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확실하게 입증되었

으며 1977년 9월에 발사된 이 우주정거장은 16대의 Soyuz수송선에 타고 있었던 33명의 우주비행사들이 교대로 비행하였다. 이 우주비행사들 중 2 사람은 185일 간의 우주체공기록을 수립하였으며 그 중 한 사람은 전에 Salyut 6호를 타고 우주에서 약 1년간의 총 비행시간의 기록을 수립하였다.

이제 소련이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booster는 앞으로 소련의 우주계획을 크게 가속화시킬 것이며 따라서 몇 가지의 눈부신 발전을 예상할 수 있다.

82년도 이후부터는 전체우주개발비면에서 미국보다 30억불이나 초과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미국이 外界에서 군사적 주도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하면서 미국의 스페이스 셔틀에 대응, 약 1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항구적인 우주스테이션을 건설, 동 우주요새를 중심으로 각종 우주무기의 작전, 운용은 물론 여타 전략무기의 공격·방어작전을 지원하려는 최종적인 목표를 세우고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신교육 1문 1답〉

문 : 공산주의의 대표적 属性은 무엇인가?

답 : 공산주의의 최고속성은 배타적 당파성이며 또한 이에 따라 극단적 획일성과 파괴적 폭력성 등을 지니고 있다.

F-4 / PW 1120

Super Phantom

한 상 진 訳

〈군무사무관〉

1958년에 첫 비행한 이래 四半世紀에 걸쳐 美 海 · 空軍을 비롯하여 西方側陣營의 主力戰闘機의 자리를 지켜 온 Macdonnell Douglas F-4 Phantom도 1970年代 後半에 出現한 F-14, -15, -16, -18 등의 新 戰闘機群에 그 자리를 물려주고 서서히 第1線에서 물러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현재 美國에서는 이 不世出의 名機 F-4에 새로운 엔진과 裝備를 設置, 21世紀에도 通用되는 戰闘機로서 蘇生시키려는 計劃이 이루어지고 있다.

5,000機の Phantom

現在 全世界에서 사용되고 있는 Phantom의 數는 合計 5,179台的 많은 수에 이르고 있는데 그 内訳은 다음과 같다.

- 美空軍 2,541台(F-4E 824台, F-4D 757台, F-4G 116台)
- 美海軍 / 海兵隊 1,249台(F-4N / S 507台) 以上 美軍 3,790台
- 英國 185台(F-4K〈Phantom FG1〉52台, F-4M〈Phantom FGR2〉118台, F-4J〈發注

中〉15台)

- 西獨 273台(F-4F 175台, RF-4E 88台, F-4E〈美國에서의 訓練用〉10台)
- 日本 154台(F-4E 140台, RF-4E 14台)
- 터키 100台(F-4E 92台, RF-4E 8台)
- 그리스 64台(F-4E 56台, RF-4E 8台)
- 스페인 44台(F-4C 40台 RF-4C 4台)
- 기타 韓國, 이스라엘, 이란 등이 保有하고 있는 것을 합한 5,179台中 2,000台 以上이 西紀 2,000年 以後에도 사용될 것으로 推測되고 있다.

26歳の F-4

Phantom의 첫 비행은 지금부터 24년 전인 1958年 5月 27日이다. 就役한 것은 1960年 12月이기 때문에 25년간이라는 오랜 現役壽命을 가져 裝備도 시대에 뒤떨어진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J79 Turbo 제트엔진도 2世代 前의 技術水準의 것이며 電子裝備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機體의 維持費上昇

과 電子裝備의 旧式化에 對한 對策으로써 美國外의 使用國에서 近代化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電子裝備도 時代에 맞추어 近代化가 이루어져 왔으나 역시 部分的인 처리만으로는 最新技術에의 対応에는 限度가 있다.

한편 美國에서는 新時代의 Avionics 뿐만 아니라 엔진개발도 이루어져 왔다. F-15 Eagle에 裝備된 F100-PW-100(推力 10,810 kg)이 그 최초의 Series 이며 F-16에도 사용되고 있다. 이 엔진의 改良型 / 派生型인 PW 1120(推力 約 9,072kg)이 實用段階에 접근하고 있다.

Boeing社와 Plat & Whitney社は F-4의 電子裝備 近代化와 PW 1120 엔진으로 바꾸어 장비하려는 近代化 計劃을 세우고 있다.

한편 美國방성과 공군은 협동으로 이 F-4 근대화 Proposal을 받아 검토한 결과 Flight Demonstration 계획이 1984회계년도 계획으로서 승인되었다. 국방성은 공군에 대해서 15개월 이내에 Flight Demonstration계획을 시작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Super Phantom

本 計劃에 關해서는 가격, 기타 문제점은 남겨져 있으나 그것들은 後述하기로 하고 우선 개량의 내용 및 성능의 변화에 대해 소개하겠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Super Phantom은 전자장비와 엔진을 바꾸어 장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전자장비는

Boeing社가 담당하고 있다.

그 장비품목은

- Westing house APG-66 Radar.

이것은 F-16에 장비되어 있는 것이다.

- 말코니製 Headup Display (HUD).

이것도 F-16에 장비되고 있다.

- 하니웰製 慣性航法裝置 (INS).

이것은 「링·레이저 자이로」式인 최신식의 것으로 F-20 Tiger Shark에 사용되고 있다.

- 計器着陸 System은 現用的 F-4 벤틱스製의 것을 그대로 사용한다.

- TACAN(戰術航法裝置)은 현재 F-4에 사용되고 있는 Rockwell / 코린즈 ARN-118을 그대로 사용한다.

- F-4에 현재 사용 중인 Magna Box·Radio.

- 스페리製 Cockpit Display System. F-16C / D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 Central Air data Computer는 현재 F-4에 사용하고 있는 「말코니」社 製의 것을 그대로 사용한다.

- 「테레다인」製 Avionics Processor.

F-20 Tiger Shark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 Cockpit Management System에 대해서는 形式을 選定 中.

上記의 電子裝備는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実行決定時까지 더욱 검토가 가해진다. 새로운 전자장비에 의해 현재 개발 중인 각종 신호기의 사용이 가능해지는데 Hughes 社가 현재 개발 중인 AMRAAM (次期 中距離

空対空미사일)도 포함되어 있다.

엔진은 前述한 PW1120을 사용하는데 이 엔진의 空氣流量은 175~180 lb / 秒로 현재 F-4에 장비되고 있는 J79와 거의 같은 것이기 때문에 Air Intake의 개량은 필요치 않다. 상세한 내용은 아직 不明이나 연료탱크는 新規로 Conformal Tank를 설치할 것 같다.

Twin Nap

PW1120엔진은 추력 약 20,000 lb (9074 kg)로 현재의 J79보다도 약 3,000 lb (双発로 6,000 lb / 2,722kg) 높으며 반대로 엔진중량은 25%, 1,000 lb (454kg) 정도 가벼워졌다. 이 때문에 엔진의 추력 중량비는 55%나 향상되었다. 이에 따라,

- 機体の推力・重量比는 J79 경우의 0.76에서 PW1120으로는 0.92로 증가했는데 이것은 機動性能의 향상에 관제되는 요소이다.

- 主翼翼面荷重은 J79의 89 lb / ft²에서 PW1120으로는 85 lb / ft²으로 감소한다. 이것도 機動性의 향상에 관련되는 요소이다.

다음에 Super Phantom의 성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PW1120엔진의 比出力은 高度 15,000 ft, Mach 0.9, 1G 발생시키는데 있어서 530 ft / 秒, 5G에서는 50ft / 秒인데 현재의 J79로는 각각 402ft / 秒, -94ft / 秒이다.

- 瞬間旋回率: J79로는 13.5° / 秒인데 機體構造強度上的의 制約으로 PW1120으로 되어도 마찬가지이다.

- 維持旋回率: 高度 15,000ft, Mach 0.9

에서 10.5° / 秒가 되는데 J79의 경우는 9°로서 10% 정도의 향상이 되는 셈이다.

- 上昇率: J79 장비로는 海面上에서 毎分 41,300ft (12,588m) 였으나 PW1120의 경우에는 51,000ft (15,545m)로 23%나 향상된다. Power Up의 효과는 매우 현저하다.

- 加速性能에 대해서는 고도 36,000 ft에서 Mach 0.9~1.6 사이에서는 J79보다 18% 향상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機體構造의 근본적인 개량은 이루어지지 않으나 Boeing社は 胴体下部에 Conformal Tank의 新設을 계획하고 있어 外觀上으로는 胴体下面이 부풀은 形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 機外 스토아의 Pylon 등의 形狀을 변경할 계획도 있어 이들에 의해 저항의 감소, 항속거리의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Super Engine

여기서 Super Phantom 계획의 커다란 요소로 되어 있는 엔진의 개발에 대해 약간 언급해 두겠다.

미국에서는 超音速機用 新技術 엔진의 개발이 진행되어 F-15를 대상으로 하여 Plat & Whitney社가 개발한 F100-PW-100 Turbo Fan으로 완성하였다. F-100은 F-16에도 장비되었다.

한편 General Electric社は F404-GE-400이라는 명칭으로 같은 엔진을 개발하여 F/A-18 Hornet에 사용하고 있다.

F100 엔진이 現用 F-4에 장비하고 있는 J79와 비교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가를 간

단히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J 79	F-100
最 大 推 力	8, 120kg	10, 810kg
Military 出 力	5, 380kg	6, 700kg
重 量	1, 740kg	1, 370kg
推 力 重 量 比	4. 67	7. 89

결국 推力에서는 20~25%가 증가했음에도 重量은 반대로 21%나 감소하여 推力重量比는 1.7배가 되었다. 엔진内部의 空力特性의 改善, 材質의 改善, 엔진·Control System, 機械의 構造의 改善 등全般에 걸쳐 新技術이 採用되었다. Super Phantom에 예정되고 있는 PW 1, 120엔진은 F100을 기본으로 한 派生型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高压压缩機, 燃燒室, 高压터빈은 F100의 것을 사용하고 있다. 推力은 F100보다 낮은 20, 000 lb (9074kg) 級이다.

PW 1, 120은 部品の 面에서는 F100과 70%의 共通性이 있으며, 가격도 F100의 90%인 200만불 정도로 예정되고 있다. 현재 아직까지 試作段階에 있으며, 1983年 末까지 5台的 엔진이 1, 000시간의 Test를 完了하였다. 이스라엘이 개발중인 「라비」전투기에 사용되게 되어 있어 Flight Test用 엔진이 納入되는 것은 1984년 中으로 예정하고 있다. 量産엔진의 納入은 그 以後가 될 것이다.

Cost & Program

Super Phantom 개발에 대해서도 비용문제

는 예외가 아니나 本機의 경우에는 비용 뿐만 아니라 他機種과의 관련에서 미묘한 문제도 있다.

우선 엔진과 전자장비를 개량한 Super Phantom에서는 1機當의 改良費는 관련되는 모든 改良을 포함 700~900만불 사이가 될 것으로 試算되고 있다. 이것은 Boeing 社の 試算에 의한 量産 Base의 가격이다.

한편 空軍에서는 모든 改良을 한 F-4 1機當의 가격을 1, 700만불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으나 그렇게 되면 最新의 F-16 工場度 가격인 1, 300만불보다도 높아지게 된다. 1, 700만불이라는 숫자는 개발계획을 59개월로 늘렸을 경우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것이다. 여기서 새로운 F-16을 구입해 예산의 절대액을 줄일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으나 Boeing 社の 試算으로는 F-16보다도 훨씬 싸게 먹힌다는 결론에 旧式機의 부활을 피할까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다음으로 諸外國의 F-4 近代化의 원조를 한다면 上記의 国内事情과 비슷한 모순이 생긴다. 즉 미국에서는 현재 외국에 대해 F-16, F-18 등의 판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더우기 F-20이 판매전선에 가담하게 되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F-4를 근대화하여 장비한다면 이들 신형기의 수요를 줄이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 들어서 합의를 본 유럽협동개발의 차기 전투기 개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있다. 그러나 日本, 西独, 韓國, 이스라엘 등에서는 이미 독자적으로 근대화계획을 갖고

있으며, 미국이 손을 떼면 각자가 뿔뿔이 개별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다.

한편 실제로 근대화를 실시하여 延命을 하는 것은 미공군이 1,000台, 外國에서 800台 정도가 아닐까 하는 견해도 있어 그 정도라면 F-16 等の 需要에도 이렇다 할 영향이 없어 144억불에 달하는 판매전선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성립된다.

비용효과도 커다란 요인이 된다. 旧式化되어가고 있는 機體에 많은 비용을 들여 엔진, 전자장비를 개량하여 수지타산이 맞을까 하는 문제이다. 남은 機體壽命으로부터 Life Cycle Cost를 계산했을 경우에 충분한 비용효과가 없으면 안 된다. 이번 계획에서는 개발비로서 4,400만불이 들고 1기당의 개량비도 Boeing社의 試算 900만불과 미공군의 試算 1,700만불과의 사이에는 2배 가 가까운 차이가 있어 불안정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F-4의 경우 現用機의 平均年齡은 17歲로 Life Cycle Cost와 함께 機體構造 그 자체의 耐久性이 문제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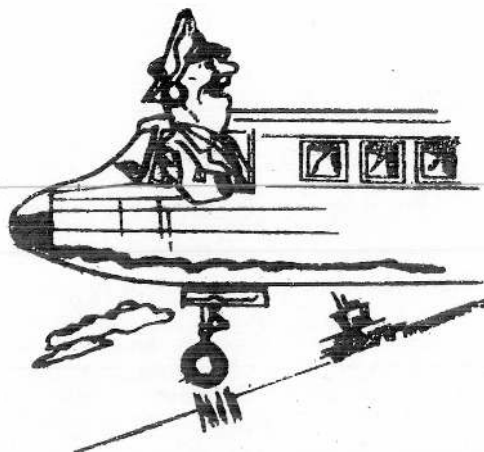
耐久성에 대해서도 두 가지 견해가 있다.

疑問視하는 의견과 아직 괜찮다는 의견이다. 예를 들면 F-100 Super Sabre는 21년간 現役に 있었던 점, F-105 Thunder Chief도 19년간 現役に 있었던 점을 事例로 들고 있다. 단 Super Phantom 改造가 계획대로 되어간 다 해도 F-4의 機體年齡은 20歲정도가 될 것이며, 遲延되었을 경우에는 22歲 정도가 될 염려가 있는 점에서 壽命의 面에서 문제가 꽤 복잡해질 것이다.

F-16, -18과의 競合, Cost, 機體壽命 等 複雜한 배경이 있는 만큼 Maker 側에도 複雜한 사정이 있었다.

当初 Plat & Whitney 社와 組를 짰 것은 F-4의 機體 Maker 인 McDonnell Douglas였으나 이 계획이 F-18, F-15와 競合하게 되었다. 그 後 Boeing과 Gruman이 전자장비에 競合하여 Boeing이 승리한 것이다.

공군은 재빨리 이 개발계획을 추진하여 다음의 「파리·에어쇼」에서 公開하여 여러 나라에 판매할 것을 꾀하려 하고 있으나,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그 경과를 지켜 보아야 알 수 있을 것이다.



美軍事衛星의 運用

崔 良 洙 訳

미국의 U-2기가 약 20년 전에 소련의 지대공미사일에 의해 최초로 격추된 이후부터 미국은 우주에서 소련을 감시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부터 미국은 오늘날의 대부분의 미국의 군통신 및 기타 주요 통신이 위성에 의하여 처리될 때까지, 우주에 대해서 군의 신뢰성을 계속 증가하여 왔다.

소련은 미국에 뒤지지 않기 위하여 미국보다도 그 규모가 상당히 큰 군우주계획을 추구하여 왔을 뿐 아니라, 공격 및 방어능력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소련문제 전문가들은 이 점을 염려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는 소련의 우주정거장계획을 들 수 있다.

소련의 우주정거장계획은 각종 군사활동에 그 목적이 있고 각종 무기의 Platform의 선구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한다. 더욱이 소련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위성공격용 무기체계(ASAT)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전반적으로 소련의 군사용 우주개발예산은 미국의 군사용 우주개발예산 보다 약 45%가 더 많은 것으로 추측되며 1979년에 소

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후에 페르샤만 지역에서 미국이 그의 국가적 이익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종 조치를 취했듯이, 우주에 대해서도 미국이 그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 비하여, 소련측에서도 우주에서 이니시어티브를 갖기 위하여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미·소양국이 우주에 대해서 이와 같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는 우주가 힘을 증대시킬 수 있는 도구로서 행동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은 군사위성을 통하여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는 각종 Data를 실시(Real time : 實時)에 계속 받고 있다.

수적으로나 화력면에서 우수한 미국과 NATO의 동맹국들은 군사위성으로부터 입수한 각종 첩보를 이용하여 공격시 신속히 그리고 보다 치명적으로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Reagan 대통령은 미국방성의 우주계획을 추진시키기 위하여, 약 85억불을 요청하였으며, 이 액수는 1982년에 인가된 62

역볼 보다 약 20%가 증가한 액수이며, 차
기 5년동안에는 보다 큰 비율로 경비가 소
요될 것이다.

각종 위협

서방측의 각종 우주자산에 대한 소련의
위협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와 같은 각
종 위협은, 핵무기의 영향과 지구상의 각
종 터미널에 대한 사보타아지, Jamming,
Command Link에 대한 송신기만 및 우주에
서의 물리적 공격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가장 해로운 위
협은 Jamming 방식이다. 소련은 매우 강력
한 전자교리를 갖고 있으며, 그와 같은 교
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체제를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전술군이 사용하고 있는 UHF 채널
의 미국 및 NATO군의 일부 군사위성들은
적의 ECM에 대하여 매우 취약하다.

소련의 ASAT는 수년간 연구개발한 위
성공격용체제이며, 현재 실험 중에 있다고
한다. 소련의 우주무기는 소련 국경선 내
부에서 발사된 후, 의도된 목표물의 궤도를
선정, 치명적인 공격거리 이내에까지 기동
접근한 후, 지상의 Controller로부터 지령
이 있을 때 폭발, 산탄을 이용 목표물을
무력하게 하거나, 파괴시키며, 현재 서방측
의 저궤도위성들이 이 무기에 취약하다고
한다.

최근의 화력시험에서, 소련위성의 신뢰도

가 크게 향상되었음을 보여 왔으며 공격의
시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Laser 무기는 아직은 최초 연구 및 개발
단계에 있기는 하나, 미국 및 NATO군의
위성들은 예상보다 더 빨리 이에 대한 각
종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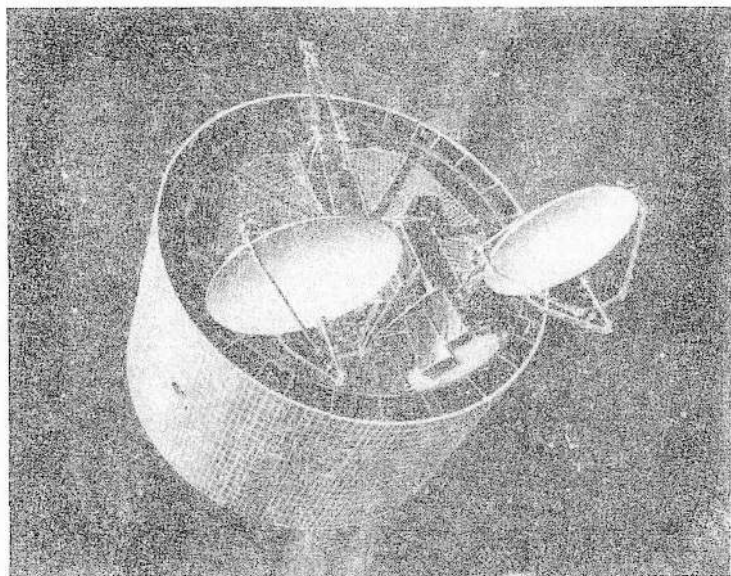
입수된 첩보에 의하면 소련의 레이저무
기의 개발노력은 1980년대 후반 중에 지
상, 함정 및 우주 등 광범위한 분야에 이
용, 그 능력을 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결정적인 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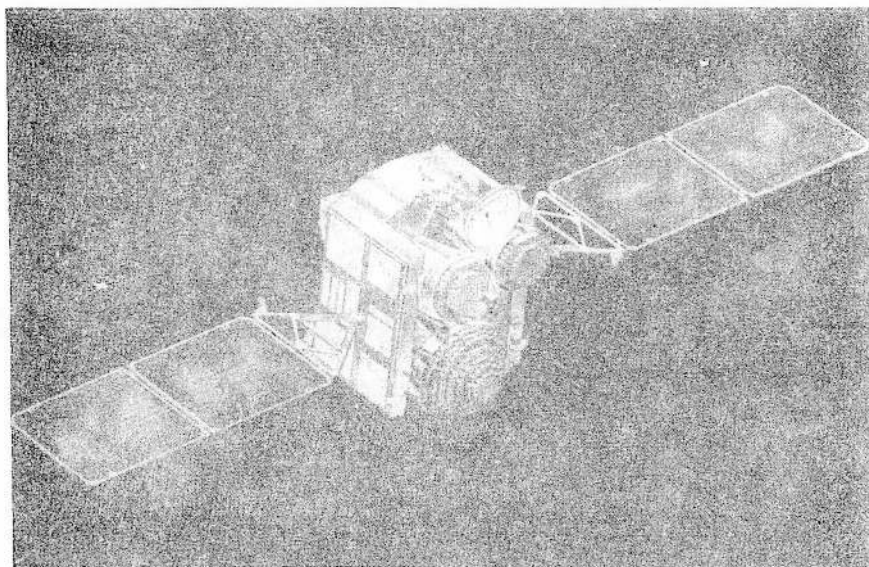
우주는 미래의 결정적인 전장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감안해 볼 때,
미국은 미국 및 NATO군의 우주자산의 생
환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
해서 미국 및 NATO군의 작전부대에 확실
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기 위
해서는 전시에 적소의 위성망을 지휘 및 통
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이다.

국가안보상 중요한 위성들은 무장하지 않
은 위성들로써, 이 위성들은 DSCS(군사용
통신위성)과 NATO III(NATO군의 통신위
성) 및 Fleet Satcom(해군용 통신위성)등
을 들 수 있다.

이 모든 위성들은 지구동위궤도상에 위
치하여 있으며, 소련은 1980년대 말경에 미
국의 이와 같은 위성들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추진발사시키기 위하여 대형의



〈궤도상의 DSCS 위성의 개념도〉



〈DSCS III 위성, DSCS II 보다 능력과 유연성이 크게 향상되었음〉

Booster를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미국은 완전한 새로운 군통신위성망(MILSATCOM)을 보충하고 있으며, 이 통신위성망은 장·단기 통신위성체제에 대한 전투 및 전투지원의 필

요성 때문이다.

이 군사위성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위성은 MILSTAR(Military Strategic Tactical and Relay System)가 될 것이며, 이는 각종 전술부대에 대한 통신지원은 물론,

National Command Center와 폭격기 및 잠수함부대간에 안전한 왕복통신을 중계하기 위하여 초고주파통신채널을 사용한다.

군통신을 위하여, EHF를 사용하면 극초단파위성통신망을 방해하는 핵폭파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MILSTAR는 실제로 적의 재밍에 방해를 받지 않는 우수한 성능을 갖게 될 것이며, 방수(傍受)될 통신망의 위험을 최소한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MILSTAR는 1980년대 중반에, 궤도에 발사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궤도에 있는 1개의 예비위성을 포함하여 4개의 작전위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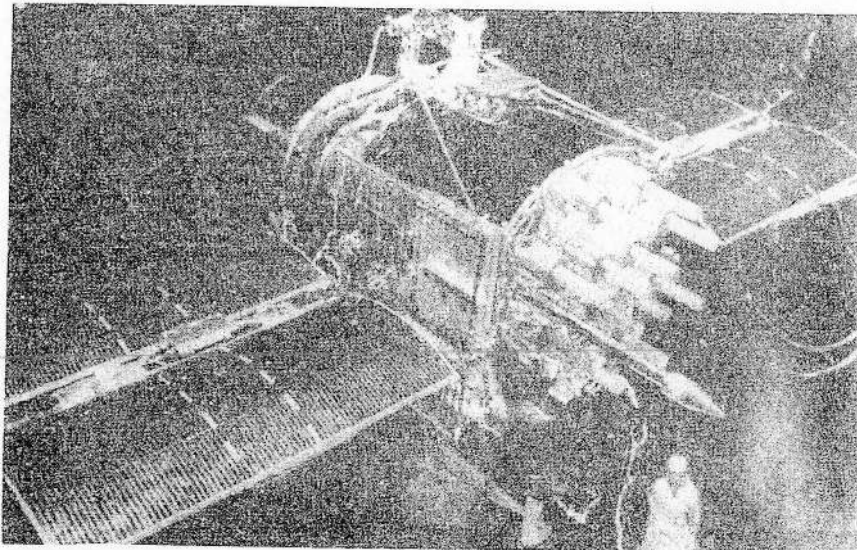
지상의 최소단위 이동부대에서부터 핵총사령관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MILSTAR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MILSTAR가 적의 심한 재밍환경에서 작전할 때

에는 전략군의 가장 효과적인 통신체제가 될 것이라고 미국방성관리들은 말하고 있다.

GPS(Global Positioning Satellite : 전 지구상의 위치확인 위성체제)는 생존성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위성을 사용하기 위한 최초의 위성체제이다. 정밀폭격 및 항법보조용으로 사용될 때에는, 1988년경에 가서는 GPS는 6개의 궤도에 18개의 위성으로 구성될 것이다.

DSCS(Defense Satellite Communication System)는 4개의 위성과 이 위성 중 어떤 위성이 고장이 나거나 파괴되었을 때 이를 보충하기 위한 우주에 있는 2개의 스페어 위성으로 구성될 것이다.

MILSTAR 및 NAVSTAR를 제외하고,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의 임무를 대표하여 운영되고 있는 중요한 군사위성들은 DPS(Defense Support Program : 미사일공격을



〈시험 중인 NAVSTAR/GPS〉

경고)와 Teal Ruby(항공기 및 ICBM을 탐지하기 위하여 사용), DSCS II 및 III(Defense Satellite Communication System: 전 세계의 군지휘 및 통제체제와 군사령부 및 기타 기관을 위한 주 data원(源)), 극초단파위성체제(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극비의 첩보를 전파하도록 설계) 및 MARISAT(해양통신위성) 등을 들 수 있다.

미공군은 생존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성통제를 포함한 각종 신호를 수신 및 전파할 수 있는 주요 통신기관을 분산시키고 있다고 한다.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특히 해외사용자들의 고정기지의 의존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교차궤도중계소를 설치하기 위한 계획이 추진중에 있으며, 많은 이동지상중계소를 설치 중에 있다. 이들 중계소들은 고정지휘 및 통제기지들이 파괴될 때에 중계기능을 인계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위성공격용 무기(Anti-Satellite Weapon)

미국은 미국 자신이 ASAT(위성공격용위성)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밀시하고 있지 않으며, 이 무기는 곧 시험용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하며, 미국의 ASAT무기개발계획은 군축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미국의 무기체제는 Rocket Booster를 사용하는 단거리 공격용 미사일과 비핵탄두

를 무장한 소형 Homing Vehicle로 구성될 것이다. 이 무기체제는 고고도에서 비행하는 F-15에서 발사될 것이며, 탄두는 위성과 충돌하여 저고도를 비행하는 소련의 위성을 파괴할 것이다.

미국도 또한 소련과 같이, High Energy Laser 무기개발계획에 자금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 계획은 미국방성의 가장 중요한 R & D 노력 중에 해당하는 노력이라고 한다.

미국방성은 이미 10억불 이상을 사용하였으며, 1987년을 통하여 Laser 무기개발에 추가로 10억불을 투자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한다.

우주기지용 Laser 무기가 1990년대 이전에 사용될 경우, 일단 작전화된 후에는 최초로 ASAT 무기로써 대대적으로 사용될 것이지만, 이 Laser 무기가 과연 1990년대 이전에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한다.

Laser 무기에 파괴력을 제공할 방사에너지의 집중빔은 적 위성의 주요한 부분을 파괴할 수 있고, 적 위성의 금속표면을 약하게 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적의 Killer 위성의 폭발물을 점화시켜 파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미국은 또한 또 다른 종류의 우주기지용 Laser 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전세계에 있는 미국 및 그의 동맹국 잠수함사령관들은 이 무기를 크게 환영할 것이라고 한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최소한 탐지될 위험은 있기는 하지만 우주에서 전·후방 작

전부대에 있는 잠수함과 통신이 가능할 것이다. 두 종류의 체제를 위한 기술이 연구 중에 있으며, 계속 진행여부는 1985년 중엽에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은 생존성이 있고, 필요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연구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ASAT 무기의 신속발사반응개념은 소련에서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개념이다.

전반적으로 소련의 우주기술은 미국의 우주기술을 모방한 것으로, 그 예로써 소련의 위성들은 대부분이 체공시간이 짧은 주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소련이 오늘날까지 발사한 소련의 군사위성의 발사수가 1,500개임에 비하여, 미국이 발사한 수는 이 발사수의 절반도 안 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소련의 위성이 적합치 못함을 설명하여 주는 것이라고 한다.

소련은 ASAT를 작전운용하고 있으나 미국의 ASAT는 소련의 기술 보다 수년 앞서 있다고 한다. 미국은 소련이 서방세계에 대하여 목표로 하고 있는 소련의 궤도 비행폭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1960년대 중엽에 ASAT 무기를 전개하였으나, 이 무기체제가 핵탄두를 장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1970년 이전에 철수시켰다.

취 약 점

미국과 NATO의 위성들이 얼마나 취약한지 현재 알 수 없으며, 이는 심각한 문제

가 아닐 수 없다.

소련의 장성들은 전시에 서방측의 정찰 및 C³I 능력을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소련의 ASAT의 능력을 계산할 수 있을 정도까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

미·소의 저궤도위성들 핵 및 핵공격의 폭풍효과에 취약할 것이다. 1960년대의 미국의 ASAT 무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의 하나는 만약에 이 무기가 사용될 경우에는 미국의 위성도 소련의 위성이 조우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방사 및 전자적 펄스의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1960년대 초에 미국은 대기권 밖에서의 각종 핵무기실험을 실시하였으며 대기권 밖에서 핵무기가 폭발할 때 핵의 영향으로 미국의 일부 위성들이 피해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위성의 성능은 다소 감소되었지만 크게 파괴되지는 않았다. 그 당시의 위성은 보호할 수 있는 강한 특징은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오늘날의 미국의 위성에 비하여 상당히 조잡한 편이었다고 한다.

적도와 지구동위궤도상에 있는 미국 및 NATO군의 군사위성들은 앞으로 수년동안은 대체적으로 안전할 것 같다고 서방측의 대부분의 방어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각종 비핵무기를 사용하여 고궤도상의 위성을 격추 및 파괴시키는 일은 그리 간단하고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

목표물은 소형이고, 먼거리에 떨어져 있으며, 우주는 인간이 만든 각종 물체의 거대한 배진(Array)으로 흩어져 있다. 우주의 목표물을 공격할 때에는 맨 처음 목표물을 발견하고, 그 목표물의 특성을 부여한 연후 지상기지의 Sensor의 질에 의존 목표물을 추적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 때에는 목표물을 명중시키기 위해서나, 목표물에 가까이까지 가도록하기 위하여 매우 정확하게 사격을 지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소련의 우주무기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방어수단은 미국 및 NATO의 위성들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며, 현재 어떤 종류의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미국은 적의 재밍에 위성의 취약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연구작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DSCS III 및 NAVSTAR를 포함한 차기 세대의 정찰 및 통신위성들은 현재의 위성들 중에서 적의 재밍에 가장 우수한 저항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한다.

미래의 추세

미국과 NATO국가들 간에는, 군사적 우주모험, 특히 발전된 상호운영 및 재밍저항 능력면에서 더욱 협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지상지휘센터에 대한 신뢰성을 계속 증가시킬 것이다.

미국은 머지않아 차기 세대의 ASAT 무기에 대한 연구를 시작할 것이며, 미국의

차기 ASAT 무기는 우주에서 수천마일 떨어져 있는 소련의 지구동위궤도상에 있는 군사위성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우주기지용 Laser 및 입자빔무기와 같은 보다 가공할만한 무기도 적어도 약 10년 후에는 개발될 것이며, 이와 같은 무기들은 사실은 21세기의 무기들이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소련이 기대이상으로 더 빠르게 우주기지용 레이저무기를 궤도에 발사한다 하더라도, 이 무기가 미국 및 NATO군의 전략군을 실제로 무력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의심스럽다고 한다.

궤도를 비행하는 우주전투정거장은 매우 취약할 수 있고, 그 중 어떤 것은 맨 처음에 공격을 받게 될 목표물이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체제를 우주에 전개 및 배치시키는데 필요한 비용을 감안해 볼 때, 미·소 어느 한측도 그와 같이 막대하게 투자하여 손해를 보는 모험을 하지 않을 것 같다.

물론, 이미 전개된 수백개의 ICBM 미사일을 전개시키는데는 수십억불이 소요되었으나, 우주정거장이 언젠가 전개될 때 다소의 취약점을 갖게 되듯이 ICBM도 취약점은 갖기 마련이다.

미·소가 우주무기경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듯이, 분명히 양대국이 우주에서 무기경쟁을 하고 있음이 사실이라면, 미국 및 그의 동맹국들은 소련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게 될 것인지, 또는 불리한 입장에 있

게 될 것인지는 이구동성으로 관심있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서방측 특히 미국은 미군이 세계 각처에 광범위하게 전개되어 있기 때문에 소련보다도 더욱 군사위성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미국 및 그의 동맹국들은 소련보다도 더 많은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소련이 미국과 우주무기 경쟁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 시도하여야 한다고,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둘째, 기존 우주기지용 자산, 특히 공격 체제는 위기에 극히 위태롭게 될 수 있다고 하며,

셋째, 전면적인 우주무기개발계획을 지원하는 비용이 막대하고, 현재 사용한 액수를 훨씬 초과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서방측의 경제능력은 이와 같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계획을 추진할만한 충분한 재정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우주에서 적을 공격할 수 있다는 생각에 쉽게 매혹될 수 있으나, 그 결과를 측정하기에는 장기간이 소요된다.

소련은 우주무기개발금지협정을 제의하여 왔으나, 미국은 지금까지 이를 수락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소련의 이와 같은 제의가 진심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소련은 우주무기개발을 금지하자고 제의한 것과는 달리 우주무기개발에 기금을 투자하여, 적극 개발하고 있으며, 소련의 이

와 같은 움직임으로 미루어 보아, 미·소 양대국은 앞으로 최신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주는 꼭 지배하여야 하는 군병기고와 같은 곳이라고 한다.

소련은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각종 주도권을 가져 왔음이 최근 소련의 각종 계획에서 분명히 찾아볼 수 있다.

25년전, 소련은 최초로 Sputnik를 궤도에 발사하였으며, 이는 중대한 그리고 세계를 깜짝놀라게 하였던 우주경쟁시대에 돌입하게 할 수 있는 기술적 목적을 달성한 것이었다.

미국의 방어계획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과거의 교훈을 잘 알고 있으며, 차기 소련이 우주에서의 기습은 25년전의 기습과 같이 평탄하마는은 않을 수도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은 두려워 하고 있다.

우주는 국가안보에 극히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우주의 범위(구역)가 공식적으로 구획될 때까지는 미국은 선택권을 갖고 있지 않으며, 우주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갖고, 필요에 따라서는 우주에서 적과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미국의 방어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최근에와서 최신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하였으며, 따라서 우주무기의 발전도 어제오늘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미·소 양대국이 우주정복을 위해서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는한, 차기 우주전은 지대한 관심이 아닐 수 없다.

忠義의 勇將 金就礪將軍

金就礪는 언양사람인데 매우 검소하고 정직했으며 忠義를 스스로 간직한 고려 고종 때의 將軍이었다. 禮部侍郎 김부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음관으로 正尉에 임명된 후 東宮衛를 거쳐 장군이 되었다. 그는 군사 거느리기를 엄정히 하였으므로 군사들이 그를 존경하고 따랐다. 술이 있으면 술잔 하나를 가지고 맨 아래에 있는 군사와도 더불어 똑같이 마셨다. 그러므로 군사들은 장군의 명령이라면 草芥같이 버릴 수가 있었다. 그는 군사들과 동고동락함으로써 군사의 힘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는 개평의 싸움에서는 中軍兵馬使 노원순을 두 번이나 구하였는데도 그가 사현의 싸움에서 적의 기습을 받았을 때 위급함을 알렸으나 노원순은 돕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아 험극을 내지 않았으며, 그 공로를 자랑하지 않고서 여러 사람들에게 공을 돌렸다. 뿐만 아니라 江東의 싸움에서는 모든 일을 元帥 趙冲에게 사양하였으나, 싸움에 임하여 적을 제압함에 있어서는 기이한 계교를 많이 내어 큰 공을 이루었다. 그러나 한 번도 스스로 자랑하는 일이 없었다.

13세기 초, 元나라의 태조 징기스칸이 金

나라 정벌의 싸움을 일으키자, 만주 특히 요동지방의 정세는 혼란에 빠지고 그 영향은 곧 고려에 미치게 되었다. 야율유가(耶律留哥)에 인솔되어 재빨리 금나라에 모반하였던 契丹族이 그 후 저회끼리의 분쟁으로 말미암아 몽고군에게 요동지방에서 쫓겨나 고려에 침입하여 전후 3년 동안에 충청도·전라도·경상도 지방을 제외한 북방 일대를 유린하였다.

묵장(墨匠) 들판에서의 契丹軍 擊退

1216년(고려 고종 3년) 8월이었다. 거란의 金山·金始 두 왕자의 군사가 삭주(朔州)를 침범하니, 장군 노인유(盧仁綏)가 성을 버리고 도주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노원순을 中軍, 오응부(吳應富)를 右軍, 김취려를 後軍의 3군兵馬使로 삼아 거란군을 방어케 하였다.

이때 적병은 이미 영덕성을 도륙하고 나아가 安州·義州·龜州를 포위하였으며 또 인주·정주의 경계로부터 와서 철주·선주 등으로 침공해 왔다. 그러나 3군이 連州에서 거란군을 공격하여 패주시키고, 또 귀주와 延州싸움에서도 모두 패주시켰다. 거란군은 開平驛에 군사를 집결하여 진을 쳤다.

이때 오응부가 이끄는 우군은 西山 기슭에 웅거하고, 노원순의 중군은 목장의 들판에서 거란군과 마주치자 약간 후퇴하여 독산에 진을 쳤는데, 후군을 이끌고 있는 김취려는 칼을 빼어 들고 말을 채찍질하여 장군 기존정(奇存靖)과 더불어 곧바로 적진을 치고 들어가 맹공하니 적군이 크게 무너졌다. 노원순이 김취려에게 말하였다. 「적군은 수가 많고 우리는 적은데다가 우군마저 오지 않고 또 당초에 가지고 온 사흘 동안의 양식도 지금은 이미 다 떨어졌으니 후퇴해서 연주성에 웅거하여 뒷날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소. 그러나 김취려는, 「우리의 군사가 여러 번 승리를 거두어 투지가 아직 왕성하니 그 예봉을 타서 한 번 싸운 뒤에 다시 의논합시다.」라고 대답하였다. 목장의 들판에 포진한 적의 위세가 매우 왕성하므로 노원순이 김취려를 급히 부르며 검은 깃발을 흔들며 신호하였다. 김취려는 즉시 군사를 이끌고 적진을 향하자 군사들은 적진의 번쩍이는 칼날을 무릅쓰고 다투어 달려들어 한 사람이 백명을 감당하지 않은 자가 없었다. 김취려가 이끄는 군사에 의해 적병들은 바람에 초목이 쓸리듯이 쓰러졌다. 김취려는 세 번 싸워 세 번 모두 이겼는데, 이 전투에서 큰 아들이 전사하고 말았다. 이처럼 후군병마사 김취려에게 목장의 들판에서 크게 패한 거란군은 묘향산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3군은 패주하는 적을 추격하여 2천 4백여명을 참획(斬獲)하였고 남강에 빠져 죽은 자가 1천여명이나 되었다.

거란군이 이미 후퇴하고 3군이 연주에 머

물려 있을 때였다. 또 적병이 昌州로부터 크게 침입한다는 말을 듣고 중군과 우군은 먼저 박주(博州)로 회군하였고, 김취려는 군수품을 호송하면서 도보로 沙峴浦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 때 적병으로부터 급습을 당하였다. 김취려는 위급함을 양군에 알렸으나, 중군과 우군은 수비만 하고 응원하지 않았다. 김취려는 양군이 응원하지 않자 후군을 거느리고 힘껏 싸워 적병을 격퇴시켰다. 그리고 마침내 군수품을 호송해 오자, 중군병마사 노원순이 서문 밖으로 나와 맞이하면서 말 위에서 술을 들어 축수하고 하례하였다. 뿐만 아니라 양군의 장군과 여러 성의 노인들이 모두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였다. 「이번에 강적과 대치하여 싸울 적에 그 처지가 어려웠는데, 개평·목장·묘향산·原林의 싸움에서 후군이 매양 선봉이 되어 적은 군사로서 많은 적을 무찔러 우리 老弱者로 하여금 생명을 보존케 하니 보답할 길이 없어 다만 축수할 뿐입니다.」

契丹軍 再侵과 朴達峴의 大勝

1217년 3월이었다. 거란군 3만여명이 다시 定州로 들어와 城柵을 불지르고 安州에 진주하였다. 그리고 5월에는 鉄原과 原州가 거란군에게 함락되었다. 이 해 7월, 前軍兵馬使가 된 김취려와 中軍兵馬使 최원세는 거란군을 추격하다가 독점으로 옮겨 진을 쳤는데, 다음날 麥谷에서 적을 만나 싸워 3백여명을 참획하였다. 3일 후 朴達峴에 이르렀을 때 동남도 加發兵馬使 임보 또한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합세하였다.

중군병마사 최원세가 고개 위에는 대군이 머물 곳이 아니라 하여 산 밑으로 후퇴하여 진을 치려고 하였으나.

「用兵은 비록 人和가 귀중하나 地利도 경시해서는 안 되오, 적이 만일 이 산마루에 웅거하면 우리는 지나갈 수가 없을 것이오.」하고 김취려가 말하여 드디어 산마루로 올라가 밤을 새웠다. 날이 셀 무렵, 적은 김취려가 예상했던 대로 산마루 남쪽으로 진군하여 먼저 수만 명의 병력으로서 좌우의 산봉우리를 공략, 요해처를 장취하려 하였다.

김취려는 申德威·李克仁으로 하여금 왼쪽을 맡게 하고 崔俊文·周公裔로 오른쪽을 맡게 하면서 김취려 자신은 가운데에서 북을 쳐서 격려하니 모든 군사가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웠다. 중군도 또한 크게 함성을 지르며 공격하니, 적이 패하여 버리고 간 병기와 군수물자가 질펀하였고, 노약한 남녀가 또한 많았다. 거란군은 이 전투에서 크게 패하므로 말미암아 끝내 남하하지 못하고 모두 동쪽으로 패주하므로 우리 군사가 이를 추격하니, 적은 대관령을 넘어 명주로 향하였다가 다시 威州를 거쳐 예진 땅으로 패주하였다.

契丹軍을 平定한 威烈公

김취려 장군은 거란군의 재침도 평정을

한 것이다.

그러나 거란군이 대거 변방을 재 침입한 것은 이듬 해인 1218년 7월이었다. 조정에서는 조충을 원수로, 김취려를 병마사로 삼아 모든 장수를 거느리고 이를 방어케 하였다. 조충과 김취려가 거란군을 격파하니, 적은 江東城에 들어가 지켰다. 그러나 이 해 12월에 몽고와 포선만노(금나라에 모반한 장군)가 세운 東眞國에서는 사자를 보내와 함께 거란군을 토벌하기를 언약하여 마침내 1219년 1월에 조충·김취려가 몽고와 동진의 군사를 모아 강동성의 거란군을 공격하니 항복하게 되었다. 이로써 3년여에 걸쳐 고려의 북방 일대를 유린하던 거란군은 조충과 김취려 등에 의해 완전히 평정되었다. 조충은 강동성의 거란군 토벌에서 얻은 포로들을 각도의 주현으로 보내어 인구가 적고 한적한 곳에 집단 거주케 하고 땅을 주어 농사를 짓게 하니, 이들의 집단 거주지를 契丹場이라고 불렀다.

이와 같이 거란의 침략을 평정한 김취려 장군은 한순·다지 등이 義州에서 일으킨 반란을 평정하는 등 공로가 많아 벼슬이 문하시중에 이르렀다.

1234년(고종21년)에 세상을 뜨니, 그의 시호를 威烈이라 하였다.

쪼들리고 閉鎖된 삶

◇ 이 글은 '81년 12월 서독 記者團의 한 사람으로 북한을 방문했던 General Anzeiger紙 東京특파원 Peter Crome씨가 취재, 同紙에 게재한 르포기사를 요약한 내용이다.

생산부장 최 종호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는 12년 전만 해도 모래와 자갈투성이의 작은 마을에 지나지 않았다. 오늘날 「청년」화학공업단지가 들어서 있는 安州市는 이곳에 자리잡고 있다.

이 도시계획이 입안된 시기는 김 일성이 평양을 호화전물로 치장하기로 결정했던 시기와 때를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건축물의 대대적 전시효과에 엄청난 돈을 쏟아 넣은 나머지, 북한은 外債를 갚을 능력을 잃고 대외적으로 불신을 받게 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북한경제를 마비시키게 된 한 이유가 되었다고 외교관들은 보고 있다.

外部世界 모르는 北韓주민

북한 주민들은 외부세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으며, 그들 자신의 세계가 오늘날까지 어떻게 외부에 보여 왔는지도 모르고 있다. 최근에 우리가 安州에서 만났던 한 폴란드 광산 기술자는 「60년대 중반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맨발로 다녔다. 70년대 초에 와서 모두가 한 켄레씩을 갖게 되었는데 오늘날에는 보통 두 켄레씩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서방사업가는 수도인 평양에서조차도 3년 전에는 상점에 물건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모든 생필품은 — 현물이 떨어지지 않는 한 — 아파트 단지에 있는 배급소에서 배급표를 가지고 구입할 수 있다. 배추와 생선은 많은 반면 쇠고기, 설탕, 창유리, 커튼은 귀했다. 安州에는 기껏해야 창문의 3분의 1 정도 밖에 커튼이 쳐 있지 않았으며

어떤 창문들은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다.崔의 가정은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보다는 잘 살고 있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들어서자마자 이 점은 명백해 졌다.

그 곳에는 온갖 신분의 상징들이 눈에 띄었다. 마침 TV는 김 일성이 일본인들을 몰아낸 후 반혁명분자들의 전화선을 끊는 내용의 영화를 방영하고 있었다. 이 장면은 오늘날까지도 북한 사회의 사회간접자본과 특히 전화시설이 매우 뒤져 있다는 사실을 방문객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최의 막내아들인 최철(12)은 열정적인 개척자의 인사법으로 우리들을 환영했다. 그는 자라서 레슬링 선수가 되고 싶다고 했다. 양복과 벡타이의 정장을 한 그의 아버지는 우리를 한국의 전통적 온돌로 따뜻하게 데워진 방바닥에 앉으라고 권했다. 창문에 커튼은 없었고 차가운 겨울바람을 막기 위해 플라스틱이 쳐져 있었다. 고유의 한복을 차려입은 최의 처가 인삼주와 담배를 들고 나왔다. 북한에서도 가장 사치스러운 접대용품이다. 우리들은 그들의 침실에 앉아 있었는데 침구는 옷장 속에 조심스럽게 치워 두었으며, 벽에 커튼을 치고 그 뒤에 잡다한 물건들을 놓아두고 있었다. 둥근 밥상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다리를 접어 한쪽으로 치워 놓을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거울이 달린 경대 위에는 어항이 놓여 있었으며 재봉틀 옆에는 고무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집에서 만든 양철판 천정등이 액자에 넣은 김 일성의 사진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괴테」와 「베토벤」도 몰라

문 위에는 의무적으로 달게 되어 있는 스피커가 있었는데 끌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방송이 나올 수 있다. 이 아파트에서는 — 적어도 우리가 있는 동안만은 — 수도물과 전기가 들어오고 있었다.

거실에 있는 TV화면에는 영웅적인 통신기사가 태업행위를 발견한 순간 숲속에서 날아온 총탄에 맞는 장면이 방영되고 있었다. 그는 부상한 손으로 전선을 잇고 있었다. 최 철은 너무 감격한 나머지 우리가 서독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느냐고 묻는 말에 대답하지 못했다.

평양의 한 엘리트 학교에서도 관현악단단원들이 이 질문에 당황했다. 「괴테」와 「베토벤」을 아는가 하는 물음에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서독의 수도는 빈이라고 대답했다. 옆에 놓여있는 책꽂이에서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왜 그들의 제 5위의 교역국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가를 알 수 있었다. 10권의 김 일성 전집, 4 권의 항일혁명사, 그리고 김 규옥이라는 사람이 32년에 썼다는 「봄」 등과 같은 게릴라 소설이 몇 권 있었다. 이 「봄」이란 소설은 우리가 북한에서 발견한 — 집단으로 量産되지 않은 — 유일한 개인작품이었다.

북한의 교육은 자체에 대한 찬미이며,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가장 중요한 主題는 「김 일성의 혁명활동」이었다.

컴퓨터는 눈요기

崔와는 달리 우리가 後日 방문했던 방직 공장 노동자 송 명제(28)는 오는 4월 15일 김 일 성의 70회 생일에 있을 노동자들의 교육수준 및 능력별 7등급 분류에서 최고 등급으로 특진하는게 유일한 소망이었다.

노동자들은 모두 이 경축일에 한 등급씩 승급하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宋에게는 최고 등급에 오를 소지가 많다. 그는 2백 60만 북한 노동당의 당원이며, 청년연맹의 공장대표이기도 한 것이다.

그의 월급은 생산부장인 崔와 거의 비슷하고 같은 璽의 아파트에 살며 자전거도 한 대 가지고 있었다. 평양에서는 자전거를 탈 수 없게 되어 있고 시골지방에서만 탈 수 있는데, 이것은 허가없이 이곳저곳으로 이동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송 명제는 우리에게 「전형적인 노동자」로 소개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청년」 화학 공장에서 들은 「동화」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이 합성섬유공장에는 생산시설이 7개 있었는데 그 중 3개만이 온전히 가동하고 있었다.

거대한 컴퓨터 장치는 불이 점멸하고 돌아가는 소리를 냈으나 필요해서 갖다 놓았다기 보다는 눈요기가 아닌가 하는 감이 들었다. 공장보건의소의 자랑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으나 가보았더니 폐쇄되어 있었다.

북한에서 본 DMZ(비무장지대)는 이곳을 찾는 외국 사람들의 눈에 얼핏 평화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종 군사시설들이 위장돼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주민들은 경제생활을 희생해가며 군사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주민 모두가 군사훈련을 받고 있다.

우리 기자 일행은 DMZ 가까운 도시에서 동쪽으로 8km쯤 자갈길을 통해 남쪽으로 안내되었다.

그 동안의 풍경은 길 왼쪽으로는 목책이 세워져 경비원이 지키고 있었으며 오른쪽으로는 자그만한 언덕까지 눈으로 경작되고 있었다.

「여기가 평화롭지 않습니까」 우리를 안내하는 강 명석이라는 대위가 농부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DMZ를 따라 온 것입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덧붙였다.

겉모양은 실제로 군사적인 분위기를 풍기지 않았다. 그러나 평화롭던 풍경은 다른 모습을 드러냈다.

배추시래기를 말리려고 매달아 놓은 농가 창문 뒤에서 우리는 농부가 아닌 군인들을 발견했다. 풀을 뜯고 있는 암소 옆에는 上陸연습용 표적이 눈에 띄었다. 탱크를 가린 싸리울타리 뒤에서는 쇠붙이가 번들거렸다. 고지와 연결된 지하통로의 입구들과 인공적으로 만든 언덕과 녹색으로 위장한

군인들이 눈에 띄었다.

DMZ를 따라 10km 가량 가다가 우리는 다시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꿔 안으로 들어갔다. 북한은 DMZ를 양분해 놓고 있었다. 북쪽에서 가까운 1km 이내의 출입허용 지역에서는 농사를 짓도록 하고 있었다. 남쪽 1km에서는 군사용 참호가 파여져 위장돼 있고 군인들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가 도착한 지하참호는 언덕 위에 자리잡고 있었는데 開城특별시 長豊郡 沙是里에 속한다고 했다.

이곳에서 남쪽으로 한국군이 있다는 미타山이 보였다.

사시리 서쪽에 있는 板門店에서 만난 이한출이라는 소령은 자기가 10년 동안 이곳에서 근무했다고 했다. 그는 45년 이후 북한이 3년 동안 소련의 점령 아래 있었다는 사실마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북한이 한국에 대해 어느 정도 준비를 갖추고 있는지 현지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노동당 중앙위서기인 서열 12번째의 金永南의 말로는 북한의 병력은 35만~45만명이며, 예비병력이나 준 군사조직이 없으며 다른 지원조직도 없다고 했다. 반면 한국은

경찰을 비롯, 예비군 병력을 합쳐 1천만명이 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외국에 대해 자기네들의 군사력을 감추려하면서도 제3세계에 대해서는 그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몇몇 회교국가와 아프리카 12개국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 또 그들 아프리카 국가들의 군사훈련을 담당하고 있으며 테러리스트의 양성에 적극적이다.

주민들의 생활은 극도로 쪼들리고, 빈약한 산업시설도 그나마 완전한 생산력을 보이지 못하는 북한은 군사적으로 강력해지기 위해 국민경제에 거의 투자를 않고 있다. 동맹국인 소련이나 중공도 북한을 크게 돕지는 않고 있다.

북한의 주민들은 누구나 빠짐없이 군사훈련을 받고 있다. 북한의 모든 주민들은 인민학교에서부터 소속되는 붉은 군위대부터 壯勞靑, 농업근로자동맹, 직업총동맹, 민주여성동맹 등을 통해 어김없이 동원되고 있다. 특히 다른 조직들이 대부분 목총 등으로 훈련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76만명의 勞農赤衛隊는 군사조직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질 서 의 식 생 활 화 로

선 진 조 국 앞 당 기 자

GEORGE ORWELL의

1984년

소위 이 문 석

(제2695부대)

“1984年”에 나타난 집단주의의 양상

지구상에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자유와 평등의 문제는 모든 사람의 공동관심사가 되어 왔다. 다수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적 통제의 가중되는 압력은 개인의 권리를 위협하게 되었고, 잃어버린 개인의 권리를 되찾으려는 혁명적 움직임의 여파는 과도하게 개인의 권리를 확대시켜 사회적 안정기반을 뒤흔들어 놓게 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해왔다. 조지 오웰은 이 작품을 통하여 미래세계에 도래하게 될지도 모르는

과두제 집단사회주의의 모형을 제시한다.

이미 1946년 발표된 「Animal Farm」에서 전체주의적 집단주의 체제의 기만성을 우화적인 수법으로 폭로한 바 있으나, 그로부터 3년 후 발표된 이 작품에서는 우화라

는 간접적이고 이온적 방법에서 벗어나 직접적이고 대담한 수법을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농장의 동물들을 선동하여 폭동적 혁명을 치른 뒤 지배자로 등장하여 반동적 전체권을 행사하는 “나폴레옹”은 당의 지도자이면서 절대적 존재로 추앙되는 “위대한 동무(Big Brother)”로 대치되고 있으며, 혁명 후 농장에서 추방당하고 모든 다른 동물들의 증오의 대상이 되는 스노우볼은 “골드스타인”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두 작품은 여러 면에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

오웰이 내다 본 “1984”년의 세계는 세계의 거대한 세력으로 분리된다. 러시아에 의한 유럽병합의 결과로 생성된 Eurasia는 유럽북부 전역과 Asia 서북부 일부로 구성되며, 미국에 의한 대영제국 병합의 결과인

Oceania는 아메리카대륙과 영국, 오세아니아주 등을 점유하고 있으며, 위의 두 세력 보다는 조금 작은 중국, 일본, 몽고, 티벳을 포함하는 Eastasia 역시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주인공 Smith가 속해 있는 Oceania에서는 “당(Party)”이라는 절대권을 가진 조직이 통치를 담당하고 있는데 모든 실제적인 업무는 그 산하기관인 5개 부처가 담당한다. 전쟁업무를 담당하는 평화부, 법과 질서를 다루며 사상경찰의 지휘부가 되는 애정부, 궁핍을 조절하는 풍요부, 당의 목적에 부합하는 허위선전을 담당하는 진실부 등이 그것이다. 미래의 사회는 사랑, 자유, 진실에 의한 통치로는 그 유지가 불가능하다. 새로운 국가는 인간성을 말살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억압함으로써 증오와 복종, 그리고 조작된 기록에 의존하는 통치에 의해 유지된다. 개인의 권리나 의지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당을 위해 무시되어질 수 있으며, 각자는 막강한 당의 일원이라는 사실에 만족하며 모든 불합리와 고통을 겪어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작품의 여러 군데에서 당의 세 가지 강령들이 반복서술되어 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 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Oceania사회의 통치원리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그 첫째가 “전쟁은 평화이다”라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귀절이다. “전쟁”과 “평화”라는 단어는 서로 대치되는 개념을 갖고 있다. Oceania에서 전쟁의 목적이나 형태는 종전의 그것들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종래의 전쟁이 영토의 확장이나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의도에서 수행된 데 비해 이들 세력 간의 전쟁은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지며 삼대 세력 중 어느 편도 전면공격을 감행하지 않는다. 어느 국가든 생산수단의 발달로 모든 국민들에게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경제적 능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지구상에 이전시대에 거듭된 것과 같은 전쟁의 요인은 해소된 셈이며, 3대 세력의 통치세력이 합의만 한다면 지구상에서 전쟁을 사라지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통치자인 당의 입장에서 보면 과두제 집단주의라는 것은 빈곤과 무지의 바탕에서만 가능하다. 당은 전쟁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대중들의 불만을 외부 세계에 전가시킴으로써 또다른 혁명의 예비요소를 제지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당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빈곤과 무지를 창출해 내는데 전쟁의 존재이유가 있는 것이다.

둘째는 “자유는 굴종이다”라는 원칙이다. Oceania사회에서 모든 개인의 어떤 형태의 자유든 허용될 수 없다. 주민의 사생활은 당의 치밀한 조직을 통해 통제될 뿐 아니라, 요소요소에 장치된 고도로 발달된 기계장치들을 통해서 감시 받는다. 모든 가정에는 방마다 텔레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들을 세뇌시키고 감시하며 거리의 건물의 모든 곳에는 포스터 등에 장치된 감시장치가 작동하며 심지어 숲속에 까지도 도청장치가 되어 있는 정도이다. 이들 모든 기구를 통해 개인의 행동은 물론이고, 말 한

마디 한 마디, 제스처, 사고를 통제하게 되며 심지어는 모든 본능적인 욕구들조차 통제하여 부부간의 성행위조차도 “어린애 만들기”로 명명하고 감정이 배제된 물리적인 행위로 전락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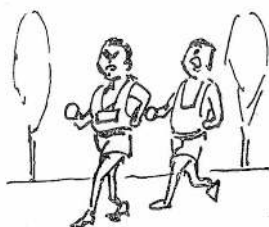
세째로 “무지는 힘이다”라는 원칙이 있다. 당의 이론에 따르자면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모든 국가의 정치적 사조의 주류는 권위주의의 원칙을 받아 들이게 된다. 이러한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주인들의 관심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과거의 기록이나 외부세계와 차단시키고 당의 목적에 합당한 정보만을 조작 제공하고 그것을 믿게끔 유도한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자유, 과거에의 동경을 버리지 못하는 주인공 Smith의 반항적 행동이 전개된다. Smith의 반항적 행동은 그의 방 후미진 구석에서 당헌으로 금지되어 있는 일기를 쓰는 데서 비롯된다. 일기를 기록하게 되는 것으로 비록 적은 공간이긴 하지만 당의 손길이 닿지 않는 자기 고유의 공간을 마련함과 동시에 조작변조된 당의 기록을 뒤엎을 수 있는 물적 증거를 갖게 된다. 그런가 하면 주인공은 당의 손길이 뚫힌 빈민가에 뛰어들어 노인을 붙잡고 과거의 생활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골동품가게에 출입하면서 사실이 변조되기 이전 시대의 물품들에 대해 까닭모를 애착을 느끼게 된다. “사실”이라는 것은 기록이나 혹은 인간의 기억력 속에 남겨질 수 있다. Oceania사회

에서 모든 기록은 당에 의해 왜곡변조되고 있으며, Smith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 속에 사실을 간직하려는 시도마저 포기해 버렸다. 그런데 인간의 의식이란 불완전한 일면을 갖고 있어서 아무리 뛰어난 기억력의 소유자라도 어떤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자기의식에 의혹을 품게 된다. 이런 면에서 주인공이 사실을 기록하고 과거를 확인하는 행위는 사실의 왜곡변조에 그 기반을 둔 당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주인공과 Julia라는 여인이 당의 감시망을 피해 다니면서 벌이는 애정행위는 당에 대한 도전을 넘어서 정치적 투쟁에 가깝다.

그러나, 당의 영향력에서 탈피해 보려는 주인공의 시도는 당에 의해 발각당하고 계속되는 육체적 고문에 의해 Smith의 의식은 당에 점차로 동화되어간다. 그런 중에도 주인공의 마음 한 구석에는 Julia에 대한 사랑의 희망이 잔존하고 있었으나 그것조차 당에 의해 간파되어, 그녀에 대해 품었던 일말의 애정조차 부인하고 무미건조한 수동적 인간이 되어·가며, 결국에는 그가 그토록 경멸하던 위대한 동무의 영상 앞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인간도구로 전락하게 된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오웰은 “1984년”에서 집단주의 통치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 작품을 시대의 어느 한 지점에 대한 예언서로서 보다는 미래세계에 발생할 수도 있는 극단적인 집단사회주의, 전체주의, 권위주의에 대한 경고로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경보경기는 일반적으로 걷기운동과는 달리 일정한 보형으로 정확하게 걸어야 한다. 어느 한쪽발이 항상 지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전진해야 한다.

어느 일순간이라도 양발이 동시에 공간에 떠있을 때는 달리는 것으로 판명된다. 또 스텝하는 동안 지면에 닿은 다리의 무릎관절은 땅에 닿는 순간부터 일순간에 곧게 뻗어 있어야 하며 뒷다리의 무릎이 구부러진 채 스텝하면 바른 보법이 되지 못한다.

위의 원칙을 위반하면 심판으로부터 1차적으로 주의를 받고 2차에 걸쳐 위반하면 실격까지 받는다. 이 원칙에 입각해서 빨리 걷기 위해서는 몇 가지 부분적인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우선 경보경기는 장거리경주와 마찬가지로 내구력을 겨루는 경기로 내구력이 강한 각력이 절대 필수조건으로 되

어 있다. 지구력과 다리의 근지구력 외에도 허리와 어깨가 강인해야 한다는 것을 필수 조건으로 들어야 함은 물론, 장거리경기이므로 강한 심폐기능을 가진 자여야 한다.

특히 50km경보경기자는 경기기능 이상으로 음식물을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인체의 기관과 에너지 축적하는 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음식물을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기능이 좋아야 한다.

경보경기는 또한, 빨리 걷기 위해서 넓은 보폭과 피치가 요구된다. 보폭은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1보가 1백~1백5cm 정도이다. 즉 1보가 신장의 7분의 4 정도이다.

유럽의 인류선수의 보폭은 1백10~1백20cm, 동양의 인류선수인 경우 95~1백5cm 정도이지만, 이것은 순수한 보폭이 아니라 허리의 회전을 교묘하게 이용하여서 20~30cm를 더 벌린 거리를 말한다. 보통 20km에서 1만수천회, 50km에서 4만수천회의 걸음이 필요하다. 경제적인 보폭은 다음 다리를 강하게 킁하는데서 얻어지고 무리하게 보폭을 넓히려고 하면 다리의 접촉이 지면에서 떨어져 들어올리는 상태가 되며, 킁이 과도히 되거나 다리가 꼬임이 되면 루행이 될 위험이 있다. 뒤의 발끝을 킁해서 앞의 발뒤꿈치로 착지한다. 이것은 보폭을 늘리기 위해서이다. 힘은 발뒤꿈치에서 발바닥 그리고 발끝으로 옮겨진다. 발의 옮겨드는 동작은 리드미컬하고 스무스하게 하여야 한다. 다리에 있어서 중심 이동 때는 지면에 닿아있는 다리가 뻗는 동시에 앞의 다리는 발뒤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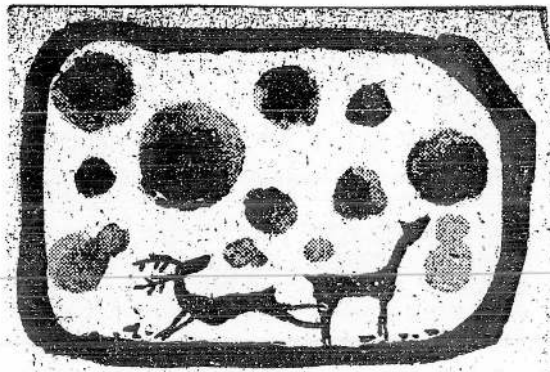
치부터 달아야 한다. 앞다리가 착지하면 뒷다리는 힘을 빼고 앞으로 옮긴다. 이때 발이나 무릎관절을 밖으로 향한 호를 그려서는 안 된다. 발을 평면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대퇴를 과도히 올리지 않는 것과 또 발을 너무 높이, 멀리 뺄어놓으면 도약으로 되기 쉽다. 발의 착지는 다리를 완전히 펴기 전에 될 수 있는대로 유연하게 움직여야 하고, 이것에 의해서 전진력을 약화시키는 저항작용을 피할 수 있다. 속도가 나오면 나올수록 보폭도 그 만큼 길어진다. 그러나 반대현상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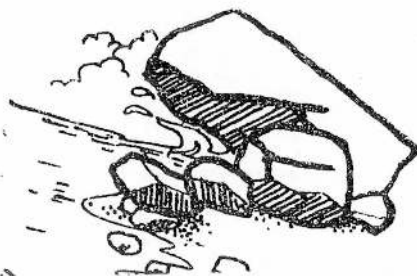
총체적으로 조용히 평평하게 다리를 움직이고 발자국은 언제나 일직선상이 되어야 한다.

경보에 있어 상체의 자세는 똑바로 서거

나 전방으로 5도 정도 굽히는 것이 좋다. 너무 많이 앞으로 굽히면 금방 뛰는 것이 되며, 제중 중심을 바로잡기가 곤란하여 반칙을 범하기가 쉽다. 반대로 상체를 뒤로 젖히는 자세는 지면과의 필요한 접촉을 잃어버릴 염려가 생기며, 자꾸만 젖혀지는 자세는 복근과 배근이 약해지는 증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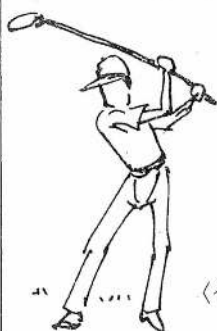
경보경기에 있어서는 허리의 회전이 큰 특징이다. 허리의 회전에 따라 다리의 흔들림을 쉽게 하고, 보폭을 뺄어주며, 좁은 보폭이라도 이에 따라 15%의 증대가 가능하다. 허리의 진폭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보행속도를 높이고 보행을 경제적으로 해주며, 허리의 회전은 팔의 굽힘과 큰 흔들림의 반동으로서 얻게된다. 무리한 회전은 오래가지 않는다.





隨 筆

격 구 이 야 기



李 炫 熙
(성신여대 교수·한국사·文博)

모처럼 6월의 어느 쉬는 날을 틈타 집 근처의 외국인이 경영하는 격구장에 가보았다. 격구라는 말은 「공을 때린다」는 뜻이다. 골프라는게 바로 격구를 의미한다면 짐작할 것이다.

격구는 고려시대 이래 귀족들이 주로 말을 타고 공을 때리면서 즐기던 고급오락점스포르츠라고 생각된다. 한자로 쓰면 고려·조선시대의 격구는 「擊球」가 되는데 오늘날의 골프를 우리 말로 쓰자면 「擊球」가 되어야 할 것이다.

원래 역사적 고찰로서의 격구는 군인들이 무예를 익히고 심신을 단련하는 방법으로 행하던 스포츠에 더 역점이 주어진다고

믿어야 할 것이다. 이 격구는 오늘날 골프와 하키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러니까 골프를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예전식의 격구가 아닌 擊球라고 표현하는 것이 합당하리라고 보아 이 수필을 통하여 강력히 그 명칭의 한국화를 제창하고자 한다.

원래 페르시아에서 비롯된 폴로(Polo)라는 재미있는 경기가 중국 당나라에 들어와서 「격구」로 정착된 것 같다. 이것이 고려·신라 등에 전해졌으나 본격적으로 즐긴 것은 고려시대로부터였고 조선왕조 중기에 와서는 쇠해 버렸다. 이 격구가 성행하던 고려시대에는 여성격구인까지 등장하였었다. 오늘날 30여개의 전국 격구장이나 수백개의 격구연습장에 여성이 많이 눈에 띄는 것은 이같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때문이 아니겠는가 싶다.

얼마전에 경험한 외국인 경영의 격구장에 「여성격구인」이 눈에 띄게 짧은 치마를 휘날리며 활보하고 있었던 것을 볼때 역시 전공의식이 발동하여 “저게 다 뿌리있는 정경이렸다” 하고 같이 來場한 친구에게 알려주었더니 여성 골퍼를 힐끔이 보고 있던 그는 흥미롭게 웃고 있었다. 이 격구는 조선

시대에 와서 무과에 과거과목, 즉 고급 군
인선발 시험과목으로까지 채택되어 정조
때에는 이십사반무예(二十四般武芸)의 하나
로 정해져 격구족보가 「무예도보통지」에 실
려 있을 정도였다.

격구가 매우 중요시 여겨져 지금 말로
하면 「격구과외」라는 특별연습도 있어 이
를 운영하는 「격구학원」같은 사설단체가
설치되어 시험 볼 총각들을 상대로 재미를
보았다고 한다.

그 격구의 종류에는 말타고 공을 때리는
것과 궁중 잔디밭에 구멍을 여러 개 파놓
고 걸어다니며 공을 쳐서 구멍안에 들여보
내는 보행격구의 두 가지가 있었다. 이 골
프라는 세계적인 경기는 그 시초가 페르시
아에서 행해지기 시작하였으나 우리나라에
도 꽤 일찍 들어 왔었는데 조선 중기 이후
에 거의 단절되고 민속 경기로 겨우 명목
만이 유지된듯 싶다. 그 뒤 6.25 남침전쟁
이후 미국 등 구미 여러 나라와의 외교관
계가 더욱 활발해 지면서 지체가 높은 분
들 사이에 보급되어 고급사교장으로 변한
듯 하다. 그래서 요즘은 거의 구미 골프 애
호국 수준으로 육박하는 것 같이 보인다.
나같은 일개 서생도 격구에 用心하고 있을
정도니까 말이다.

그곳에 가서 격구를 즐기는 층은 가히 우
리나라의 최고급 상류지도층이라 불리는 「꺾
직한 신사 숙녀」라고 본다. 최고의 지도적
위치에 계신 분들이니까 비록 그곳이 외국
인이 경영하는 곳이라 해도 우리가 한국인
이라는 사실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

이다.

몇번째 격구장을 돌고 나서 쉴겸해서 음
료수를 사먹고 있을 때의 일이었다. 주막
비슷하게 차려 놓은 간이음식점 앞에 어떤
풍신중은 신사 골퍼 몇 사람이 음료수를
사먹는 정경을 목격하였다.

한 노신사가,

“음료수 있소”

“예”

“여기 있는 것 하나 주쇼”

사마시던 그 노신사가 얼굴을 찡그리고 나
서,

“이거 미제요, 선제(국산품을 이렇게 비
하하는 것 같았다)요.”

그때 음료수를 팔고 있는 40대 중년 아
줌마가,

“지금 잡수신 것 미젠데요”

하니까,

“그러면 이쪽에 있는 것을 하나 주시오,
맛이 어떤지”

하고는 얼른 집어 쪽 마시고 나서는 몹시
상쾌한 듯이

“허, 이 미제가 그래도 맛을 당겨 준다
니까”

하고는 돈을 내고 다음 격구장으로 총총
히 가는 것을 보았다. 이때 음료수 파는 주
인 아줌마는,

“그게 바로 국산이라오”

하고 나서,

“저렇게 점잖은 신사분들이 국산품을 미
제로 안다든가 미제가 아니면 마시지 않으
려 하니 이게 무슨 꼴인지 모르겠어요, 저

야 뭐 무식한 여인이니 우리나라 것이 제일인 것으로 알지만 잘 살고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 이러니 이거 되겠습니까”

하고 자못 분개해 하는 것을 보았다. 맛좋은 그 음료수가 국산품인데 미제로 알고 기분 좋게 마신 분들의 의식구조는 어떤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그 「음료수 여인」에 의하면 하루에도 격구하러 오는 「높은 분」들 가운데 대부분이 미제타령이라고 하면서 외국사람 보기가 민망할 정도라고 한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자기 소속의 직장이나 단체에 나가서는 국산품 애용을 핏대나게 자진해서 외치고 다닐 것이 뻔하다. 한심한 일이다.

1920년대 일제에게 강점당하고 있을 때 우리 선조가운데 대부분은 외제(일제)배격을 주장하고 국산품 장려를 위하여 「물산장려운동」을 일으켜 「내가 만든 것을 먹고 입고 쓰자」는 토산품 애용 국민운동을 일으킨 바 있었고, 우리 손으로 4년제 대학을 만들어 우리의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 유능한 지도자를 육성할 것을 엄숙하게 결의한 바도 있었다.

십치어는 나이 어린 학생들까지도 「국산품 아니면 멸망이 있을 뿐이다!」고 목청을 높였던 것을 상기해 볼 때, 자유롭게 평화로운 요즘의 일부 지도층이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목격하였을 때, 쫓아가서 따귀라도 갈겨주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으나 인내의 미덕을 발휘, 꺾 참았던 일이 있었다.

그런 정신나간 사이비 지도자는 그곳 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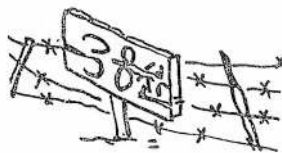
디밭이 비록 지금은 외국인이 사용하고 있으나 그곳마저도 외국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거나 앓을까 싶어 모퉁이 송연해 짐을 억누르지 못하였다.

우리 일행은 처음으로 아는 이의 소개로 한 번 그곳에 가보곤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로 속이 뒤틀려 18구장을 다 돌지 아니하고 일찍 나와버렸다. 주차장에 오니 아까 그 사이비 지도자가 멋지고 큰 차를 타고 나가는 것을 보았다. 분명 그차는 한국 자동차회사 제품이 아닌 외제 최고급 승용차였다.

격구! 「우드」나 「아연」으로 죄없는 공을 때릴 것이 아니라 창자, 쓸개 다 빼놓고 외국인 격구장에 나타나 지도자인척 하는 사이비 애국자, 한국인 망신시키는 그런 자들을 때리는 격구아닌 擊人장이 되어야 하겠다.

「격파! 사이비 애국자!」 되뇌면서 한강아파트 단지로 향하였다.

38선을 지나며



吳 敬 子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차창 밖으로 동해의 푸른물결이 넘실댄다.

양양 80리를 돌아내려오는 것 같더니 벌써 강릉인가 보다.

가슴이 탁트여 오는 듯 하더니 백사장의 철조망이 아프도록 저려온다.

돌벼랑 위로 가지런히 놓여진 조그만 돌탑들이 서글퍼 보인다.

넘실거리는 바다가 도시공해에 찌들은 심성을 말끔히 닦아내 주건만은 철조망과 돌탑을 언제까지 봐야되나 싶으니 심란하기 그지없다.

그래도 바다는 역시 넓고 시원하다.

마음 또한 시원히 툼주기에 역시 부족함이 없다.

바람은 시원하고 출렁이는 파도는 금새 몸을 두둥실 띄우 듯 신바람이 나게 한다.

아이들은 뒷자리에서 산다게 재잘거린다.

아빠, 오늘 바로 수영할 수 있는거냐고 재촉이 대단한가 하면 송지호가 좋다느니 설악이 좋다느니 하며 해수욕장 콘테스트가 한창이다.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 내리기가 무섭게 입에 무슨무슨바 라는 것을 담배물듯 어느새 빨아가며 나오는 아이들 얼굴 위로 38선이라는 붉은 글씨로 새겨진 물이 시야를 가로 막는다.

「아아 산이 막혀 못오시나요

아아 물이 막혀 못오시나요

다같은 고향땅을 가고 오건만

밤마다 너를 찾아 밤마다 너를 찾아

38선을 헤맨다」

심금을 울리고 애창되던 유행가다. 유행가 가사 나부랭이라고 쉽게 지나쳐 버리기

에는 너무도 상처를 깊이 후벼놓는 노래다.

원한의 38선, 피맺힌 38선

그돌따라 시선을 산으로 돌려보니 무심히 곧게 뻗은 아스팔트 길이 시원하게 가로지르고 차들이 연달아 달릴 뿐 노란 차선 외에는 아무런 표시도 되어 있지 않았다.

그 뒤 산에도 짓푸른 녹음 뿐 아무 줄도 쳐있지 않았다.

바다로 눈을 돌리니 무심한 바다는 출렁 출렁 파도가 일렁이고 있을 뿐 갈매기가 한가로이 물 위를 노닌다.

스라우!

따따땅! 따르르르!

억!

아버지!

여보!

따르르르따땅!

억.....

발 밑이 갑자기 뜨끈해지며, 누군가의 더운 피가 솟구치는 것 같다.

순이엄마가, 철수아빠가 한서린 손끝으로 발목을 붙드는 착각에 몸을 움추린다. 그 손들은 언제나 우리의 원혼을 고향땅에 보내주겠느냐고 묻고 있었다. 청춘의 붉은 피를 아낌없이 뿜어서 이 조국산하를 지킬 수 많은 자리들이 어찌 지금 이곳 뿐 이겠는가 만은 오늘따라 마음이 숙연해지는 것은 38선이라 쓰여진 글자의 색깔 탓인지도 모른다.

어린시절 공포의 여름은 온통 붉었다. 넘

실대는 원수의 깃발도, 길에 너브러진 수많은 시민들의 시신바닥에 질펀한 핏빛도, 서울을 잿더미로 만든 불길들도 모두가 붉었다. 동족을 살상코자 번득이는 그 눈빛들도 말 그대로 혈안이었으니 소름끼치도록 붉었다.

엄마! 빨리타요, 오늘 해수욕하고 가야 돼요!

하는 아이들 소리에 퍼뜩 정신을 차리니 파란하늘이 나를 감싸는듯 하다

엄마는 무얼 그리 멍하니 바다를 쳐다보고 있나고 딸아이가 채근하는 소리를 진성으로 들으면서 차에 올랐다.

그래 너희들일랑 바다나, 산이나, 풀 한 포기, 돌 한조각까지 즐거운 상념만을 일으키는 복된 추억들만 갖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아암 그렇고 말고!

설악해수욕장이다!

야 신난다.

38선 때문에 심란한 엄마나 운전하느라 힘겨운 아빠나 아이들은 지금 그 사정 생각할 겨를이 없다. 그저 즐겁고 단 1초라도 아까운 생각 밖에 없다. 어서 빨리 풍덩하고 파도 속에 미끌어져 들어가 두둥실 파도를 타고 싶어 발이 경중경중 공중에 걸려있는듯 하다.

아이들은 어느새 물 속에서 풍덩거리고 큰 아이는 벌써 파도를 타고 벌써감치서 가물거려 내 마이크(?)가 성능을 발휘해야 했다.

나도 튜브에 몸을 싣고 파도를 경중경중 타다보니 아무 생각없이 저기 오는 저 파

도를 어떻게 해야 적중해서 신나게 넘실대 볼까 하는 것에만 골몰하고 있었다. 덩실 덩실 떠오르는 파도에 몸을 싣고 두둥실, 아아 신나! 하는 순간이면 철썩 썩아, 하고 모래사장을 매끄러이 쓸고 간다. 뉘엿뉘엿지는 해가 안타까웠지만 내일을 기약하고 아쉬운 발길을 옮겼다.

설악산을 향해 가는 차 안에서는 국군의 방송이 흐르고 있었다. 그렇지 우리 민간인은 상기했다가도 금방 생활 속에서 그때의 회비에 따라 그것에만 충실하고 심지어 즐거움이나 설움조차도 순간순간에 점멸되는데 우리의 믿음직한 국군이 있어 철통같이 지켜주는 덕택으로 나는 울 수도 웃을 수도 있구나!

생각이 여기 이르자 감사하고 미안스러움에 코허리가 시큰해왔다.

몇년 전 훈련소에서 콩자반같이 작고 까매진 조카녀석을 보고 안스러웠던 때나 공군장교의 멋있는 모습으로 거수경례를 붙이며 나타난 둘째 조카의 얼굴들이 겹쳐지며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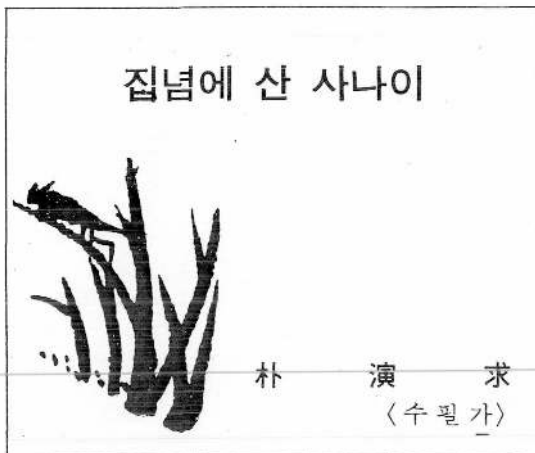
연 전에 일선 최전방에 다녀 온 대학생 막내 조카가 더 일찍 일선을 가볼 수 있겠더라면 유익했을 것 같다고 진지하게 술회하던 말이 생각키운다.

설악이 우뚝 반가운 미소를 던진다. 연제보아도 새롭고 신선한 연봉들이 눈을 빛나게 하는데 오늘 역시 부족함이 없다. 4계절 언제 어느 때 와보아도 수려하고 준수하게 잘생긴 산이라는 생각이 드는 산이다.

금강산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을까? 언제나 금강산에 여행을 갈 수 있을지, 지구 끝 어디에도 갈 수 있는데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북녘땅들은 언제나 밟아 볼 수 있을지.

비행기가 푸른하늘을 하얗게 가르며 날아간다. 보라매들이 하늘을 툐툐히 지켜주는 일 또한 우리는 너무 까마득히 잊고 사는 것이나 아닌지 모르겠다. 장한 대한의 아들들이 땅과 공중과 바다를 든든히 지켜주기에 나는 지금 설악에 와 있을 수 있다는 감사한 마음 이외에 지금 이 순간은 다른 아무 생각도 없다. 지금도 155마일 휴전선을 지키는 초롱초롱한 눈방울들에 우리 두 어깨를 싣고 선진조국의 고속도로를 힘차게 달리고 있지 않은가!

그들의 용맹과 건강을 신이여 지켜 주소서!



「북메우기」란 말은 「국어사전」에도 없다. 다만 최근에 발간된 「동아대백과」에는 기능보유자인 박균석(朴均錫) 씨의 사진을 곁들

여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음을 본다.

일요일 아침 TV에서 집념에 산 이들의 이야기인 「인간가족」을 시청한 이들은 「북메우기」란 것이 국악기 중의 어떤 것에 대한 제작공정(製作工程) 인가를 대략이나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창(唱)을 할 때 북으로 장단을 맞추게 되면 훨씬 흥을 돋군다. 인생의 한(恨)과도 같은 가락이 가슴으로 여울져 올 때, 나는 또 하나의 한을 감지하게 된다. 북에서 울려지는 소리, 그것은 곧 그 북을 만든 고장(鼓匠)의 한이기도 한 때문이다.

「인간 가족-영천 공방」, 중요 무형 문화재 제 63호 박균석씨는 나의 숙부가 된다. 숙부에 대해서는 「어느 장인(匠人)의 영광」, 「우직한 벽돌 쌓기 인생」이란 수필에서도 쓴 일이 있지만, 그가 나의 숙부라는 육친관계를 떠나서도 집념으로 산 한 인간에 대해 경의(敬意)의 염(念)을 금할 수가 없다.

스스로도 애기한 바처럼 그는 어려서 부친을 여의고 편모 슬하에서 무진 고생을 하며 산 사람이다. 학교 공부라곤 해 본 일이 없고 유산이라곤 「가난」밖에 물려 받은 것이 없어서, 「인생의 설계」운운은 한갓 사치한 낱말이고, 다만 호구지책(糊口之策)이란 낱말만이 절박하게 제시되었을 뿐... 그러니까, 우연히 손을 댄 「북메우기」란 일도 그에겐 먹고 살기 위한 방편에 불과 했었다고나 할까.

눈썰미가 있고 손재주가 있는 그가 정성을 합하여서 만들었기에, 그가 만든 「물건」

은 종로의 큰 가게에서 신용을 얻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차츰 알려져서 나중에는 불국사(佛國寺)나 법주사(法住寺) 등 대찰(大刹)의 법고(法鼓)를 주문받을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게 되었던 것이다.

배우지도 못했고 가진 것도 없었기에, 「북을 만드는 일」 자체가 그에게는 유일한 생계수단이였다. 그러므로 거기 전력을 기울여 몰두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소산(所産)된 북에서는 한이 서린 한 인간의, 맥맥히 흐르고 있는 한국인의 열이 담기게 된 것이 아니었던가 싶다.

그는 1979년 제 4회 인간 문화재 공예 작품전 입상 발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수상 작품은 「법고」인데 높이 1.5미터에 지름이 1.8미터나 되는 대고(大鼓)였다. 이듬해인 1980년, 그의 나이 62세에 「무형 문화재」로 지정을 받았으며, 그 후부터는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작품」을 제작하는 사람으로 「북메우기」를 전수(傳授)해야 하는 사명까지 띠게 되었다.

고장(鼓匠)이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게 된 것은 그가 처음이었고, 따라서 「북메우기」라는 명칭도 그에게 처음으로 붙여지게 된 것이어서 생소한 느낌도 없지 않았지만…….

그런데, 「인간 가족」에 출연한 박균석씨는 옛날하고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방송국 기자의 질문을 받고도 마치 「물건」을 주문하러 온 고객과 얘기하듯 하나도 꾸미지 않고 자기 생각을 털어놓는 거였다.

기자가 「물건」이란 말 대신에 「작품」이라고 하니까 그는 픽 씩스러워하면서도 그의 얼굴은 장인(匠人)의 의연(毅然)함을 보여주었다.

나는 그런 얼굴을 얼마 전 김포공항에서도 보았다. 하와이 아카데미 미술관 초청으로 그곳에 가서 미국 교포와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고전 악기가 어떤 공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보여 주고 돌아 온 것이다.

검은 머리는 없고 숫제 은발로 웃음 머금은 숙부의 얼굴, 좀처럼 웃지를 않는 분이지만, 웃음을 보이게 되면 슬픔의 그늘이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고 마는 얼굴이었다.

가난과 역경 속에서 살았으면서도 그 얼굴에 「가난」이란 문자가 쓰여 있지 않는 얼굴, 그런 한국인의 얼굴이기에, 어느 해의 국제관광공사 선전용 캘린더에는, 명승 고적 사진들 속에 유일하게 숙부의 얼굴이, 북과 함께 클로즈업되어 들어 있던 것을 기억한다.

40분간이나 방영된 「인간 가족」 프로가 다 끝나자 집사람은 나에게 한마디 침을 놓았다.

「숙부님은 지식도 없으신데 말씀만 잘 하시네요.」

「문학산책」인가 하는 단 10분짜리 프로에 나가서도 원고를 읽고 배웠던 나의 경우를 두고 핀잔하는 소리다.

「숙부님이 지식이 없으시다고? 천만에 말씀. 북 만드는 일에 대한 지식은 대한민

국에서 제일이야.」

「당신은 그럼 문학(수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방송에만 나가면 그리 찢찢매는 거요?」

「……………」

아내가 지적한 대로 나는 아직 나의 문학을 숙부의 「북메우기」 일처럼 담담(淡淡)한 경지에까지 올려놓지 못한 것 같다.

남 앞에 나가서 말을 할 때, 내가지니고 있는 것보다 더 낮게 보이려고 하는 그 못한 생각으로 해서 도리어 어색한 꼴이 되고 만다.

「북메우기」란 말이 촌스런 느낌이 들지 않느냐고 해서, 현대적인 감각이 풍기는 말로 표현한답시고 「북메이커」라고 망발을 하는 이가 없기를 빈다.

그런데, 그 말을 누군가가 나를 지칭하는 말로 쓴다고 하면 그때 나는 무슨 말로 대응을 해야 하나?

북(鼓) 메이커(Maker)는 해학적인 면이라도 있지만, 「북」도 「메이커」도 다 영문자인 Bookmaker는 「북메이커」(부크메이커)의 뜻으로 매우 모욕적인 지칭이 된다.

부크메이커, 돈을 벌기 위해 마구 저술(著述)을 하는 사람.

만일 나의 숙부가 「북메우기」를 「북메이커」로 했다면, 그는 돈을 벌었을치라도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면하지 못했을 것이고, 「인간가족」의 자격도 얻지 못했을 것이다.

나의 숙부가 「북을 메울때」 들이는 정성처럼 나 역시 「원고지를 메울때」 더욱 정성을 들이고자 한다. 「정성」과 「사랑」이 없이는 어느 것 하나도 이루지 못한다. 평범한 말이지만 실천하기는 어렵다. 나는 속으로 이 말을 새겨보고 「고달픈 원고지 메우기」를 끝내고자 한다.

〈정신교육 1문 1답〉

문 : 공산당이 「프롤레타리아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본의는 어디에 있는가?

답 : 공산주의 정치이론인 「프롤레타리아독재론」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소수에 대한 다수의 독재(가난한 자를 위한 민주주의)를 표방함으로써 국민대중을 기만하기 위해서이다.

(詩)

無名勇士의 墓碑銘

李 光 雨
〈시 인〉

祖国의 社稷이 風前燈火처럼 위태로울 때
殺戮의 銃聲이 울던 땅
敵의 魔手들이 퍼붓는 그 彈雨의 戰場으로 우리는 몸을 날려 뛰어들었다.
自由의 弔鍾소리를 멈추게 하기 위하여
神市開國 이래로 이어온 倍達 거리의 聖地를 수호하기 위하여
피로 물든 阿鼻叫喚의 수라장을 헤매이다가
끝내 낙엽처럼 散華한 肉身을 이곳에 뉘여
平和의 礎石이 되었다.

冬天 서릿발 흩뿌리던 겨울바람은 물러나고
江물은 풀려 물오르는 錦繡江山엔 봄이 오는데
彈皮와 철모가 뒤굴던 땅에도 민들레가 다시 피는 봄이 오는데,
오늘, 어찌하여 동강난 북녘의 땅은 말이 없는가

새들도 南北으로 오가고
바닷물도 하나로 어우러져 넘실거리는데
오늘, 어찌하여 허리 잘린 祖国은 침묵에 쌓이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무덤가엔
내 가슴에 피맺힌 恨처럼 붉은 진달래는 피는가.

花郎의 精神으로 뭉친 正義의 使徒 大韓의 아들이
반쪽난 조국을 누가 찾으랴

만만년 유구한 歷史를 이어온 빛나는 文化의 傳統을 그대가 아니면 누가 빛내랴
 高麗의 壯漢의 血脈이 흐르는
 大韓의 아들이아
 목메어 불러보는, 우리의 所願은 統一!
 기어이 三千里 錦繡江山이 하늘 이 山河에 통일조국의 讚歌가 메아리치게 해다오.

햇불을 들고 前進하라
 옛 高句麗의 常武精神의 義血男兒
 大韓의 아들이아
 이 땅에서 不義한 무리들이 영구히 敗亡할 때까지
 싸워야 한다.
 이겨야 한다.
 萬世磐石 위에 세운 우리의 祖國
 靑史에 길이 빛날 대한의 승리를 위해……

겨레여 光榮하라.
 祖國이여 永遠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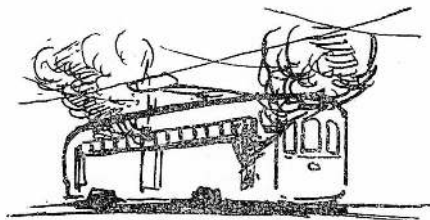
<연재만화>

보라매 日記

정 운 섭.



電車 焼却 事件



서울에 처음 전차가 등장하기는 광무3년(1899년) 5월 17일에 개통식이 있고부터였다.

수효는 모두 아홉대로 그 중의 하나가 귀빈차인데 황실 전용의 御車이고 나머지 여덟대가 일반 승객이 이용할 수 있는 보통차량이었다.

京仁철도 부설권이 일본 재벌 시브자와(澁澤榮一) 등의 손으로 넘어가자 미국인들이 임금을 줄라 한국 정부와 공동 경영 조건으로 부설권을 얻어 내어 일본과의 기술 제휴로 준공을 본 것이 1898년 연말 크리스마스 무렵이었다.

임금에서는 명성황후의 묘소인 洪陵거동이 잦으셨는데 신하를 거느리고 한 번 움직일 때마다 그 비용으로 10만원 이상의 대금이 소요되므로 이 점에 착안한 미국인들이 경비절감을 이유로 임금을 줄랐던 터라 홍릉 거동 때마다 타시도록 특별히 만들어

서 황실에 바친 것이 귀빈차였다.

서대문서 청량리까지 세 区間으로 나누어 여덟 대의 전차가 장안 한복판을 가로질러 달리게 되니 온 장안의 백성들이 다투어 구경하였고, 따라서 전차 때문에 벌어지는 희비극을 도처에서 볼 수가 있었다.

적어도 전차에 관한 지식없이는 문명 개화를 말할 자격이 없었으며 따라서 시대의 선구자는 여간 무리를 해서라도 전차를 꼭 타 보는데 아직 구경도 못 한 사람들 앞에서는 그 행세가 제법 장하였다.

「...전차라는게 얼마나 빠릅니까?」

「마차가 기를 쓰고 달리는 것보다 더 빠릅시다. 여복하면 이름이 전차겠어요? 번개 수레가 아닙니까.」

「흠!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크기는 얼마나 하구요」

「亭子처럼 생긴 것이 크기도 엔간한 집채 만한 합니다. 그 안에 결상이 있는데 한

꺼번에 40명은 넉넉히 태워 가지고 다니지요。」

「그것 참 희한하구로. 돈은 얼마씩이나 받나요?」

「한 토막 타는데 5전입니다。」

「한 토막이오?」

「예. 서대문서 운종가(종로) 까지, 운종가에서 동대문까지, 그리고 동대문서 청량리까지를 한 토막씩으로 쳐서 모두 세 토막입니다. 그래서 토막마다 5전씩 받으니까 서대문서 청량리까지 가려면 15전이 들게 마련이지요。」

「그 돈은 누가 받소?」

「차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차장이 계산기를 가슴에 메고 다니다가 돈을 받아 그 속에 넣고 밑에 달린 줄을 잡아당기면 찌르릉 소리가 나는데, 그때마다 통 속에 얼마가 들었다는 숫자가 나와서 차장이 돈을 속이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운전은 누가 하고요?」

「일본 교오토(京都)에서 데려온 일인 기술자가 한답니다。」

듣는 이는 부러워서 입가에 침을 흘렸다. 그러나 안달뻑이는 그냥 있지 못했다.

「여보게, 나 둔(돈) 우전(5錢) 만 취해 주게。」

「그건 뭇에 쓰게?」

「전차 샅이야。」

「아따 너 환장했니? 가산 탕진하려고 그러는구나。」

「내가 타려는 게 아냐. 나도 마지막으로 효도 한 번 해 보려는 거야。」

「그건 기특한 소리다마는……」

「내 아버지 말인데, 그 어른 건 병 앓아 누우신지가 벌써 얼마야. 이제 재기불능이거든. 그런 양반이 노상 말썽하시니를, 세상에 태어났던 기념으루다 생전에 전차 한 번 타 보기가 소원이시라는 거야. 자식된 도리도 그 원 하나 못 풀어드린대서야 쓰겠어? 생각하면…… 쿵썽쿵썽」

「임마, 울지 말어. 우전 예 있으니 갖고 가서 소원을 풀어드려, 쿵썽……」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 이번에는 전차 안에서의 일로서,

「여러 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차가 다음에 설 곳은 동대문입니다. 내리실 분은 미리 문이 있는 데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누구야?」

「차장이지 누군 누구겠어?」

「너석, 한번 잘 생겼다。」

「잘 생긴 놈만 끌라서 뽐았대요。」

「말씨가 또랑또랑 성미도 꽤나 까다로와 보이는걸。」

「음, 눈매가 통통한게 성깔이나 있게 생겼어。」

「우리, 동대문에서 내려 버릴까?」

「아냐, 이왕 탄 김에 청량리까지 나가 봐。」

「그럴래문 5전이 더 들지 않아?」

「돈이 아까워서 못 갈까. 이왕 호강으로 타는 건데。」

「그건 그렇지만 집에 갈 때 청량리서 서대문까지 걸어가는 게 조음 고생이야?」

「그 때두 또 타문 돼」

「뭐? 또 15전이 들게? 아, 좋은 수가 있다. 전차를 더 탈래문 동대문에서 내려 가지구 서대문 가는 놈으루 바꿔타면 되겠네」

「그거 댜어. 천천히 다녀 준대문 조음 좋아? 무슨 놈의 전차가 어찌나 빨리 달리는지, 5전, 10전이 후딱 달아나곤 한단 말이야」

「누가 아니래, 진종일 좀 타 봤으면」

「전차 차장으로 취직을 하렴」

「늙은 사람 누가 써 주나?」

「전차 차장 사위를 맞거나」

「느, 수양아범이나 삼아라」

「아따 이놈이……」

「하하하」

— 전차가 정류장에 머무르면 이번에는 차장하고 옥신각신이 생긴다.

「동대문입니다. 동대문에서 내리실 분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아이고 벌써 동대문이야?」

「빨리빨리들 내려 주세요」

차장의 말이다.

「전차 샅 주시오」

「뒤에서 뱉니다」

「그럼 빨리 내리십쇼」

「아따 성미 한 번 급하네. 조금이라두 전차 속에 더 있어야 그만큼 이익이 아니오? 덤 없는 흥정두 있나」

뒷사람이 따라 내리면서 돈을 낸다.

「돈 받으시오」

「두 분 아십니까?」

「그렇소」

「허면 10전을 더 주셔야죠. 두분이서 두 토막을 탔으면 20전입니다」

「한 토막 밖에 안 탔단 말이오」

「거짓말 말아요. 서대문에서 안 타셨소?」

「천만에요. 우린 종로에서 탔소이다」

「그러지 말아요. 서대문에서 타는 걸 내가 똑똑히 봤어요」

「어렵쇼. 이 많은 사람이 어디서 탔는지 일일이 기억한단 말이오?」

「다는 못 해두 댜처럼 얼굴이 유표하게 생긴 사람은 기억하고 말고요」

「아따 이 친구가 사뭇 시비야」

「당신들 같은 손님은 얼굴을 잘 봐 뵈다가 다시는 전차를 안 태워드리겠소이다. 어서 10전 더 내세요」

「에이 모르겠다. 당장은 밀쳐도 훗날을 봐서 10전 손해를 봐야지」

이렇게 조속히 해결이 되면 뒷손님들이 불평이다. 빨리 내리게 되는 일이 서운해서이다.

「왜 더 싸우지 않고 돈을 뵈금 낸다지?」

「누가 아니래, 싸움이 길어지면 우리가 전차 안에 타고 있는 시간도 불어나는 건데, 에이, 아까와」

이번에는 내린 손님들의 대화,

「아, 고 차장놈 성미 한 번 앙칼진데, 기어쿠 10전을 더 받아 내구야 마는 구면」

「그러기 말이야. 에누리없는 장사가 어디 있담」

이렇듯 전차의 인기는 날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며칠이 안가서 이 인기가 땅에 떨어질 사고가 생겼다. 먼저, 공교롭게도 이 전차가 개통되면서부터 날인 가물어서 시골

서는 못자리가 마르는 소동이 빚어졌는데 그 원인을 하필 전차운행에 돌린데서부터 그 인기는 추락하기 시작했다.

하늘에 쿼는 전깃줄을 늘어 놓아 번개를 끌어들이므로, 그 놈이 하늘의 빗기운을 몽땅 뿜아 버린다는 것이었다. 이렇듯 허망한 이야기들이 한 입에서 두 입으로 건너고 건너서 마침내 온 장안에 퍼지게 되자, 백성들은 어제까지도 좋기만 하던 전차를 싸늘한 눈초리로 쏘아 보게 되었다. 이것이 발전되어 나아가서는 미국인이 경영하는, 일본 사람이 운전하는 전차를 타는 이를, 민족반역자까지는 몰라도 패가망신하기 알맞은 후레자식쯤으로는 여기게 되었다.

전차에 대한 장안 인심이 흥흥하고 불정이 소연해지자 전차는 휴업상태의 한산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나마 개통한 지 꼭 아흐레째 되는 5월 26일 아침 9시경, 동대문에서 서대문 방면으로 달려오던 전차 한 대가 파고다공원 앞을 통과하다가 다섯 살 짜리 어린아이 하나를 치어 죽임으로써 전차운행의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었다. 하물며 그 아이가 3대 독자임에랴. 애 아버지가 도끼를 들고 달려와 자기 아들을 살려내라고 악을 쓰는 바람에 운전사와 차장은 차를 버린 채 달아났고, 전차는 흥분한 군중의 손에 석유를 붓고 불태워졌다.

그 뒤부터 군중은 전차만 보면 이를 갈고 미친 듯이 덤벼들어 차체를 파괴하고 운전사를 끌어내어 늘썬하게 두들겨 패곤 했다. 이렇게 되니 신변에 위험을 느낀 종업원들이 취업을 거부하여 전차는 개점 휴업상태

로 들어갔다. 이에 당황한 운영주축이 연일 회의를 열고 대책을 강구하나 명안이 떠오르지 않았다.

종업원 대표와 교섭을 가져 본 결과 일 본인 기술자들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금을 은행에 공탁하라 요구했고 또 호신용 권총을 한 자루씩 휴대하겠노라고 요청했다. 경영주축이 이를 거부하자 일인 종업원들은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는 한 총사직한다고 울러메어서 큰 골치를 앓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군중들은 발전소를 습격하여, 시설을 모두 파괴할 기세를 보였다. 이에 대한 방비책으로 발전소 주위에 전선을 둘러치고 5, 6백 볼트의 전류를 통하여서 폭도들의 접근을 방지하기도 하였다. 이제 남은 일은 일인 기술자의 처우와 신변 보호 문제였다. 이에 대하여 경영주축은 갑을 양론으로 의견이 갈리었다. 한쪽은 아무리 해도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노라 하고, 다른 한쪽은 저들의 태도가 강경한 이상 공연히 자극했다가 정말로 총사직하고, 돌아가는 날에는 어찌하려느냐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렇게 팽팽히 맞서다가 결국은 자기네 본국 즉, 미국 출신 운전사와 기술자를 고용하자는 데로 공론이 기울어졌다.

「매우 좋은 의견이오마는, 미국서, 예까지 데려오려면 여비가 많이 들 뿐 아니라 보수도 비쌀 터인즉 그 일을 어찌합니까?」

「일인들의 행패와 부당한 요구를 겪고 당하기 보다는 비용은 다소 더 나가더라도 미국인을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 줄로 압니다.」

「그것 좋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중역회의는 만장일치로 이 안을 채택했다. 이 눈치를 알아챈 약삭빠른 일인 운전사와 기술자들이 즉각 총사직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렸다. 이제는 기계만 있고 기술자가 없는 꼴이니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리하여 서너달 간이나 전차는 서울 장안에서 자취를 감추고 동대문 근처에 있는 발전소에는 전류가 통한 철조망이 쳐져 삼엄한 경계가 계속되었다. 8월 10일에야 간신히 미국서 온 여덟 명의 운전사와 두 명의 기술자에 의해 서울 거리에 다시 전차가 다니게 되었다.

아름든 운전기술이 미숙하여 사람을 치어서 죽게 한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업주측이 보상금과 위자료를 지불할 것이 당연하지만 전차 사업은 정부와 합작한 공동경영이라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7일에 임금은 즉각

조서를 내려서 내부로 하여금 사상자에 대한 원조금품을 넉넉하게 지급하고 또 농상·공부·경무청·한성부에 일러서 다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경무사 원우상에게 전차 소각사건에 책임을 지워서 견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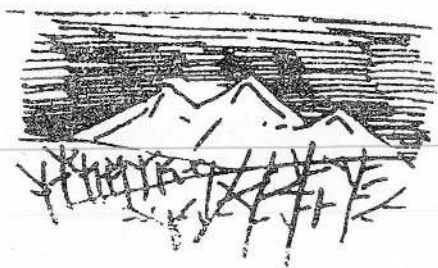
전차를 불살라 버린 지 닷새만인 8월 31일에 비로소 비가 내렸다. 백성들은,

「그것 보라니까, 전차가 못 다니게 되니까는 비가 오지 않는다구?」

「옳은 말이야. 하늘을 무심히 볼 수가 없어」

「이날이 바로 경비소홀로 경찰관리를 처벌하게 되어 있던 날이다. 그 대상에 오른 것이 중서근무 경무관 구범서와 경무청근무 총순 김동찬인 바 마침 이날 비가 온 탓에 저들은 7일간, 그리고 10일 간의 벌봉이라는 각각 경미한 처분을 받게 되었다.

전차에 대한 트집도 많고 공훈도 컸던 것이다.



— 독자에게 알립니다 —

이 책자에는 군 보안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은 게재 되어 있지 않으나 부지불식간에 적의 전략 정보로 오용될 수도 있으니 독자 여러분은 책자의 취급과 보관에 각별한 주의 있으시기 바랍니다.

3,700

제목 : 「공군」 제 190 호

1984년 9월 11일 인 쇄

1984년 9월 15일 발 행

발 행 : 공 군 본 부

편 집 : 정 훈 감 실

인 쇄 : 공 군 교 재 창

〈연락처〉 전화 : 813-2691, 호-5115

행군의 아침

작사 김영삼
작곡 김동진

현직곡조로 한가게

1. 동이 트는 새벽 꿈에 고향을 본 후
2. 잠이 들 때 담배 피며 구름을 본 후

외투 입고 투구 쓰면 맘이 새로워
배낭 메고 투구 두곤을 굳이 매고서

거힘 든히 총을 메고 나서는 아침
있게 일어서면 열려진 앞길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앞을 보면 서서
주먹을 두주먹을 앞을 꿰고서

물라도 맑고 산도 고운 이 강산 위에
맑은하늘 정기도 없는 이 강산 위에

서광을 비추고자 행군이라 내
오랑캐 내쫓고자 강행군이

軍人の 길

나는
榮光스런 大韓民國 軍人이다.

하나.. 나의 길은 忠誠에 있다.

祖國에 몸과 마음을 바친다.

하나.. 나의 길은 勝利에 있다.

不屈의 鬪志와 戰技를 닦는다.

하나.. 나의 길은 統一에 있다.

기필코 共產敵을 쳐부순다.

하나.. 나의 길은 軍律에 있다.

嚴肅히 禮節과 責任을 다한다.

하나.. 나의 길은 團結에 있다.

指揮官을 核心으로 生死를 같이
한다.



공군의 결의

우리는 자랑스런 필승의 공군이다.

엄정한 군기 아래 깨끗하고 씩씩하며
서로 도와 단결하여 책임을 완수하고
나아가서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